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학년도
석사학위논문

〈허용애기본풀이〉 연구

지도교수 : 김 현 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윤 정 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윤정귀

윤정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3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및 도식 목차	iii
논문개요	iv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5
II. <허웅애기본풀이> 자료의 전승양상	7
1. 자료의 전승 양상과 수집 경위	7
2. 자료별 서사단락 정리	12
3. 자료별 특징 종합	31
III. <허웅애기본풀이>의 서사적 특징	36
1. 등장인물 분석	36
2.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	43
3. 이승과 저승의 단절과 경계	51
IV. <허웅애기본풀이>의 신화적 특징과 의의	56
1. <허웅애기본풀이>의 여성신화적 특징	56
2. <허웅애기본풀이>의 일반신화적 의의	59
V. 결론	64

참고문헌	66
부 록	68
Abstract	107

표 및 도식 목차

[표1]<허웅애기본풀이> 자료 목록	7
[표2]<허웅애기본풀이> 자료별 중요화소 출입 양상	31
[도식1]이승과 저승의 인물 배치도	43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제주도 무속신화인 <허웅애기본풀이>의 전승양상을 살피고, 그 신화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어린 아이들을 남기고 요절한 허웅애기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나뉘게 된 사연을 다루고 있는 제주도 무속서사시이다. 허웅애기는 강한 모성애로 저승왕을 감동시켜 이승을 방문할 기회를 얻지만, 약속된 시간을 여기면서 저승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승과 저승의 완전한 단절을 초래한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허웅애기의 모성애는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가치로 인식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허웅애기본풀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허웅애기본풀이>가 전승되는 실상을 확인하고 일반신화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이 본풀이는 제의에서 탈락된 채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러지는 특수본풀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허웅애기본풀이>는 여전히 <차사본풀이>와 결합되어 굿의 제차 안에서 진행되는 전승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내용상 이승과 저승의 소통과 경계를 다루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신화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행 양상과 내용적 특징을 바탕으로 <허웅애기본풀이>를 일반신본풀이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둘째, <허웅애기본풀이>는 전통 신앙에 근거해 저승이라는 이계에 관한 소박한 신화적 사고를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물론, <바리데기>나 <차사본풀이>와 같은 서사무가 역시 저승 세계에 대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이미 이승과 저승이 분리된 이후 벌어지는 저승 여행이 중심이다. 이에 반해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온전히 분리되지 않고 소통 가능하던 세계에서 서로 분리되기까지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원초적 사고가 확인된다.

셋째, <허웅애기본풀이>는 여성서사문학적 전통과 의의라는 관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만하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죽음을 넘어 삶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투쟁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 그 여성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모성애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 등이 매우 소중하다. <바리데기>와 비교했을 때, 두 신화 모두 여성이 주인공이고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바리데기>는 딸이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저승 여행을 하고 있다면, 허웅애기는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실천으로써 죽음에 맞서고 있다는

점이 차별된다. 둘 다 소중한 가치이나 효보다는 모성애가 더 본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층 원초적 사고가 깃들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인공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주로 여성 심방과 여성 화자들에 의해 무가, 설화, 민요로 구연된다는 점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여성서사문학적 특징이 있다.

넷째, <허웅애기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적 전통 속에서 다양한 서사무가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연행되고 전승되는 본풀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에 있어 세상의 창조에 관한 내용, 저승세계에 관한 관념,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성시키는 삼신신앙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는 창세신화, 생사기원신화, 생육신화의 특징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신본풀이로서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허웅애기본풀이, 모성애, 이승과 저승, 저승차사, 저승왕, 여성신화, 삼신(産育神), 일반신본풀이, 서사무가, 무속신화, 바리데기, 효(孝)

I. 서론

1. 연구목적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 세계가 단절하게 된 기원을 밝히는 제주도 무속 신화이다.¹⁾ 저승은 인간이 죽은 후 가게 된다고 여겨지는 상상의 공간으로, 인류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궁금증을 해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저승 세계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종교와 문화, 문학과 예술 등 다방면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저승 관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종교일 것이다. 종교에서는 저승의 관념을 상정해 현세보다는 내세를, 행복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 신앙 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 이후의 저승이라는 시공간을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문학일 것이다. 특히 여러 문학 갈래 중에서도 신화는 인류가 죽음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궁금증, 죽음을 극복하려는 투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학 갈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되어 전승되는 문헌신화들은 나라의 건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구전으로 전승되는 무속신화들에서는 천지창조, 인류의 기원, 생명의 근원, 삶과 죽음 등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들과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죽음과 죽음 이후의 저승이라는 시공간에 대한 형상화는 <바리데기>, <차사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등의 무속신화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나뉘지게 된 기원을 밝히고 있는 신화로서 새롭게 주목을 요한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애초 인간은 죽어서 저승에 간 이후에도 이승을 오고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승에서 이승을 방문한 허웅애기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더이상 저승에 갔던 인간이 이승에 올 수 없게 된다. 즉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이승과 저승이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이승과 저승이 여전히 서로 소통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함께 표출되어 있다. 이처럼 저승은 오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오갈 수 없는 이중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전통적이고 원초적인 저승관의 한 특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나뉘는 결정적인 계기로 어머니의 모성애

1) <허웅애기본풀이>는 달리 <허궁애기본풀이> 또는 <허웅아기본풀이> 등으로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주요 제보자인 오인숙 심방의 자료 명칭을 따라 <허웅애기본풀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가 강조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허웅애기의 강한 모성애에 감동한 저승왕은 그녀가 밤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이승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도록 허락해 준다. 그러나 허웅애기는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 약속을 어긴다. 이로 인해 저승왕의 분노를 사고 결국 이승과 저승은 영원히 소통할 수 없는 경계가 지어진다. 삶과 죽음의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모성애라고 하면서도 또한 그 모성애 역시 삶과 죽음의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요소로서 왜 모성애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이웃할망이 등장해 이승을 방문한 허웅애기가 저승에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다. 그러나 선의로 행한 이웃할망의 도움은 오히려 저승왕의 분노를 사고, 이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이웃할망은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웅애기, 저승왕, 저승차사 등과 같은 저승 존재들과 대립되는 이승 신격적 상징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에서의 이승과 저승의 분리는 허웅애기라는 한 개인 차원을 넘어 이승 신격과 저승 신격의 침예한 대립의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요구된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의 갈래적 특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창세신화(創世神話), 차사신화(差使神話), 산육신화(產育神話) 등과 같은 일반신본풀이적 신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허웅애기본풀이>를 특수본풀이로 규정했던 것과는 다른 특징이다. 게다가 현지조사 결과 <허웅애기본풀이>가 여전히 일반제의에서 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신화의 일반신본풀이적 특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허웅애기본풀이>는 주로 여성 화자들에 의해 서사무가와 설화, 서사민요 등 다양한 문학 갈래로 전승되면서 여성서사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발현시키고 있는 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2. 연구사 검토

<허웅애기본풀이>에 관해서는 강권용, 서영숙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먼저 강권용은 제주도의 특수본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웅애기본풀이>를 특수본풀이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다.²⁾ 강권용은 그간 제주도 무속신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2) 강권용, 「특수본풀이연구」,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허웅애기본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는 <허웅애기본풀이>가 현재의 무속제의 현장에서 더 이상 구송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본풀이 유형인 <세민황제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등과 마찬가지로 <허웅애기본풀이> 역시 곳에서 차지하는 신격의 존재가 미미하고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곳에서 구연되지 않게 된 것과 관련된다고 본 것이다.

강권용의 연구는 그간 제주도신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허웅애기본풀이> 이하 여러 특수본풀이 유형의 자료들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허웅애기본풀이> 자체의 내용과 서사구조, 세계관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미 곳에서의 전승이 단절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후속 연구자들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허웅애기본풀이>가 아직도 일부 심방들에 의해 곳에서 구송된다는 점이 새롭게 보고되고 있다.³⁾ 아울러 강권용이 사용하는 ‘특수본풀이’라는 용어는 진성기의 분류를 온전한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⁴⁾ 특수본풀이라는 용어는 곳에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학술적으로도 검증된 갈래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⁵⁾

서영숙은 두 차례에 걸쳐 <허웅애기본풀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영호남 지역에서 서사민요로 구전되는 <애운애기>와 제주도에서 서사무가로 구송되는 <허웅애기> 노래가 저승차사에 의해 여성 주인공이 저승으로 잡혀가는 내용을 공통으로 서사화하고 있음을 주목했다.⁶⁾ 이를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로 규정하고, 그 전승 유형을 3가지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제1계열은 애운애기 계열로 저승차사가 데리러 오자 애원하는 여자가 주인공이며, 제2계열은 허웅애기 계열로 저승에 불려가 애원해서 이승에 다녀가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제3계열은 애운애기,

3) <허웅애기본풀이> 자료에 대한 최근의 조사는 김현선, 서영숙, 윤정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II <허웅애기본풀이> 자료의 전승양상”의 “1. 자료의 전승 양상과 수집 경위”와 [표1]에서 확인 가능하다.

4) ‘특수본풀이’라는 용어는 진성기가 제주도의 여러 무속신화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명명한 것이다(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강권용은 현장에서의 전승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없이 진성기의 분류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허웅애기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본풀이’라는 용어는 곳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그 개념이 정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특수본풀이’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5) <허웅애기본풀이>는 진성기와 강권용이 특수본풀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인류 보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반신본풀이적 성격이 뚜렷하다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일반신본풀이에 관한 개념 정의는 다음의 연구에 근거한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6면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45면.

6)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5호, 2012, 91~120면.

허웅애기 계열로 저승차사에 의해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녀오는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러한 각 계열은 그 전승지역이 영호남(1계열)과 제주도(2,3계열)으로 차이가 난다.

또한 그 갈래 역시 길쌈과 발농사 노동에 동반되던 서사민요 형식(1계열)이거나 서사무가 또는 신화(2계열), 서사무가 또는 서사무가의 민요화(제3계열) 등으로 변별된다고 하였다. 각 갈래에 나타나는 여성 향유층의 의식을 고찰한 바, 영·호남 지역 여성들은 주인공의 시집살이 고난과 느닷없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제주 지역 여성들은 주인공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다 어그러지게 된 기이한 사건에 더 큰 공감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다.

서영숙 연구는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가 점차 육지와 제주도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 노래와 이야기로 끊임없이 폭넓게 전승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영숙은 후속연구에서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유형으로 한국과 영미 발라드에서 똑 같은 테마가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⁷⁾ 이에 해당하는 한국 자료로 <애운애기>와 <허웅애기> 노래를, 영미발라드로는 <죽음의 신과 숙녀>와 <농부의 저주 받은 아내> 노래를 들어, 두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은 허웅애기와 같이 살림 잘하고 젊어 죽는 여자의 죽음을 불쌍하다고 하면서 죽음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한편, 동시에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반면, 서양에서는 죽음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죽음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죽음에 맞서 대항하고 삶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서영숙의 논의를 통해 동서양 모두에서 저승차사 또는 저승의 신이 이승의 여자를 데리러 오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노래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다는 점,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웅애기본풀이>에 관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논의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라는 자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허웅애기본풀이>가 전문집단인 심방에 의해 구송되는 서사무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의해 설화와 서사민요로까지 갈래적 확장을 하며 전승되고 있는 자료라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웅애기본풀이> 자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바 없다. 특히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경계를 짓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

7) 서영숙,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비교」, 『고시가연구』, 3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219~246면.

다는 점에서 그 시원(始原)이 매우 멀고, <천지왕본풀이> 등과 같이 창세신화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적이다. 무엇보다도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이승과 저승의 소통과 단절에 대한 인식을 해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허웅애기와 그녀의 원조자로 등장하는 이웃할멈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겠다. 아울러 <허웅애기본풀이>가 왜 무속제의 중에서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 본풀>, <차사본풀이> 등과 관계 맺으면서 불려지는 이유⁸⁾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에 대한 기존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데에는 조사된 자료의 편수가 많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허웅애기본풀이> 자료를 확충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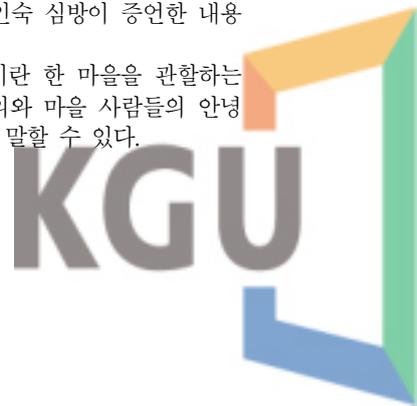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문헌학적 방법론과 현지조사방법론을 병행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허웅애기본풀이> 자료들은 주로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러한 자료와 아울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지만 연구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한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자료에 포함시켰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는 제주도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심방들에 의해 무속제의에서 불려지고, 간간히 연구자들에 의해 그 자료가 채록된다는 점에서 전승력이 살아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제보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현지조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를 방문하여 오인숙 심방(여, 88세)을 대면조사 하였다. 오인숙 심방은 친정 쪽으로 4대째 무업을 이어받아 40년 이상 세화리 당매인 심방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⁹⁾ 오인숙 심방을 통해 <허웅애기본풀이>가 무속제의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탐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직접적인 구연을 조사하고 채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8) 2002년 3월 26일 현지 조사 당시 김현선 교수와 오인숙 심방의 대담 중 오인숙 심방이 증언한 내용이다.

9) 제주도에서는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심방’이라고 칭한다. 또 당매인 심방이란 한 마을을 관할하는 당(堂)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방을 말하며, 해당 마을의 당과 관련한 무속제의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책임 사제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학적 방법론과 현지조사방법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I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 개별 자료의 수집 경위와 자료적 특징, 갈래의 종류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총 17편이다. 그 중에서 기존에 문헌으로 출판된 자료가 8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된 자료가 7편, 본 연구자가 직접 채록한 자료가 2편이다. 이중에 본풀이 자료는 7편이며, 설화로 전승되는 자료는 8편이고 서사민요가 2편이다. 17편 자료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서사단락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료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17편의 자료의 공통 서사단락을 추출해 유형적 공통 특징을 밝힐 예정이다.

III장에서는 17편 자료에서 추출한 공통 서사단락을 바탕으로 중심 사건과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허웅애기본풀이>의 중심 사건은 주인공인 허웅애기가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의 왕래하고 소통하는 과정과 허웅애기의 실수에 의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고 경계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순차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에 담긴 죽음과 저승 공간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의 중심인물인 허웅애기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그녀를 돕는 원조자로서 할망의 존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 저승왕, 저승차사, 허웅애기의 아이들에 대한 분석도 병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허웅애기, 할망,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원조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할망과 아이들이 연대해 허웅애기, 저승왕, 저승차사와 맞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인물간의 우호와 협력,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구분되고 경계 지어진다는 점에서 각 인물이 갖는 상징성 해명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여성서사문학적 전통과 신화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주로 여성 화자들에 의해 서사무가와 설화, 서사민요 등 다양한 문학 갈래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 <허웅애기본풀이>가 여성서사문학의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창세신화(創世神話), 차사신화(差使神話), 산육신화(產育神話)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반신본풀이들과의 연관성이 신화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아울러 살필 예정이다.

V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II. <허웅애기본풀이> 자료의 전승양상

1. 자료의 전승 양상과 수집 경위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허웅애기본풀이>는 모두 17편이다.¹⁰⁾ 자료 목록 순서의 기준은 이 자료가 현재까지 무속제의에서 진행되는 본풀이라는 점에서 본풀이 형식으로 채록된 자료를 우선으로 삼았다. 이후 문헌에 수록된 설화 자료와 서사민요로 구연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그 구체적 목록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허웅애기본풀이> 자료 목록¹¹⁾

번호	각편 제목	제보자	채록자	발표지	발표년도	비고
1	허웅애기 본풀이	오인숙	윤정귀	채록	2013.11	본풀이
2	허웅애기 본풀이	오인숙	윤정귀	채록	2013.11	본풀이
3	허웅애기 본풀이	오인숙	김현선	채록	2013.8	본풀이
4	허웅애기 본풀이	오인숙	김현선	채록	2002.3	본풀이
5	허웅애기	고순안	김현선	채록	2013.8	본풀이
6	허웅애기	고순안	강소전	채록	2011.1	본풀이
7	허웅애기본	강을생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 이사전	1991	본풀이
8	죽으면 못 돌아오게 된 유래	오익찬채록 (1959.8.)	현용준	제주도민담	1996	설화
9	허운애기	양송백 (1986. 7.29.)	강정식	<<백록어문>> 2집	1987	설화
10	허웅애기	부의함 구연 (1992.7.25.)	강정식 외	<<백록어문>> 10집	1994.10. 25.	설화

10) 기존에 조사되어서 문헌으로 출판된 자료들과 현재에도 일부 심방들에 의하여 구연되고 있는 서사를 조사 채록한 자료를 1차 대상으로 삼았다.

11	애기엄마의 혼	김순자구연 (1999.10.1.)	강정석외	<<백록어문>> 16집	2000.2.20.	설화
12	허웅아기	윤추월	현용준·현길언	구비대계 9-3	1983	설화
13	허웅아기	이방아 (1964년 8월)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집	1992	설화
14	허웅아기	이오생 (1956.12월)	진성기	남국의 전설	1959	설화
15	허웅애기	김태일	김현선	채록	2012.8	설화
16	허웅애기	김태일	김현선	채록	2012.8	민요
17	허웅애기	김태일	서영숙	채록	2012.8	민요

먼저, <허웅애기본풀이>의 무속제의적 관련성, 전승 자료의 분포, 구연 양식적 특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료의 전승 양상과 관련해서 <허웅애기본풀이>가 과연 무속제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연되는지, 구연된다면 어떤 제차에서 구연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현지조사 과정을 통해 <허웅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인숙 심방의 증언에 의하면 <귀양풀이>나 <시왕맞이> 등에서 실제로 <차사본풀이>를 하면서 막판에 이 본풀이를 구송된다고 한다.¹²⁾ <차사본풀이>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갈라지는 국면에서 강림의 혼정(넋)을 저승의 염라대왕이 가져가고 이승에서는 육신만을 가지게 됨으로써 강림은 저승의 차사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이승의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오가게 되었다가 이승의 할망이 육신을 부려서 이승과 저승의 분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둘째, 자료의 전승 분포와 관련해서 볼 때, <허웅애기본풀이>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설화나 민요의 경우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1) 3편의 현지조사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여서 <허웅애기본풀이> 자료는 총 17편이 된다. 제주도 오인숙 심방과 고순안심방의 구연을 일반 말명과 심방말명으로 해를 달리하여 거듭 채록 하였고, 일반인 김태일도 설화와 민요로 달리하여 채록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12) 2013년 1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거주하는 오인숙 심방의 증언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정을 자세하게 증언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경기대학교 김현선 교수와 고려대학교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를 통하여 오인숙 심방으로부터 이에 관해 자세히 증언 받았다.

된다. <허웅애기본풀이>의 주요한 제보자인 오인숙 심방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큰 심방굿을 한 구좌읍 하도리 동돌내의 강봉원이나 세화리와 인접한 꿩디갯마리의 김홍섭 심방 등에게서 굿법과 무가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일부 자료가 제주시 애월읍에서도 채록된 것으로 보고된다.¹³⁾ 구좌읍과 애월읍은 제주도의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주도의 남부지역에서 채록된 본풀이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허웅애기본풀이>는 제주도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북제주 일대에서 전승되는 본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나 민요 형태로의 전승은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된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셋째, 구연 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허웅애기본풀이>은 심방에 의해 말명으로 구송되는 특징을 보인다. 말명은 제주도 심방이 굿을 할 때 말미 장귀로 장단을 맞추며 서사무가를 부르는 구송 양식을 말한다. 오인숙 심방에 의하면 <허웅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 막판에 잦은 말미 장귀 장단에 맞춰 본풀이로 구송된다고 하며, 실제 말명으로 자료를 구연해 주었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는 실제 무속제의 연행현장에서 말명 가락으로 불려지는 본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오인숙 심방의 전승본에서 이러한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율격적인 어구 구성과 구비공식구의 활용이 구조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구전설화 역시 주목할 만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전승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이른 바 허웅애기라고 하는 명칭이 특정된 자료와 함께 허웅애기는 없어지고 전체적 전승의 줄거리와 내용이 이록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이를 두고 온 허웅애기가 그 아이 때문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사연이 있는 점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7편 자료의 조사 경위와 자료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1, 2, 3, 4는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서 4대째 당매인 심방일을 하고 있는 오인숙 심방으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채록한 것들이다.¹⁴⁾ 제보자에 의하면 <허웅애기

13) 진성기, 『탐라의 신화』, 제주도 민속학연구소, 1980. 이 책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가 제주도 애월읍에서 전승된 자료에 근거하여, <천지왕본풀이>나 <초공본풀이> 뒤에 구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역적으로 강을생 전승본에 입각해서 본다면, 제주도 북제주군 서부와 동부에 전승이 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4) 오인숙은 39세부터 심방일을 해왔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세화리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어른이다. 친정 할머니의 팔자가 꺾어져서 심방을 했고 친정외가로부터 물려받았다. 외할머니 증조모 고조모부터 시작하여 오인숙이 4대째 심방일을 하는 것이다. 오인숙 심방은 40년 이상 세화리 당을 메고 있는 심방으로 1926년 범띠해에 태어나 올해 88세가 되었다. 연로 하심에도 기억이 또렷하여 귀로 들은 문서를 머리에 기록하였다가 입으로 진술하였다. 2002년 3월에 김현선이 처음 채록을 하였고, 2013년 8월 김현선의 지도아래 김은희, 시지은, 김난경, 번진섭이 함께 하여 거듭 채록하였고, 본 연구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30일에 필자가 제주시 구좌



본풀이>는 <차사본풀이>할 때 들어가되, 사람이 죽었을 때 <귀양풀이>할 때 함께 구연된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오인숙 심방은 이 자료를 하도리에 살았던 강봉원¹⁵⁾ 심방한테 배웠다고 한다.

자료5, 6은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허웅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할 때 함께 불리는 것이라고 한다.¹⁶⁾ 이 자료의 제보자인 고순안은 달리 고복자로도 불리는데, 그는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 당매인 심방으로 전승계보 자체가 3대를 이어오고 있다.

자료7은 강을생 심방의 구연본이다.¹⁷⁾ <콩쥐팍쥐설화>의 유형과 복합되어있으나, 본래 이 자료가 심방의 전승본이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전승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강을생 심방은 진성기의 『남국의 무속서사시』라는 책자에서 <세경본풀이> 전승자로 이미 정평을 얻은 바 있다. 따라서 7번 자료는 이름 있는 심방이 전승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¹⁸⁾

자료8은 현용준이 1958년에 오익찬이 채록한 자료를 1996년에 간행한 것으로 일반인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현용준이 제시한 이 자료는 허웅애기라고 하는 구체적 인명 대신 ‘여인’ 또는 ‘아기엄마’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제목 역시 <죽으면 못 돌아오게 된 유래>라고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중심 서사는 여타의 자료와 일치하며, 설화의 형태로 보고되어 있다.

자료9는 제주도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온평리 학술조사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명칭이 “허운아기”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거의 허웅애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양송백이라고 하는 여성 화자이다. 내용은 거의 동일한 자료임을 알 수 있으며 예사 사람에게 전승되는 점이 확인된다.

자료10은 일반인 부의함(여, 81)이 구연한 것으로 1992년 7월 강정식이 조사한 설화이다.¹⁹⁾ 부의함이 전승한 자료는 제주도 전역의 본풀이 자료임을 확인해주면서 근

읍 세화리 전낭동 오인숙 심방 집에서 다시 채록·정리하여 본 논문에 사용했다.

15) 강봉원 심방은 달리 강봉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발음상의 문제이다. 심방은 제주도 전지역 곳곳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제주도 전지역의 49개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본풀이를 훤히 꿰고 있었다고 오인숙 심방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허내 제주도에 남아있는 큰심방들에게 본풀이 전승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6) 고순안심방은 1947년생이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가 집이다. 14세라는 어린나이부터 심방일을 했으며, 굿의 기초는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외삼촌인 강봉원심방한테 많이 배웠다고 한다. 고순안심방은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 당매 심방이기도하다. 외할아버지가 심방이었으며, 어머니 양기정심방에 이어 외가로부터 3대째 심방일을 하고 있다. 고순안심방 자료 채록은 2013년 8월 17일 김현선의 지도아래 김은희, 시지은, 김난경, 변진섭이 함께하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고순안심방 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채록한 것을 윤정기가 정리하여 본 논문에 사용했다.

1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21-623면.

18) 제주도 서북부의 심방이 구연한 본풀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19) 제주대학교 국문과교수 강정식의 지도 아래 1992년 7월 24일에 조천읍 선흘리리를 제주대 국어교육과에서 조사했다. 이 자료는 다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 제



대로까지 전승이 확실하게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에서 이야기로 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역시 특정하게 이어지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11은 종달리에 사는 김순자에 의해서 구연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목이 <애기엄마의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8월 1일에 구좌읍 종달리에서 채록되었다. 내용은 <허웅애기본풀이>와 흡사하지만 이 이야기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허웅애기라고 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다. 아기를 그리워하여 오게 된 점에서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각도에서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12는 일반인 윤추월이 구연한 것으로 현용준, 현길언에 의해 채록되고 보고된 설화이다.²⁰⁾ 윤추월 제보자는 남군의 전승자인데 두 가지 특징적 면모가 확인된다. 첫째는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많고, 둘째는 제주도의 토착적 전승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 점에 입각하여 본다면 이 본풀이 전승은 설화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남다른 전승의 결과임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자료13은 이방아가 구연한 것으로 제주시에서 1964년 8월에 임석재에 의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방아의 구연본은 이른 시기에 채록된 것으로 설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 이야기의 오랜 전승을 증거하는 결정적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전승 경로가 뚜렷하고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료14는 진성기에 의하여 설화로 1959년 초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자료는 강을생의 전승본을 개작하고 윤색한 자료이다. 온전하게 전승하는 서사의 결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되나, 1차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다.²¹⁾

자료15, 16, 17은 일반인 김태일(여, 73)이 경로당에서 구연했으며, 일반인에게서 서사민요로 채록했다는 점이 특별하다.²²⁾ 김태일은 본래 안덕면 출신인데, 현재 애월읍 고성리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어머니가 심방의 굿을 즐겨보았으며, 옛날 노래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점에서 요긴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와 검질²³⁾을 매며 소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전승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허웅애기본풀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본풀이가 일반적 전승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본풀이의 민요화, 본풀이의 설화화라고 하는 전통적

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회, 1994.

20)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현용준, 현길언 조사로 이루어졌다.

21)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자료의 원천이 불명확하다. 현대적으로 윤색한 2차 자료이다.

22)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 서영숙 교수가 2012년 8월 1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경로당에서 채록한 서사민요이다. 제보자 김태일은 검질을 매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노래형식으로 들어서 익혔다고 한다.

23) '김매기'의 제주도 방언.

관점에서 이 자료가 전승되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웅애기본풀이>의 자료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1~7은 본풀이로, 자료8~15는 설화로, 자료16~17은 서사민요의 형태로 구연되는 갈래적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무속제의에서는 말명 형식으로 구송되기도 하고, 일반일들에 의해서 이야기로 구전되기도 하며, 또한 노동의 현장에서 서사민요로 전승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비록 <허웅애기본풀이>가 설화와 민요로도 전승되지만, 본풀이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심방이 주제보자이고 명확하게 말명으로 구송하는 점이 드러났다. 오인숙, 고순안, 강을생 심방의 전승이 이를 증거 한다. 구전을 직접 확인한 사례로 오인숙과 고순안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를 본풀이 갈래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이 본풀이는 이야기와 노래로도 널리 전승된다. 본풀이 전승이 우선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야기와 노래는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본풀이의 세속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허웅애기본풀이>가 무속적 제의 속에서 <차사본풀이>와 연계해서 구연된다는 점에서 이 본풀이가 일반신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속제의에서의 연행 양상에 대한 실제적 검토 없이 이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료가 지닌 일반신본풀이적 특징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다섯째, 분포지역에 있어 오인숙, 고순안, 김태일의 경우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의 본풀이로서의 전승은 주로 제주도 북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서사민요나 설화로의 전승은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2. 자료별 서사단락 정리

<허웅애기본풀이> 개별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서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별 서사단락을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각 자료의 서사 내용을 서사단락으로 정리하고,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자료1²⁴⁾

24) <허웅애기본풀이>, 오인숙심방(여1927),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013. 11. 30 윤정귀 조사. 본 논문에서 유일하게 심방 말명으로 구연한 특별한 자료이다.

- ① 옛날에 허궁애기가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에 갔다.
- ② 허궁애기는 염라대왕 앞에서 울면서 부모조상 없는 어린 딸 삼형제 두고 저승을 살 수가 없다고 한다.
- ③ 염라대왕은 칠판에 침을 뱉어놓고 밤중 야삼경에 인간에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침이 마르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느냐고 한다.
- ④ 허궁애기는 밤마다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저승으로 간다.
- ⑤ 동네의 청태산 마구할마님이 이 아이들을 보고 부모도 없는데 밥은 누가 차려주며, 어떻게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한지를 묻는다.
- ⑥ 아이들은 밤중 삼경이 되면 저승에서 어머니가 와서 모두 해주고 다시 저승으로 간다고 말한다.
- ⑦ 오늘밤에도 어머니가 오느냐고 묻자 온다고 하자 엄마가 오면 알려 달라고 한다.
- ⑧ 그날 밤 어머니가 오자 아이들은 청태산 마구할마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온다.
- ⑨ 할머니는 허궁애기가 저승에 가는 것을 말리며 안고팡의 독 안에 놓고 뚜껑을 덮는다.
- ⑩ 저승에서는 칠판에 침이 말라도 허궁애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강림차사를 보내 잡아오게 한다.
- ⑪ 강림이가 허궁애기를 데리러오니 찾을 수가 없었다.
- ⑫ 강림이는 지붕 상마루에 올라서 안고팡의 독 안에 있는 허궁애기를 발견했지만, 몸체를 데려갈 수 없어서 혼만 빼어 저승으로 데려간다.
- ⑬ 그때부터 허궁애기가 다시는 인간에 돌아오지 못했다.
- ⑭ 그전에는 젊은 사람이 죽으면 밤에는 인간에 돌아와서 밤을 살고 낮에는 저승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가면 저승에서 영원히 이승에 못 오는 법이 마련되었다.

이 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에 간 허궁애기²⁵⁾가 강한 모성애로 저승왕의 인정을 이끌어 내는 내용이다(①~④). 이러한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염라대왕이 실상은 인정이 넘치는 너그러운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청태산 마구할마님에 의해 허궁애기가 저승왕과의 약속파기가 내용이다(⑤~⑨). 여기에서 청태산 마구할마님은 허궁애기와 그 아이들이 밤에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허궁애기가 약속을 파기하고 저승으

25) 자료마다 허궁애기를 허궁애기, 허궁아기 등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궁애기’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다.



로 돌아오지 않자 염라대왕이 저승차사인 강림이를 보내 허웅애기를 데려오는 내용이 다(⑩~⑫). 네 번째는 그로부터 허웅애기가 다시는 이승에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이승과 저승의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이다(⑬, ⑭).

이 자료는 서사전개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른 자료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허웅애기를 돕는 할멈의 존재가 다른 각편에서는 동네 할망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태산 마구할마님’이라고 한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허웅애기를 돕는 할멈의 존재를 막연히 동네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아니라 특별한 신격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허웅애기를 저승으로 잡혀가게 하지 않기 위해 독 안에 숨겨 두었다가 저승차사에 의해 몸은 남겨지고 혼만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에서는 용관장례(甕棺葬禮)적 한 양상이 확인된다 하겠다.

자료2²⁶⁾

- ① 허웅애기는 열 다섯 이전의 딸 삼형제를 두고 죽었다.
- ② 이승에 두고 온 딸 삼형제 생각에 울면서 힘들어 한다.
- ③ 염라대왕이 이를 알고 칠판에 침을 뱉어서 그 침 마르기전에 이승살림을 하고 저승에 오도록 허용한다.
- ④ 밤마다 이승에 와서 아이들과 살림을 돌보고 저승으로 간다.
- ⑤ 부모가 없는 집 아이들의 깨끗한 차림새를 보고 동네 할망이 이상하게 여긴다.
- ⑥ 아이들은 밤중에 엄마가 와서 다 해주고 간다고 할망에게 말한다.
- ⑦ 오늘밤도 엄마가 오면 다시는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숨겨 주겠다는 할망의 말에 아이들은 동의 한다.
- ⑧ 밤에 엄마가 오자 아이들은 할망에게 말한다.
- ⑨ 할망은 와서 다시는 저승에 가지 말라며 안고팡의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 ⑩ 저승에서는 칠판에 침이 말라도 돌아오지 않는 허웅애기를 차사가 데리러 온다.
- ⑪ 차사는 뚜껑이 덮여있는 항아리 속의 몸체를 가져 갈 수가 없어 혼만 빼서 갔다.
- ⑫ 그 때 부터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오는 법이 생겼다.
- ⑬ 그전에는 젊은 사람이 죽으면 밤에는 이승에 와서 집안을 돌볼 수가 있었다.

이 자료는 1번 자료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전반적인 서사전개가 자료1과 일치한다. 다만, 1번 자료는 허웅애기가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을 갔다고 했는데, 2번 자료

26) <허웅애기본풀이>, 오인숙심방(여1927),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013. 11. 30, 윤정귀 조사.

에서는 15세 이전의 딸 삼 형제를 두고 죽었다고 했다. 허웅애기를 돕는 할멈의 존재가 1번 자료의 ‘청태산마구할마님’이라고 한 것과 달리 동네 할망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점만 제외하면 이 자료는 1번 자료와 동일하다.

자료3²⁷⁾

- ① 허웅애기가 딸 형제 두고 32살에 죽었다.
- ② 염라대왕한테 일가친척 없는 어린 자식을 두고 저승에서 살 수 없다고 울면서 사정했다.
- ③ 칠판에 침을 뺏어 놓고 그침 마르기 전에 밤에 이승에 가서 애기들 치다꺼리 해주고 오라고 했다.
- ④ 며칠째 이승을 드나들었다.
- ⑤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동네 할망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 ⑥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가 밤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 ⑦ 엄마가 오면 다시 못 가게 숨겨 준다는 말에 아이들은 엄마가 왔다고 말한다.
- ⑧ 할망은 허웅애기를 고팡의 향아리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 ⑨ 저승에서는 뺏어놓은 침이 마르고 날이 밝아도 오지 않은 허웅애기를 찾으러 강림이를 보낸다.
- ⑩ 강림이는 지붕에 올라가 고팡의 향아리 속에 앉아 있는 허웅애기의 혼만 빼서 간다.
- ⑪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밤에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갔는데 이제 부터는 한번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법이 생겼다.

이 자료는 1, 2번 자료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전반적인 서사전개가 자료1, 2와 일치한다. 다만, 1번 자료는 허웅애기가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을 갔다고 했고, 2번 자료에서는 15세 이전의 딸 삼 형제를 두고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허웅애기가 딸 형제를 두고 32세에 죽었다고 함으로써 젊은 나이라는 점을 부각 하는 듯하다. 허웅애기를 돕는 할멈의 존재가 1번 자료의 ‘청태산마구할마님’이라고 한 것과 달리 자료2와 동일하게 동네 할망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4²⁸⁾

27) <허웅애기본풀이>, 오인숙심방(여1927),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013. 8. 26. 김현선 조사.

28) <허웅애기본풀이>, 오인숙심방(여1927),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002. 3. 26. 김현선 조사. 강권용 논문(2002).

- ① 옛날에 허궁애기가 서른두 살에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에 갔다.
- ② 허궁애기가 저승에서 비새같이 우니 염라대왕이 왜 우느냐고 묻는다.
- ③ 이승에 어린 딸 삼형제 두고 저승에 오니 살 수가 없다고 한다.
- ④ 염라대왕은 칠판에 침을 발라놓고 야삼경에 인간에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침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한다.
- ⑤ 허궁애기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저승으로 간다.
- ⑥ 동네의 청태산 마구할마님이 이 아이들을 보고 부모도 없는데 밥은 누가 차려주며, 어떻게 머리도 깨끗한지를 묻는다.
- ⑦ 아이들은 삼경이 되면 저승에서 어머니가 와서 차려주고 다시 저승으로 간다고 말한다.
- ⑧ 마구할마님은 오늘밤에 어머니가 오면 자신이 숨겨서 저승에 못 가도록 할테니 알려 달라고 한다.
- ⑨ 그날 밤 어머니가 오자 아이들은 마구할마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데리고 온다.
- ⑩ 할머니는 허궁애기가 저승에 가는 것을 말리며 그녀를 고방의 장독 안에 놓고 뚜껑을 덮는다.
- ⑪ 저승에서는 칠판에 침이 말라도 허궁애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강림이를 보내 잡아 오게 한다.
- ⑫ 허궁애기를 데리러 온 강림이는 지붕 상마루에 올라서 고방 장독 안에 숨어있는 허궁애기를 발견하고 혼만 빼어 저승으로 데려간다.
- ⑬ 그때부터 허궁애기가 다시는 인간에 돌아오지 못했다.
- ⑭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법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한번 가면 저승에서 이승에 못 오는 법이 마련되었다.

이 자료는 1, 2, 3자료와 동일인이 제보한 자료로 서사전개는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1번 자료와 일치하는데, 2, 3자료는 동에 할망이라고 한 반면, 1, 4자료는 ‘청태산 마구할마님’이라고 한 점이 동일하다. 이러한 허궁애기를 돕는 할망의 존재를 막연히 동네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아니라 특별한 신격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1번 자료는 허궁애기가 딸 삼형제를 두고 저승을 갔다고 했고, 2번 자료에서는 15세 이전의 딸 삼 형제를 두고 죽었다고 했다. 자료3은 허궁애기가 딸 형제를 두고 32세에 죽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딸 삼형제를 두고 32세에 죽었다고 한다. 이는 어린 자식들을 많이 두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5²⁹⁾

- ① 인간의 생명이 70은 무리요, 80이 정명이라는 적배지(籍牌紙)를 강림이가 이승으로 가지고 오다가 까마귀를 만났다.
- ② 까마귀가 강림이 대신 적배지를 날개에 붙여서 간다.
- ③ 까마귀는 말(馬)을 도살하는 것을 보고 피라도 얻어먹으려 쉬다가 적배지를 놓치고 만다.
- ④ 구렁이가 물고 굴속으로 들어간다.
- ⑤ 적배지의 내용을 모르는 까마귀로 인하여 남녀노소 다 잡아가게 되었다.
- ⑥ 허웅애기도 잡혀가자 젓먹이 아이며 아이들 머리손질을 걱정한다.
- ⑦ 바닥에 침 뱉어 놓고 그 침이 마르기 전에 와야 한다고 한다.
- ⑧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저승 갈 시간을 잊어버린다.
- ⑨ 이승사람은 이승법을 마련하고 죽으면 저승법을 마련해서 이승과 저승의 곱(경계)을 갈라지게 되었다.
- ⑩ 허웅애기로 인하여 왕래할 수 있었던 이승과 저승이 단절 되었다.
- ⑪ 저승에 하루가 이승에서는 일 년이고 사람이 죽으면 대상 소상이 저승 하루가 이승 일 년이고 저승 삼일이 이승 삼년이라 장례에서 일 년 상이 소상 삼년상이 대상이 된다.

이 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승차사 강림이가 인간생명의 정한(定限)을 가지고 이승에 오는 것이다. 저승에서 요구하는 인간생명의 정한이 팔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까마귀의 실수로 죽음의 정한이 사라지고 만다. 둘째,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허웅애기가 저승에 잡혀가서 눈물의 호소로 저승의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저승에도 이승과 같이 인정이 통용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셋째, 허웅애기의 약속파기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이 경계 짓고 단절이 있게 된다. 넷째, 이야기 말미에 저승의 하루는 이승의 일 년이며, 사람이 죽어서 1년 상(喪)을 치르는 것은 소상에 해당하고, 저승에서 3일은 이승에서는 3년으로 3년 상(喪)을 치르는 것은 대상에 해당한다는 장례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6³⁰⁾

- ① 인간의 생명이 70은 무리요, 80이 정명(定命)이라는 적배지를 강림이가 이승으로

29) <허웅애기>, 고순안 심방(여)구연, 제주도, 2013. 8. 27. 김현선 조사.

30) <허웅애기>, 고순안 심방(여)구연, 제주도, 강소전 채록.

가지고 오다가 까마귀를 만났다.

- ② 까마귀가 강림이 대신 적배지를 날개에 붙여서 간다.
- ③ 까마귀는 말 잡는 것을 보고 피라도 얻어먹으려 쉬다가 적배지를 놓치고 만다.
- ④ 적배지를 구렁이가 물고 굴속으로 들어간다.
- ⑤ 적배지의 내용을 모르는 까마귀로 인하여 남녀노소 다 잡아가게 되었다.
- ⑥ 허웅애기도 저승으로 잡혀가자 젓먹이 아이며 아이들 머리손질을 걱정한다.
- ⑦ 천정판에 침 뱉어 놓고 그 침이 마르기 전에 와야 한다고 한다.
- ⑧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저승 갈 시간을 잊어버린다.
- ⑨ 이승사람은 이승법을 마련하고 죽으면 저승법을 마련해서 이승과 저승의 곱을 갈랐다.
- ⑩ 허웅애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왕래할 수 있었던 이승과 저승이 곱을 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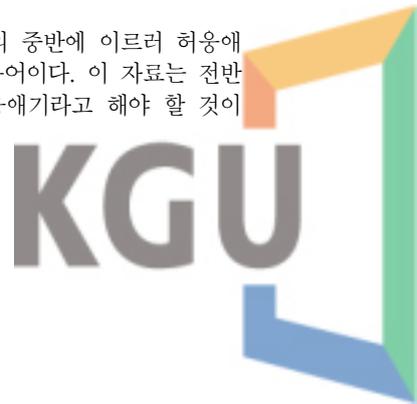
이 자료는 자료5의 제보자와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도 곳의 현장에서 채록한 자료여서 후일담의 성격은 드러나 있지 않다. 후일담을 제외하면 다른 특징은 자료5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승차사 강림이가 인간생명의 정한(定限)을 가지고 이승에 오는 것이다. 저승에서 요구하는 인간생명의 정한이 팔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까마귀의 실수로 죽음의 정한이 사라지고 만다. 둘째,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허웅애기가 저승에 잡혀가서 눈물의 호소로 저승의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저승에도 이승과 같이 인정이 통용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셋째, 허웅애기의 약속파기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이 경계 짓고 단절이 있게 된다.

자료7³¹⁾

- ① 콩대기³²⁾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저승 염여왕(염라대왕)이 데려갔다.
- ② 콩대기는 저승에 간 이후 이승에 있는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 생각에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한다.
- ③ 저승에서는 콩대기에게 낮이면 저승에 들어오고 밤이면 인간에 나가서 부모공경하고 자식들 보살피라고 한다.

31) <허웅애기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21-623면.

32) 제보자는 이야기의 서두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콩대기라고 하다가 이야기의 중반에 이르러 허웅애기라고 고쳐 부르고 있다. 콩대기는 <콩귀팔귀> 이야기의 콩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허웅애기본풀이>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주인공의 이름을 허웅애기라고 해야 할 것이며, 구연자의 착각에 의해 주인공 명칭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콩대기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잘 컸다.
- ⑤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죽어서 없는 아이들이 용모가 깔끔한 것을 궁금해 한다.
- ⑥ 할망³³⁾은 아이들의 손목에 실을 묶고 어멍(어머니)이 오면 실을 당겨 알리도록 한다.
- ⑦ 아이들은 엄마가 오자 변소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할망과 연결된 실을 잡아당긴다.
- ⑧ 할망이 와서 허웅애기가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한편 문을 잠근다.
- ⑨ 할망은 방, 마루, 부엌을 쓸어 그 쓰레기를 불을 살라 허웅애기의 흔적을 지운다.
- ⑩ 할망은 바깥으로 문을 잠그고 차사들이 오는 길목에 가시를 쌓는다.
- ⑪ 염여왕은 허웅애기가 여러 날 저승에 오지 않자 차사를 보내 잡아오게 한다.
- ⑫ 차사가 와서 허웅애기를 찾자 할망은 허웅애기가 저승에 가지 않으려고 울레에 가시를 쌓고 문을 잠갔다고 하면서 지붕 상마루로 올라가 데려가라고 알려준다.
- ⑬ 차사 지붕 상마루로 올라가 허웅애기의 혼을 뽑자 허웅애기는 죽어 버린다.
- ⑮ 허웅애기는 더이상 이승에 오지 못하고 그 법으로 죽어서 저승에 간 인간은 이승에 오지 못하는 법이 생겼다.
- ⑯ 허웅애기의 일로 인해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이 자료 역시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와 동일하며 모두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저승에 간 주인공이 이승의 아이들과 가족을 걱정하자 저승에서 이승을 다녀오도록 배려하는 내용(①~③), 둘째, 이승을 방문해서 가족을 보살피던 허웅애기가 할망에 의해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저승에 가지 않는 내용(④~⑩), 셋째, 저승 차사에 의해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불가능해졌다는 내용(⑪~⑮), 넷째, 후일담(⑯) 이상 네 단계의 구성이 그것이다.

여타의 자료들에서 저승에 간 허웅애기가 아이들 걱정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녀의 모성애가 강조되어 있다면, 이 자료에서는 허웅애기가 늙은 (시)부모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러나 결말에서 보이는 바처럼 시어머니는 허웅애기가 영원히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즉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허웅애기가 이승을 방문하자 그녀가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숨겼다가는 차사가 나타나자 오히려 며느리 스스로 저승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모함하고 그녀를 잡아갈 수 있는 방편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자료 7번은 다른 자료와 달리 고부갈등이 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

33) 이 자료에서 할망은 달리 부분적으로는 씨어멍(시어머니)이라고도 되어 있다. 할망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단락 ⑯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언급 등을 통해 할망은 곧 허웅애기의 시어머니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자료8³⁴⁾

- ① 옛날에 명주를 짜면서 살던 아기엄마가 저승에 가서도 명주 짜는 일을 했다.
- ② 이승에서는 명주를 곱게 짰는데 저승에서는 명주에 검은 점이 섞여있어 곱지 않았다.
- ③ 염라대왕이 이상히 여겨 부하를 시켜 명주 짜는 것을 숨어서 살피라고 했다.
- ④ 여자는 명주를 짜면서 흘린 눈물이 명주에 묻어 더러워졌다.
- ⑤ 부하의 보고를 들은 염라대왕은 여인을 불러 우는 이유를 물었다.
- ⑥ 여자는 이승에 두고 온 남편과 어린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 ⑦ 염라대왕은 여인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이승을 왕래시킨다.
- ⑧ 자시(子時)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잠든 이 밤과 저 밤사이에 이승에 갔다가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올 것을 꼭 지키라고 했다.
- ⑨ 여인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갔다가 돌아왔다.
- ⑩ 이 후부터 여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 명주가 고와졌다.
- ⑪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다시는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며느리의 신발을 숨겼다.
- ⑫ 저승에 돌아갈 시간에 신발이 없어 당황하는 며느리와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시어머니가 옥신각신 하다 보니 약속된 시간이 넘어 버렸다.
- 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아리 속에 숨긴 후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 ⑭ 날이 밝아도 여인이 돌아오지 않자 염라대왕은 차사를 시켜 여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 ⑮ 차사는 이승으로 와서 여인의 혼을 빼서 가버렸다.
- ⑯ 여인은 향아리 속에서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 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 ⑱ 염라대왕은 젊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와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것으로 여기고 까마귀를 시켜 늙은이부터 차례로 저승으로 오라고 전갈을 띄운다.
- ⑲ 까마귀는 전갈 편지를 날개에 넣고 이승으로 날아오다가 죽은 말고기를 발견해 뜯어먹는 와중에 편지를 잃어버렸다.
- ⑳ 까마귀는 편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이승에 와서 ‘젊은이도 죽어라 까옥, 늙은이도 죽어라 까옥, 어린아이도 죽어라 까옥.’하고 울었다.

34) <죽으면 못 돌아오게 된 유래>, 현용준,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 ㉑ 까마귀의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것에는 젊고 늙은 차례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 ㉒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가 혼부터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11번 자료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먼저 허웅애기가 오갈 수 있었던 이승과 저승의 갈라짐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시어머니는 허웅애기의 신발을 숨겨서 허웅애기가 저승으로의 귀환해야할 시간을 지체시킨다. 이처럼 이승을 방문한 허웅애기의 저승 귀환을 막는 인물이 시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는 자료7, 8에서도 확인되므로³⁵⁾ 다른 자료의 이웃 할망과 비교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자료는 후반부에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잡혀간 이후의 후일담이 길게 덧붙여져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허웅애기의 사건을 겪고 나서 염라대왕은 젊은 사람을 너무 일찍 저승에 데려오지 말아야겠다며 까마귀를 시켜 늙은이부터 차례로 저승에 오라는 전갈을 이승에 띄운다. 그런데 까마귀는 편지를 가지고 이승에 오는 과정에서 말고기를 먹다가 편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며 전갈을 전하다가 결국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가 모두 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서사의 일부이다.

또한 자료 1~4, 9의 경우에서처럼 이 자료에서도 허웅애기가 독(항아리) 안에서 죽었다고 해서 웅관장례적 특징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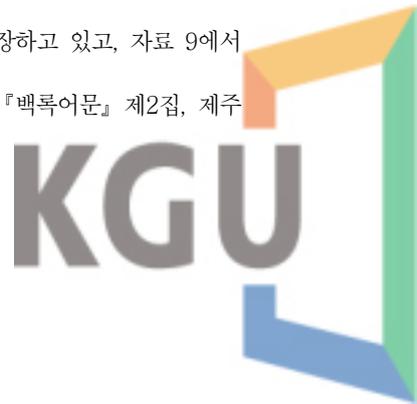
자료9³⁶⁾

- ① 허웅애기는 밤에 이승에 가고 낮엔 전승에 사는 인물로 옛말이 있다.
- ② 허웅애기는 아이를 두고 차사가 와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 ③ 이승에 와서 보니 서방과 아이들이 험하게 살고 있었다.
- ④ 이 모습 때문에 서럽게 생각하여 그냥 구들 속에서 숨게 되었다.
- ⑤ 저승 차사들이 와서 혼을 빼서 가고 몸만 남게 되었다.

이 자료는 특정한 자료는 아니다. 다만 일반 사람이 허웅애기라고 이를 명명하고 전승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허웅애기가 직접 서방와 아이들이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이 때문에 저승에 가지 않고 구들 속에서 숨은 점이 특정한

35) 그밖에 자료 1, 4는 청태산 마구할미이고, 2, 3, 7, 12에서는 이웃할망이 등장하고 있고, 자료 9에서는 가족들이 허웅애기의 저승행을 막는다.

36) 1986년 7월 29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온평리 양송백구연, <허웅애기>,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87, 424면.



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는 각별한 변이가 일어났으며 여성이 자발적으로 숨어서 결국은 혼이 없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살림 습씨가 특정하다고 하거나 그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자료10³⁷⁾

- ① 허웅애기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는데 저승에서 데려간다.
- ② 허웅애기는 저승에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라고 한다.
- ③ 이승에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어놓고 온 허웅애기는 부모와 애기들이 보고 싶어서 인간 세상에 가겠다고 한다.
- ④ 저승에서는 허웅애기에게 손바닥에 침을 뺏어 침이 다 마르기전에 이승에 가서 부모와 자식을 보고 오라고 한다.
- ⑤ 허웅애기가 이승에 오니 어머니, 아이들, 신랑이 가지 말라고 말린다.
- ⑥ 허웅애기는 저승으로 돌아 갈 시간이 되자 독 속에 숨는다.
- ⑦ 차사가 와서 독 속에 있는 허웅애기를 찾아내자 남편과 아이들이 못 간다고 막아선다.
- ⑧ 차사는 가족들에게 허웅애기의 혼과 몸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
- ⑨ 가족들은 이승사람이니 몸체를 필요하다고 하자 차사는 허웅애기의 혼을 데리고 간다.
- ⑩ 허웅 애기는 독 속에서 죽고 말았다.
- ⑪ 허웅애기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이 곱을 갈라 사람이 귀신과 생인(生人)구분해서 생사람이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생사람을 본다.
- ⑫ 옛날에는 돌, 나무도 다 말을 했는데 허웅애기로 인하여 모두 말모르기³⁸⁾가 되었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자료10, 11과 서사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나 자료10과 11에서의 허웅애기가 직조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설정된 것에 반해, 이 자료에서의 허웅애기는 예쁘고 기예가 출중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할망의 존재가 나오지 않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만 할망 대신 가족들이 등장해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④⑧⑨번 단락에서도 이 자료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④에

37) <허웅애기>, 『백록어문』 제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94.

38) 병어리

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녀오는 시간을 손바닥에 침을 뱉어 그 침이 마르기 전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침이 마르기 전의 시간이란 저승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나 이승의 시간 범으로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이동해서 가족과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단락 ⑧에서는 차사가 가족들에게 허웅애기의 몸과 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묻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족들은 몸을 선택하고 저승차사는 혼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는 결국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남아있되 혼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락 ⑨에서 허웅애기는 독 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1과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다.

한편, ⑫번 단락은 본서사가 종결된 이후의 후일담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돌과 나무 역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허웅애기로 인하여 돌과 나무가 병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료9 역시 자료10, 11번에서처럼 허웅애기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나뉘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이외의 존재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거듭 밝혀져 있다.

자료11³⁹⁾

- ① 아기를 두고 간 여성이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 ② 아기에게 밤중만 와서 젖을 물리고 먹이게 되었다.
- ③ 동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성의 신발을 숨기게 되었다.
- ④ 여성이 신발을 찾다가 저승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 ⑤ 그 때문에 여성은 다시 저승에 이승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서사적으로도 불완전하고 허웅애기라고 특정되지 않았다. 내용 전개가 대부분 위에서 본 자료로 일치하고 특히 설화가 소멸되거나 극심하게 변이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자료이다. 허웅애기의 근본적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자료라고 판별되고, 신발을 감추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저승에 갈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저승 차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혼만이 오가다가 없어지게 된 점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전설화의 소멸이라고 하는 점에 특징적이다.

자료12⁴⁰⁾

39) 1999년 8월 1일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중달이 김순자 구연 <허웅애기>, 『백록어문』 제16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2000.2.

- ① 옛날에 사람이 몇 사람만 있을 때 하늘에는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서 사람들이 타 죽고 일어 죽었다.
- ② 그 시절에 허웅애기가 결혼을 해서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자식이 아직 어렸을 때 저승에서 데려갔다.
- ③ 이승에 있을 때 무명 짜는 일을 잘 하던 허웅애기는 저승에 가서도 무명을 짜다.
- ④ 허웅애기는 이승에 두고 온 어린 자식과 남편 생각에 울면서 무명을 짜다.
- ⑤ 허웅애기를 위해 저승의 열시왕은 낮에는 저승에 있고, 밤에는 이승에 있도록 하는 법령을 내린다.
- ⑥ 허웅애기는 열시왕의 지시대로 낮에는 저승에서 베를 짜고 밤에는 이승에 내려와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 ⑦ 이웃집 할망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용모가 깔끔한 것을 궁금해 한다.
- ⑧ 이웃집 할망은 아이들로부터 밤마다 허웅애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허웅애기가 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 ⑨ 아이들은 허웅애기가 온 사실을 할망에게 알리려 했으나 허웅애기는 자신의 방문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의 외출을 금지시킨다.
- ⑩ 할망은 실로 자신과 아이들의 발을 묶어 허웅애기가 오면 그 실을 당겨 알려달라고 한다.
- ⑪ 아이들은 밤이 되어 어머니가 방문하자 실을 당겨 할망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 ⑫ 할망은 오면서 한탈나무(들딸기 나무)를 베어다가 올레부터 마당까지 쌓아두고 허웅애기가 저승에 못 가도록 말리면서 시간을 지체시킨다.
- ⑬ 저승의 열시왕은 허웅애기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을 괘씸히 여기고 차사를 보내 잡아오게 한다.
- ⑭ 차사는 올레와 마당에 가시가 쌓여 있고 문이 잠겨 있자 지붕위로 올라서 허웅애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저승으로 데려가니 이로써 허웅애기는 영원히 죽게 되었다.
- ⑮ 왕래할 수 있었던 이승과 저승은 그때부터 굽이 갈라지게 되고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 ⑯ 그때는 귀신이 부르면 생인이 대답하고 생인이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여 귀신과 생인의 구분이 없었는데, 대별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트리고 귀신들이 말을 못하게 했다.
- ⑰ 이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초혼(招魂)⁴¹⁾하며, 머리털, 손톱발톱 잘라 작은 주머니에

40) <허웅애기>, 『한국구비문학대계』9-3(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1) 민속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

담고 불린 쌀 일곱 방울(알갱이)을 죽은 사람 입속에 넣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승에 가서 이승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이다.

이 자료는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1~5와 일치한다. 다만 서두에 일월조정 화소가 나타나는 것은 자료13과 공통되는 내용이다. 또한 저승차사가 허웅애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 새롭다.

그러나 이 자료의 특별함은 본서사가 종결되고 후일담처럼 부기된 ⑩⑪ 단락에서 확인된다. 이 부분에서는 대별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면서 지금과 같이 해와 달이 하나씩 남게 된 것과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별왕이 해와 달의 개수를 조정하는 내용은 <천지왕본풀이>의 중요한 화소이다. 그런데 일월조정을 하는 사건이 인간과 귀신이 서로 말이 달라 소통할 수 없었다는 사건과 함께 엮여져 있다는 점에서 <허웅애기본풀이>의 시원(始原)이 매우 심원(深遠)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이 자료의 말미에는 사람이 죽으면 초혼을 하고 입속에 쌀을 넣게 된 장례 풍습의 기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장례 풍습이 생겨난 이유를 이승 사람이 저승에 가서 이승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처럼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인간과 귀신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자료 8번에서는 자료 12, 13번과 동일하게 허웅애기가 저승에 가서도 무명을 잘 짰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승에서 베를 짜던 여인이 저승에서도 베를 짰다는 것은 저승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옷감이 필요한 세계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인 저승도 이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오래된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13⁴²⁾

- ① 옛날에 하늘에는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서 사람들이 타 죽고 얼어 죽었다.
- ② 허웅애기는 15세에 결혼을 했다.
- ③ 여러 딸을 낳아 키우는데 저승으로 불려갔다.
- ④ 이승에 있을 때 미녕(무명)을 잘 짜던 허웅애기는 저승에 가서도 미녕을 짰다.

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는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復)’이라고 세 번 부른다.

42) 제주도 이방아 구연 <허웅애기>, 『(임석재전집9)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제주도편), 평민사, 1992, 283~285면.



- ⑤ 미녕을 짜면서 이승에 두고 온 남편과 아이들 생각에 우는 허웅애기를 본 열시왕은 밤에는 이승에 가고 낮에는 저승에 오라고 한다.
- ⑥ 곱게 머리단장을 한 아이들을 본 동네할망은 허웅애기가 밤마다 온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된다.
- ⑦ 동네할망은 아이들에게 허웅애기가 오면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하지만, 허웅애기가 아이들이 동네할망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다.
- ⑧ 동네할망은 실로 아이들과 자신의 다리에 묶고 허웅애기가 오면 실을 당겨 알려달라고 한다.
- ⑨ 밤이 되어 어멍(어머니)이 오니 아이들은 실을 당겨 그 사실을 동네할망에게 알린다.
- ⑩ 동네할망은 허웅애기와 여러 말을 하여 저승으로 갈 시간을 지체 시킨다.
- ⑪ 열시왕은 허웅애기가 저승으로의 귀환이 늦어지자 허웅애기가 저승의 비밀을 누설할 것을 염려해 귀신의 말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법을 마련했다.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1~6과 일치한다. 다만 세부적인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서두를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 사람들이 타 죽고 얼어 죽었다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해와 달이 두 개인 상황을 묘사하고 누군가가 해와 달을 하나씩 제거하는 서사를 달리 ‘일월조정(日月調定)’ 화소라고 한다. 즉, 태초의 세상이 만들어지던 상황을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특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에 ‘일월조정’ 화소가 보인다는 점은 이 본풀이가 천지창조를 다루는 창세신화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자료 12, 13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가 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웅애기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이 자료는 이승과 저승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다만 허웅애기가 자신의 저승으로의 귀환을 막는 동네할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승으로 지각 귀환(遲刻歸還)을 하고, 이로 인해 열시왕이 저승이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해 귀신과 사람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했다고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승의 산 사람과 저승의 죽은 사람이 서로 왕래, 또는 소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자료14⁴³⁾



- ① 열세 살 된 남편과 어린 아기들을 둔 허웅애기의 살림솜씨가 저승까지 소문이 났다.
- ② 저승왕은 저승 살림이 어려워지자 차사들을 보내 허웅애기를 데려오게 한다.
- ③ 허웅애기는 차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등에게 각각 술, 말, 황소로 인정을 걸어 자신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 ④ 허웅애기가 언니에게 인정을 걸어달라고 하자 언니는 한 벌뿐인 열 두 폭 치마를 내어준다.
- ⑤ 허웅애기는 열두 폭 치마와 밥을 지어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곁들여 어린 낭군과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사정한다.
- ⑥ 저승차사는 저승 닭이 울면 이승오고 이승 닭이 울면 저승에 가는 방식으로 낭군과 아이들을 보살피라고 한다.
- ⑦ 허웅 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살림을 한다.
- ⑧ 동네사람들은 허웅애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깨끗한 옷차림과 넉넉한 살림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다.
- ⑨ 이웃집 할망은 아이들을 통하여 허웅애기가 밤마다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된다.
- ⑩ 아이들은 할망이 엄마를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에 실꾸러미를 이용해 할망에게 엄마의 방문 사실을 알려준다.
- ⑪ 할망은 허웅애기를 찾아와 아이들이 불쌍하니 다시는 저승에 가지 말라고 하며 책갑 속에 숨기고 대문을 잠근다.
- ⑫ 허웅애기가 돌아오지 않자 저승왕은 차사를 보내 허웅애기를 잡아오게 한다.
- ⑬ 차사는 지붕위의 용마루를 도끼로 찍어 구멍을 내 허웅애기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개를 뽑은 후 허웅애기 혼은 자신이 가질 것이니 육신은 당신네가 차지하라며 가 버린다.
- ⑭ 할머니는 허웅애기가 죽지 않았으려니 생각 했지만 허웅애기는 이미 죽어 있었다.
- ⑮ 할머니가 허웅 애기를 숨기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어서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반씩 살았을 것이지만 이제는 한 번 죽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자료 1~4, 7, 10, 12, 13 과 유사하다. 다만 서두에서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게 된 내용(①~⑥)이 매우 확장되어 있는 점이 특별하다. 허웅애기는 어린 남편, 어린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살림 솜씨가 뛰어나

43) 서귀포 이오생 구연, <허웅애기>, 진성기, 『남국의 전설』, 박문출판사, 1959, 78-85면.

그 소문이 저승까지 닿았다고 했다. 당시 저승의 살림이 몹시 어려워지자 저승왕은 저승차사를 보내 허웅애기를 데려다 살림을 맡기기로 한다. 이 때 허웅애기는 잡혀가지 않으려고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걸어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부탁하지만 이들은 모두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허웅애기를 불쌍히 여긴 언니가 열두 폭 치마를 내어주고 허웅애기를 이 치마로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걸어 밤이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웅애기의 부탁을 거절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가족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 온 허웅애기의 목숨보다 술, 말, 황소와 같은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허웅애기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여겨진다. 이는 곧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다. 또한 여타의 자료들에서는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잡혀간 이후 저승왕의 동정과 배려로 이승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허웅애기가 직접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걸고 협상을 벌여 이승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는 점이 특별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자료들은 주인공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부터 전개되는데 반해 이 자료는 허웅애기가 저승에 잡혀가는 원인부터 제시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료15⁴⁴⁾

- ① 아이가 셋인 허웅애기는 젊고 집안 살림을 잘한다.
- ② 차사가 허웅애기를 잡으러 온다.
- ③ 허웅애기는 어머니한테 소나 말로 인정을 걸어 달라고 한다.
- ④ 소도 말도 없고, 쇠뿔도 각각이여 가친도 먹먹이니 딸자식 없는 셈 친다고 한다.
- ⑤ 아버지한테 소나 말로 인정을 걸어 달라고 하나 거절당한다.
- ⑥ 언니 내어 준 열두 폭 치마 인정을 걸고 열 두문을 열고 저승에 간다.
- ⑦ 허웅애기가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우는 것을 보고 저승차사는 인정을 베풀다.
- ⑧ 저승차사는 허웅애기에게 뺏은 침이 마르기 전에 이승에 다녀오라고 한다.
- ⑨ 허웅애기의 보살핌으로 아이들의 입성과 용모가 단정해지자 동네 할망이 궁금해 한다
- ⑩ 동네 할망은 아이들을 통해 허웅애기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다.
- ⑪ 할망은 엄마가 오면 다시는 저승에 못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을 잠그라고 한다.

44) 김태일 구연(여, 73), <허웅애기>, 김현선 교수 조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경로당 채록, 2012년 8월 21일.

- ⑫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못 가게 말리므로 허웅애기가 저승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
- ⑬ 강림차사가 찾아와 지붕으로 올라가서 허웅애기의 머리채를 잡아간다.
- ⑭ 그 다음부터 허웅애기는 다시는 이승에 올 수 없게 되었다.

이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린아이가 딸린 허웅애기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도 이승의 부모님은 몰인정하게 외면한다. ③~⑤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이다. 둘째, 저승차사의 따뜻한 인정으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셋째, 저승차사와의 약속 파기로 다시는 이승 출입을 하지 못했다.

자료16⁴⁵⁾

- ① 살림을 잘하는 허웅애기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를 발견한다.
- ② 어머니한테 가서 소나 말로 인정을 걸어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한다.
- ③ 아버지한테 소나 말로 인정을 걸어 달라고 하나 거절당한다.
- ④ 소도 말도 없고, 쇠뿔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니 딸자식 없는셈 친다고 한다.
- ⑤ 언니 머리에 이 한 마리 잡아주고 12폭 치마를 얻어 인정을 건다.
- ⑥ 저승에 간 허웅애기는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운다.
- ⑦ 차사는 돌판에 침을 뱉으면서 이승에 다녀오라고 한다.
- ⑧ 허웅애기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아간다.
- ⑨ 아이들은 할망에게 밤에 엄마가 온다고 말한다.
- ⑩ 아이들의 깔끔한 차림새에 동네 할망이 궁금해 한다.
- ⑪ 할망은 엄마가 오면 다시는 저승에 못가도록 할테니 알려 달라고 한다.
- ⑫ 할망과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못 가게 말리므로 저승으로의 귀환 시간이 지났다.
- ⑬ 차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허웅애기의 머리채를 말아서 잡아갔다.
- ⑭ 후에 허웅애기는 다시는 이승에 오지 못했다.

이 자료는 15번 자료와 동일인이 제보한 것이다. 자료13은 일반 설화로 구연한 반면 이 자료16는 노래와 말을 섞어서 구연되었다. 서사가 중복되고 앞뒤가 뒤섞인 부분도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료15에서는 언니가 조건 없이 12폭 치마를 내어주었는데, 이 자료 16에서는 언니 머리에 이(蠶)한 마리 잡아주고 12폭 치마를 얻어 인정을 가는 것이 특별하다.

45) 김태일(여, 73) 구연, <허웅애기>, 김현선 교수 조사,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경로당 채록, 2012년 8월 21일.

그러나 전체적인 요지는 자료 15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젊은 딸자식이 죽게 되었는데도 부모들은 외면하고 있다. ②~④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둘째, 저승차사와의 따뜻한 인정으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셋째, 차사와 약속 파기로 다시는 이승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승출입을 못하게 된 허웅애기는 영원히 죽은 것이다.

자료17⁴⁶⁾

- ① 허웅애기가 집안 살림을 잘한다.
- ② 차사가 허웅애기를 잡으러 온다.
- ③ 허웅애기는 어머니한테 소로 인정을 걸어 달라고 한다.
- ④ 소도 말도 없고, 쇠뿔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여 기집년은 필요 없다고 한다.
- ⑤ 아버지한테 소로 인정을 걸어 달라고 하나 지집아기 없는 셈 친다면서 거절한다.
- ⑥ 성님이 내어 준 열두 폭 치마 인정을 걸고 열 두문을 열고 저승에 간다.
- ⑦ 허웅애기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우는 것을 보고 저승차사는 인정을 베푼다.
- ⑧ 돌에다 침을 뱉어서 그 침이 마르기 전에 이승에 다녀오라고 한다.
- ⑨ 아이들의 고운 옷과 머리단장을 보고 동네 할망이 궁금해 한다
- ⑩ 동네 할망이 안다.
- ⑪ 엄마가 오면 알려 달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잡는다.
- ⑫ 동네 할망과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못 가게 말리므로 저승으로의 귀환 시간이 지난다.
- ⑬ 차사가 올래에서 지붕으로 가서 잡아간다.
- ⑭ 그 다음부터 저승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자료의 구성을 보면 이승과 저승 그리고 두 세상을 왕래하는 인물과 단절하게 되는 결과로 짜여 있다. 이승의 인간, 허웅애기는 저승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정작 부모님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이 딸자식 보다 물질을 우선으로 여긴다. 이 자료 초반부는 허웅애기를 저승차사가 잡으러 오는 자료7과 서사가 유사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저승에 간 허웅애기는 이승에 있는 자신의 자식들을 돌볼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짓는다. 이에 저승의 따뜻한 인정으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면서 아이들

46) 김태일(여, 73) 구연, <허웅애기>, 서영숙 교수 조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경로당, 2012년 8월 15일.

을 보살핀다. 자료 1~4 7, 8, 12~14와 같이 동네 할망이 알게 되고, 제시한 모든 자료와 동일하게 허용애기는 저승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된다. 이로써 허용애기는 영원히 죽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저승에 가면 다시는 이승에 올 수 없게 되었다.

3. 자료별 특징 종합

앞절에서는 17편의 <허용애기본풀이>에 대해 자료별 서사단락과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일부자료의 서두에서 일·월조정(12, 13)⁴⁷⁾에 관한 화소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저승차사가 이승의 허용애기를 잡으러 오는 내용이 서사의 전반부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 자료도 눈에 띈다(14~17). 또 결말 부분에서 후일담 형식으로 웅관묘적 특징(1~4, 8) 이나 장례유례에 관한 내용(8, 10)이 덧붙여져 있는 자료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각 자료가 지니는 세부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요화소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허용애기본풀이> 자료별 중요화소 출입 양상

자 료 번 호 중 요 화 소		자 료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일·월 조정화소	×	×	×	×	×	×	×	×	×	×	×	○	○	×	×	×	×
B	저승에 잡혀간 이유	×	×	×	×	×	×	○	×	○	×	○	○	○	×	×	×	
C	이승·저승왕래	○	○	○	○	○	○	○	○	○	○	○	○	○	○	○	○	
D	이승 방문과 아이들 양육	○	○	○	○	○	○	○	○	○	○	○	○	○	○	○	○	
E	할망에게 노출 (동네사람)	○	○	○	○	×	×	○	○	×	×	○	○	○	○	○	○	
F	할망과 아이들의 공모(애기 자칭)	×	×	×	×	×	○	×	○	×	×	○	○	○	×	×	×	
G	저승과의 약속파기	○	○	○	○	○	○	○	×	○	×	○	○	○	○	○	○	

47) ()안의 숫자는 자료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H	차사 출두	○	○	○	○	×	×	○	○	×	×	×	○	×	○	○	○	○
I	허용애기의 죽음	○	○	○	○	○	○	○	○	○	×	○	○	×	○	○	○	○
J	이승과 저승의 분리	○	○	○	○	○	○	○	○	○	○	○	○	○	○	○	○	○
K	후일담	○	○	○	○	○	○	○	○	×	○	×	○	×	○	○	○	○

표에서 ○는 해당 화소의 있음을 나타내며 ×는 해당화소 없음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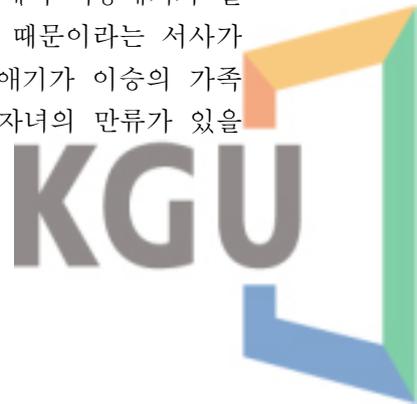
A는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중심 서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허용애기분풀이>의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 12, 13에서 확인된다.

B는 허용애기가 저승으로 가게 된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다. 자료 1~4에서는 허용애기가 저승에 잡혀간 이후부터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서는 허용애기가 저승에 가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다. 자료 5, 6에서는 저승차사 대신 심부름을 하던 까마귀의 실수로 허용애기가 저승에 간 것으로 나온다. 자료 14, 15는 허용애기가 저승에 잡혀 가게 된 이유가 뛰어난 살림솜씨가 있어서 저승에서도 저승 살림을 살필 인물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나머지 자료들은 허용애기가 잡혀간 이유로 자료 8, 12, 13은 베짜기를 잘 하는 것이며, 자료 10에서는 허용애기의 예쁜 얼굴과 소리 좋고 춤을 잘 추기 때문이고, 자료 12~15는 어리고 살림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저승에 가게 된 이유가 된다.

C는 허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것으로 자료 1~17번까지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허용애기는 비록 죽었지만, 저승왕의 배려 또는 저승차사와의 협상의 결과로 일정한 시간에 이승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D는 허용애기가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내용이다. 자료 1~17번까지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E는 이웃할망에 의해 허용애기가 이승을 방문한 사실이 노출되는 내용이다. 1~4, 7, 8, 12~17번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 중 자료 1, 4에서는 이웃할망이 아닌 청태산마고할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또 자료 8에서는 할망의 존재가 아닌 시어머니가 다른 자료들에서 할망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료 5, 6, 10에서는 이웃할망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5, 6에서는 <차사분풀이>의 연장선상에서 허용애기가 일찍 죽게 된 이유를 강림차사 대신 심부름을 하던 까마귀의 실수 때문이라는 서사가 길게 확장해서 구연되고 있다. 자료 10에서는 저승에 갔던 허용애기가 이승의 가족 곁으로 오니 저승에 가면 다시 오지 못 할 것을 염려한 남편과 자녀의 만류가 있을



뿐 할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F는 이웃할망이 아이들에게 허용애기가 더 이상 저승으로 가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허용애기가 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자료 7, 12, 13에서 할망은 아이들에게 실을 묶어준 후, 허용애기가 오면 실을 당겨 자신을 호출하려고 한다. 자료 8에서는 할망이 아닌 시어머니가 신발을 숨기는 방식으로 허용애기의 저승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자료 10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의 만류로 허용애기가 저승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1~4, 14~17번 자료들에서는 허용애기가 집에 오자 아이들이 할망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다가나 할망이 허용애기가 온 사실을 알고 스스로 찾아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자료 5, 6에서는 할망의 존재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 허용애기가 아이들을 돌보다가 돌아갈 시간을 잊었다고만 되어 있다.

G는 허용애기가 저승왕과 약속한 시간을 넘기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아 약속이 파기되는 내용으로, 모든 자료에서 확인된다.

H는 허용애기가 약속된 시간에 저승에 돌아가지 않자 저승왕이 저승차사를 보내 허용애기를 잡아오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료 1~4, 7~12, 14~17번에서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자료 5, 6, 13에서는 허용애기가 저승왕과의 약속된 시간을 넘긴 후 스스로 저승으로 귀환하고 있고, 따라서 저승차사가 출두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I는 저승왕과의 약속시간을 어긴 허용애기가 결국 영원히 죽게 된 내용이다. 자료 1~4, 7~12, 14번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 1~4, 8, 10에서는 항아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고, 특이하게 자료 12에서는 허용애기가 책갑 속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자료 5, 6, 13에서는 허용애기가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허용애기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소통이 단절되어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의 존재들이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로 볼 때 허용애기가 완전히 죽음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가 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J는 허용애기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소통이 막히고 영원히 오갈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자료 1~17번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이승과 저승이 영원히 분리된 것은 허용애기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부 자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5, 6의 자료에서는 귀환 시간을 잊어버려서 이승과 저승의 법을 마련하여 곁을 갈랐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13번 자료에서는 허용애기가 지각 귀환하게 된 것이 이승 사람과 이런 저런 말을 섞으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더 이상 귀신과 사람의 말이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여 이승과 저승의 영원한 단절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자료 14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하게 된 것을 허용애기의 탓이 아닌, 허용애기를 숨겨서 시간을 지체

하게 한 할망 탓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보인다.

K는 본 서사가 끝나고 일종의 후일담적 성격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자료 1~4에서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이 허용애기로 인하여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저승에 가면 이승에 내려오지 못하는 법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자료 7은 시어머니의 모함과 계략으로 허용애기가 저승으로 잡혀간 까닭에 이로 인해 고부 관계가 지금 처럼 나빠진 것이라는 유래담을 밝히고 있다.⁴⁸⁾ 자료 8번에서는 염라대왕이 허용애기의 사건을 겪고 나서는 까마귀를 사자로 보내 이승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서로 저승에 오는 법을 전달하도록 시킨다. 그러나 까마귀의 실수로 나이와 상관없이 저승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후일담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는 <차사본풀이>의 일부 서사를 차용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자료 12에서는 허용애기로 인해 인간과 그 이외 존재들 사이에 말이 서로 달라진 내력을 부기하고 있다.⁴⁹⁾ 또한 자료 12, 13은 <천지왕본풀이>의 중요 화소인 일·월 조정화소가 차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 13에서 장례에서 초혼(招魂)하는 법, 시신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처리한 법, 입속에 흰쌀 7 톨을 넣는 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⁵⁰⁾ 자료 14에서 허용애기 보다는 허용애기의 저승행을 만류한 할망 때문에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끊기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후일담이 보인다.⁵¹⁾

이상과 같이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자료 12, 13은 서두 부분에서 <천지왕본풀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월화소가 삽입되어 있고, 자료 10, 12, 13에서는 후일담 형식으로 허용애기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의 곱(경계)을 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으며, 자료 1~4, 8, 10에서는 허용애기의 시신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웅관묘적 특징이 확인된다. 또 자료 8, 14에서는 허용애기를 저승행을 막아주는 존재로 할망 대신 시어머니가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며, 자료 14~17의 서두에서는 <차사본풀이>의 일부 삽화가 삽입되어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처럼 17편의 <허용애기본풀이> 자료들은 세부적인 부분들과 서두와 후일담에서

48) “그 법으로 금시상이 인간이 죽으면 다시 아니오곡 씌어멍 매누리 스이가 굿어집네다.”

49) “옛날엔 돌도 말을 한다, 낭도 말을 한다행 다 해나신디, 허용애기 때문에 다 말모르기(병어리)가 되어 부렸주.”

50)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위선 이제 사람 죽으며는 그 뭐 초혼(招魂) 흥쟁 허민(하자고 하면), 머리도 저 끊어다 노매. 이디머리 상가맨[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머리, 머리 끊어다 농곡 손톱 2사(짤라) 농곡. 그래서 이제 가. 게난 그 그식으로 이제 지금은 죽어서 이제 소렴을 흥자면, 이제 그 주머니새게 요만흔[시늬] 이제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털 해 농곡 이제 손톱 발톱 2사 놓고. 또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근살(흰쌀) 일곱 방울, 쌀 일곱 방울을 이제 물 컷다가(물에 담갔다) 이제 그 사람 죽은 입을 이렇게 들러가지고[시늬] 입더레(입 속으로) 영(이렇게) 놔.”

51) “만약에 이 할머니가 허용애기를 숨기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어서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며 반반씩 살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죽으면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 여러 가지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편 자료에서 보이는 세부 화소의 변이가 중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까지 초래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비교적 변이 양상의 큰 부분은 서두와 후일담 부분이었는데, 중심 사건과의 서사적 유기성이 떨어지는 부분⁵²⁾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유무(有無)가 각 자료의 상동성(相同性)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세부 화소나 서두와 결말에서 보이는 부분적인 변이 양상에도 불구하고 17편의 <허웅애기본풀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공통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1. 옛날에는 해도 두 개 달도 두 개씩 있어서 사람들이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었다.
2. 허웅애기는 결혼해서 여러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승에 불려갔다.
3. 허웅애기는 저승에서도 이승에서처럼 배짜기, 살림살이 등의 일을 했는데, 늘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 걱정에 눈물을 흘렸다.
4. 저승의 열시왕(염라대왕)은 허웅애기를 불쌍히 여겨 밤에는 이승을 방문해 아이들을 보살피도록 허락해 준다.
5. 이승의 이웃집 할망(시어머니)이 허웅애기의 방문을 알게 된다.
6. 할망은 아이들에게 어명의 저승행을 막아주겠다고 허웅애기가 방문하면 연락하도록 시킨다.
7. 할망은 허웅애기가 저승에 돌아가는 것을 막아 저승왕과의 약속을 파기시킨다.
8. 저승에서는 허웅애기가 돌아올 시간을 어기자 열시왕은 저승차사가 보내 허웅애기를 잡아오게 한다.
9. 저승차사가 할망의 방해로 뚫고 허웅애기의 혼을 가지고 저승으로 간다.
10. 허웅애기의 약속 파기로 인해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불가능해졌다.
11. 후일담

<허웅애기본풀이>의 17개 자료는 이상 총 11개로 정리된 공통서사단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동일한 유형 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3장에서는 이러한 공통서사단락을 중심으로 <허웅애기본풀이>의 등장인물과 중심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기능과 의미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52) 서두는 주로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를 차용해서 시간적 배경을 밝히는 내용이며, 후일담은 주로 허웅애기의 죽음으로 이승과 저승이 분리된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장례 풍습에 관한 내용을 부기하고 있어서 중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

53) 이때, 11개의 공통서사단락에는 서두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부분과 결말의 후일담을 함께 포함시켰다.

Ⅲ. <허웅애기본풀이>의 서사적 특징

이번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중심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물과 사건, 구성 등은 서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이러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웅애기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등장인물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인물들의 특징과 역할을 살피고, 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허웅애기본풀이>의 중심 사건이 되는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 단절과 경계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작품에 담긴 세계관과 주제의식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등장인물 분석

1) 허웅애기

허웅애기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주인공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여러 명의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이다. 허웅애기는 얼굴도 예쁘고 기예도 출중하다(9). 게다가 허웅애기의 뛰어난 배짜기(8, 12, 13)또는 살림솜씨(14~17)는 저승에서도 탐을 내어 데리고 간다. 허웅애기는 저승에 가서도 배짜기(살림)를 맡아서 한다.

[자료13]

허웅애기는 미명짜는 걸(무명짜기를) 잘 해서 저승에 가서도 미명을 짜는디 허웅애기는 미명짜서 이승에 두고 온 딸이랑 서방이랑 생각이 나서 차꼬 울기만 핏수다. 미명을 항상 짜면서 흐다가 이젠 죽었어, 죽언. 저승왕에 가니깐 이젠 저승왕 이젠 눈물을, 눈물을 이젠 하도 미명을 짜면서 울어.⁵⁴⁾

[자료13]

허웅애기는 미명짜서 이승에 두고 온 딸이랑 서방이랑 생각이 나서 차꼬 울기만 핏수다.⁵⁵⁾

[자료8]

54)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3면.

55)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3면.

젊은 나이에 저승에 와서 이승에 있는 남편과 다섯 살과 두 살 된 어린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⁵⁶⁾

허웅애기는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 두고 온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늙은 부모와 남편을 걱정하고 울면서 지낸다. 허웅애기는 자신의 죽음 안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효성과 강한 모성애에는 저승왕의 인정을 이끌어 내고, 이승에 드나들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허웅애기를 통하여 본 바 인간은 죽음보다는 삶을, 저승보다는 이승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승 또한 이승처럼 인정이 있는 세계라고 하면서, 또 죽어서 저승에 갔던 존재도 때론 이승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여 죽음의 공포와 저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확인된다. 이처럼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인간의 욕망은 허웅애기의 강력한 모성애로 표출되어 있다. 허웅애기는 모성애로 인해 인간계와 이계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승에 있는 아이들 곁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 즉 모성애로 인해 허웅애기는 저승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다. 저승왕은 차사를 시켜 약속된 시간을 넘긴 채 이승에 머물러 있는 허웅애기를 잡아오도록 시킨다. 결국 허웅애기는 차사에 의해 저승에 잡혀오고, 이후로는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금지되어 저승에 갔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승에 다녀오지 못하게 된다. 강력한 모성애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었던 허웅애기가 오히려 그 모성애로 인해 이승과 저승을 단절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웅애기는 서사의 중심인물로, 어린 아이들을 여럿 둔 채 저승에 가게 된 젊은 엄마이다. 그녀는 모성애를 통해 저승왕을 감동시켜 이승을 방문하게 되는 인물이면서 또한 모성애로 인해 이승과 저승을 경계짓게 만든 장본인이다.

2) 저승왕(염라대왕, 시왕)

염라대왕(1, 2, 3, 4, 8) 또는 열시왕(12, 13)이라고 불리는 저승왕(14)은 죽음의 세계인 저승을 지배자이다. 저승왕은 저승의 베짜기(살림)를 시키려고 젊은 엄마인 허웅애기를 저승으로 데려간다. 허웅애기의 베짜기 또는 살림습씨가 저승에서도 소용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승이 이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다.

저승에 간 허웅애기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눈물을 흘린

56) 현용준,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162면.



다. 저승왕은 그런 허웅애기를 동정하고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이승을 다녀오라고 인정을 베푼다. 허웅애기의 모성애가 저승왕의 마음을 움인 것이다. 저승왕은 허웅애기의 안타까운 모정에 따뜻한 인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인정이 있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승 또는 저승왕은 이승, 또는 이승적 존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저승의 살림살이는 이승의 그것과 동일하며, 저승적 존재인 저승왕은 이승적 존재들처럼 인정이 있다. 때론 저승왕은 이승과 이승에 사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저승왕이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내용은 <차사본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내왕이 동안(東軒)마당 연단 우트레 오란 탁허게 사옴테다 이-
베락 천둥소리엔 몬딱 다 돌아난 곱아불고.....(생략)
원님이 나산다. 원님아, 원님아, 어땡허난 나를 청흐테까.
아이구, 염내왕님아 그런게 아니웨다.
사실이 악하악하해연 과양생이 지집년네
아들 삼형제를 낳고,
아덜 삼형제가 과거해연 오고,
아들 삼형제 다 죽으난,
애기를 허다허다 버쳐 염내왕을 청해였수대 허난,
어서 강 광양생이를 불러들이라.⁵⁷⁾

인용한 문면은 저승왕이 원님의 청에 따라 이승을 방문하는 부분이다. 과양생이의 아들 삼형제는 동시에 과거에 급제한 후 돌아와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꺼번에 죽게 된다. 이 일로 과양생이의 아내가 고을 원님에게 소지원정을 내지만 원님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저승왕을 청한다. 이승을 방문한 염내대왕은 직접 땅으로 내려와서 과양생이를 불러다가 문초를 하고 아들들이 비명횡사한 원인이 과거 과양생이 부부의 저지른 악업의 결과임을 밝히게 된다. 이처럼 저승왕은 이승의 존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직접 이승에 내려와 해결하고, 그 결과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그는 저승왕이면서도 저승을 넘어 이승까지 일정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승왕은 저승의 지배자로서 저승에 온 존재들을 보살피고 동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또 동시에 이승 세계에도 일정 정도 관여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5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1998, 278-279면.

3) 저승차사

저승차사는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이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나 전통 문화에서 또는 문학에서 저승차사는 인간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저승왕의 명을 받고 차사는 살림썩씨가 좋은 허웅애기를 데리러 온다. 허웅애기는 차사에게 열 두폭 치마와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대접하며, 자기가 없으면 열 세 살 된 어린 남편과 아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면서 못가겠다고 사정한다.

저승차사는 허웅애기가 대접하는 열 두폭 치마와 정성스런 밥을 받고 인정을 배운다.(14~17) 허웅애기에게 저승차사는 저승담 올면 이승오고 이승담 올면 저승 오라면서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한다. 저승차사는 비록 이승의 생명을 취하러 오는 것이지만 죽음의 당사자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승 차사는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인물이다. 또 자신이 받아먹은 것에 대하여 책임감도 느끼고 인간의 딱한 사정에 인정도 베풀 수 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이러한 저승차사의 면모는 <차사본풀이>에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염내왕의 부린 스재가
너를 잡으레 오람젠 해연
이걸 굴아주젠 하도 널 불러가난.....(생략)
죽을점(占)은 호고 살점은 못흠네까
살도리를 그르쳐 줌센하난
영호거들라그네 대공단에 고깔들여 머리 삭발(削髮)호고
상탕(上湯)에 메를치고
중탕(中湯)에 목욕하고,
하탕(下湯)에 수족을 씻어그네,
이에 높은 펥풍 제상을 출리고, 실과 전상을 출려놓양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에
테역단풍 권아지지 청결또로 가건
제물(祭物)제(祭)양을 다 출려놓고 삼츠스 나시 신발체를 츠리고
인정을 다과히 걸어그네.....(생략)
저성 염내왕을 청해영 염내왕 몸받은 체스님전에
관디(冠帶) 삼베띠 삼베혜 삼베
대말치 소말치 주석상동이
상백미 증백미 하백미를 잔뜩허게 실르고 인정걸영.....(생략)
쳐서님도 생각하여 보난에

늪의 걸 그자 먹을 수도 엇고 헝난⁵⁸⁾

위의 문면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보다 더 자세하게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거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인간은 저승차사를 대접하기 위해 목욕재개한 후 제물을 차려 저승차사가 내려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접한다. 이때, 저승차사는 대접받은 대가로 자신을 극진히 대접한 인간에게 저승으로 가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인정을 베풀게 된다. 이미 저승 명부에 이름이 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저승차사의 인정에 의해 다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내용을 통해 왜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다. 인간의 정성은 저승의 존재를 감동시켜 죽음조차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승차사는 <허웅애기본풀이>와 <차사본풀이> 모두에서 인간을 죽음의 세계인 저승으로 데려가는 공포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성에 감동해 인정을 베푸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아이들(자녀)

허웅애기의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된다. 허웅애기는 그런 아이들을 남기고 저승에 온 후 눈물로 아들을 그리워하고, 결국 저승왕의 인정을 얻어 밤이면 이승의 아이들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허웅애기가 이승에 온 이유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실상은 조금 다르다. 아이들은 이웃할망에게 엄마가 온 사실을 알리러 가려고 하지만 허웅애기는 아이들에게 방 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시킨다. 아이들은 결국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워도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거나 구들에 쌀 수밖에 없다(7, 12, 13, 14). 허웅애기는 아이들을 보살핀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허웅애기가 비록 이승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저승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승의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를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12, 14)는 이웃집 할망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 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의 존재에게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와 관련된 문면을 보자.

[자료12]

그 허웅애기가 오라가민 밤이니까 누게 사람보카부덴(볼까 봐) 문을 탁타 다 줌그거든.

58) 문무병, 같은 책, 296-298면

아 이전 밤인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백이떠레 나가젠 흐민,
“오즘도 구들에서(방에서) 싸라.”⁵⁹⁾

[자료13]

허웅애기는 밤이민 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문 탁탁 즈그고 오즘도 밖
으 나가서 쓰지 못하게 하고 구들에서 쓰라고 했수다. 그래서 아이덜은 동넛할망⁶⁰⁾가
가서 우리 어망 왔다고 그르지 못히수다.

위의 문면에서 볼 수 있듯이 허웅애기는 아이들에게 소변을 방안에서 싸도록 하면
서 문을 잠금으로써 아이들과 할망이 서로 연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저승에서 이승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허웅애기는 외부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아이들의 바깥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리적인 현상에도 의지
를 껴게 만든다. 이렇게 아이들이 위태롭게 되자 할망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도 좋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엄
마의 금기를 깨고 아웃집 할망과 긴밀한 결속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살피
러 온 엄마의 눈을 속이고 변소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혹은 할망이 미리 준 실을 이
용하여 할망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7, 13, 14).

할망이 아이에게 건네 준 실은 아이의 생명과 연결된다. 할망이 아이들의 손목(발
목)에 묶어 놓은 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이승의 텃줄인 것이다. 마침내
아이들은 할망과 연결된 실을 당겨 저승 존재인 허웅애기의 방문 사실을 알리게 된
다.

이처럼 아이들은 주인공인 허웅애기가 죽어 저승에 가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으로
그녀가 이승 여행을 하게 만드는 발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엄마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웃할망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5) 할망

할망은 아이들을 통하여 저승에 간 허웅애기가 이승에 와서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할망은 아이들에게 저승에서 엄마가 오면 알려 달라고 한
다. 할망은 아이들이 엄마가 오면 꼼짝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은실을 주
어서 한 쪽 끝은 할망이, 다른 쪽 끝은 아이의 손목 또는 발목에 묶고 엄마가 오면

59) 구비대계 9-3 같은 책, 640면.

60)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4면.

연결 된 실을 당기라고 이른다(7,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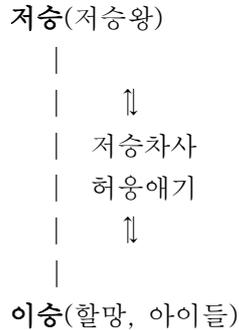
허웅애기가 저승에서 온 사실을 알고 할망은 즉시 허웅애기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행동을 개시한다. 할망은 저승차사가 오지 못하도록 먼 올래에서부터 마당까지 가시나무를 쌓고 있다(7, 12). 또한 할망은 허웅애기가 머무는 방문을 잠그거나(7, 12, 13, 14, 15, 16, 17), 허웅애기를 항아리 속에 숨기며(1~4, 8, 10) 그녀의 저승행을 막아준다. 또 허웅애기에게 여러 말을 시켜 저승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지체시키기도 한다(12, 13). 이처럼 할망은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허웅애기를 도와 그녀가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이러한 할망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허웅애기는 저승으로 잡혀가게 된다.

여기서 할망이라는 존재는 매우 문제적이다. 일부 자료에서는 할머니가 허웅 애기를 숨기지만 앓았더라면 사람은 죽어서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반씩 살았을 것이라며 할망을 원망하는 내용이 보인다(14). 결과적으로 할망의 행위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던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할망은 아이와 결속하여 자신의 영역인 이승을 지키며, 우주질서에 대하여 하나의 획을 긋는다. 할망의 이러한 행위들은 저승에서 온 허웅애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녀를 저승으로 내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할망은 더 이상 평범한 이웃 할머니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할망의 속성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을 속이고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할망은 저승의 간섭을 막고 이승의 산 사람의 자기 차지로 하려는 이승차지 신격(神格)으로 볼 수 있다. 할망은 저승의 적대자, 저승에 반기를 든 존재로서 이승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신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러한 할망의 행위는 허웅애기를 지키려는 행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할망은 저승의 존재를 이승에서 축출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승은 더 이상 저승적 존재의 왕래를 막으므로 자신만의 영역으로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내재했다는 점에서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과 일정 정도 동일한 속성을 지닌 인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곧 할망은 저승 존재의 이승 방문을 완벽하게 막아 이승을 온전히 지켜낸 수호신적 면모를 지닌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허웅애기본풀이>에서 등장하는 허웅애기, 저승왕, 저승차사, 아이들, 할망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크게 저승의 존재와 이승의 존재, 그리고 그 사이를 왕래하던 중간자적 존재로 나누어진다. 이승과 저승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영역과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1] 이승과 저승의 인물 배치도



위의 도식에서처럼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저승의 불박이적 존재로 저승왕이 제시되고, 이승의 불박이적 존재로 할망과 아이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로 저승차사와 허웅애기가 제시되어 있다. 저승차사와 허웅애기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저승왕과 할망의 거리가 가장 멀고 대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와 단절을 함의하는 속성을 지닌 인물로 보여진다.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이들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 단절과 경계라는 중심 사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나뉘게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서사무가이다. 그러나 이 본풀이는 또한 이승과 저승이 본래는 서로 왕래와 소통이 가능했었던 실상을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때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은 특히 저승차사와 허웅애기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실행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허웅애기와 저승왕 그리고 저승차사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승차사는 익히 알려진 대로 이승에서 수명을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수명의 연한(年限)은 허웅애기처럼 젊은이가 아니었음을 <허웅애기본풀이>에서나 <차사본풀이>에서 명확하게 알려준다. 자료 2를 보면 인간수명이 80이 천명(天命)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명(定命)이 적힌 염라대왕의 명령이 들어있는 명부를 강림차사 대신 전하려던 까마귀의 실수로 인하여 인간의 죽음은

남녀노소(男女老少)구분 없이 임하게 되었다. 까마귀의 실수는 허웅애기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젊은 자신을 데리러 오는 저승차사에게 허웅애기는 인정을 걸고 사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15, 16, 17에서 보면 허웅애기는 저승왕의 명을 받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승 차사를 알아본다. 이승의 존재가 저승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다. 허웅애기는 저승의 차사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잡아 갈 것을 직감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료14]

날 잡으러 오는 차사는
병것 벗어 등에 지고
입저 벗어 목에 걸고
슬금슬금 오는구나
이리되면 어찌할까
저리되면 어찌할까

이승의 존재인 허웅애기는 저승차사가 자신을 잡으러 슬금슬금 오고 있어 저승으로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허웅애기가 저승차사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저승은 가기 싫은 곳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허웅애기는 저승으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궁리하고 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잡혀가지 않으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살림솜씨 좋고 음식솜씨 좋은 허웅애기는 저승차사한테 밥을 지어 올린다. 저승에서 이승이라는 먼 길을 온 저승차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고달픈 노정(路程)속에 있을 시장기를 헤아려 먼저 밥부터 지어 올리는 것이다. 좋은 음식솜씨로 밥을 지어 올리고 나서는 자신이 저승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허웅애기는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서 필요한 바를 마련해준다. 이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지게 하고 나서야 자기는 갈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저승차사가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차사가 허웅애기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료14]

차사님께 밥을 올려
차사님아! 차사님아!
이 밥 잡수고 돌아가소
내가 갈 순 없습니다.

내가 웬 일로 못가겠느냐
 열 세 살된 낭군님에
 세 살된 아드님에
 한 살된 딸아기
 내가 가면 이승일
 어느 누가 거렴(居念)하료?
 보름달같은 얼굴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비새 울 듯 울어가네
 그럼 내가 내말대로 하여라⁶¹⁾

이승적 존재인 허용애기와 저승의 차사는 서로 대화로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화로 허용애기의 간절한 마음이 저승차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승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저승의 차사와도 소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의 소통과 마음의 소통은 공간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죽음을 맞이하는 허용애기는 저승차사로부터 이승과 저승이라는 시공간의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음으로써 공간적 소통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허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 그 시간적 제한은 저승을 떠날 때에 침을 빨아서 그 침이 마르기 전에 이승의 일을 보고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저승 답이 올면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승 답이 올면 저승으로 돌아오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자료14]
 저승담 올면 이승오고
 이승담 올면 저승가며
 낭군과 아이들 거렴해라⁶²⁾

이렇게 허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 하도록 허락 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허용애기는 제한된 시간을 두고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며 이승의 살림도 보살피고 저승의 살림도 보살핀다. 허용애기는 더 이상 이승에 묶여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저승적 존재도 아닌 것이다. 즉, 허용애기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두 세계를 왕래하며 생활하는 중간적 존재이다.

한편, 신화들에는 하늘과 지상이라는 두 세계를 오고가는 존재들이 자주 등장하고

61) <허용애기>, 『남국의 설화』, 진성기, 같은 책, 80면

62) 진성기, 같은 책, 80면



있다. 제주도에 전승하고 있는 <천지왕본풀이>에서 하늘의 천지왕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사는 총맹부인과 결연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천지왕은 땅에 사는 수명장자의 부도덕성에 화를 내면서 징치하게 된다.⁶³⁾ 하늘의 존재는 적극적으로 땅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들은 인간이 직면한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더 높은 차원의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를 개입 시키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바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천지왕과의 결연으로 땅의 총맹부인에게서 태어난 소별왕 대별왕은 아버지를 찾아서 하늘에 오르기도 한다.⁶⁴⁾ 하늘의 존재만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 살던 존재도 자기들의 의지로 하늘에 오르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땅의 소별왕이 땅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천상적 존재인 대별왕을 청하여 이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하늘에는 해도 두 개 들도 두 개 있어서 낮이면 사람들이 뜨거워 타서 죽고 밤이면 사람들이 얼어서 죽었다.⁶⁵⁾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체의 혼란으로 땅의 문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땅을 차지한 소별왕은 하늘을 다스리는 대별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형은 동생인 소별왕을 도와주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상과 지상의 소통은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늘의 존재들의 뛰어난 능력들이 부각된다. 그만큼 땅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이 혼란은 돌이나 나무도 말을 하고 귀신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도 귀신의 말을 알아듣는 소통의 세계였다. 이 소통의 세상에서는 사람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부르면 사람이 대답하는 무질서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질서로 인해 천상과 지상의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보이는 무질서, 천상과 지상의 소통은 <허웅애기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도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이며, 사람과 돌, 나무가 서로 말이 통하는 무질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승과 저승의 존재들이 서로 왕래하고 소통한다. 즉 <천지왕본풀이>와 <허웅애기본풀이>는 모두 아직 천상과 지상, 이승과 저승 세계가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세상의 첫 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3) 문무병, 같은 책, 108면.

64) 문무병, 같은 책, 109면.

65) 문무병, 같은 책, 16면.

한편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를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의 모습은 <차사본풀이>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왕래와 소통에 있어 더욱 주목할 인물은 허웅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웅애기는 저승으로 왜 잡혀갔는지 저승에 가게 된 허웅애기가 어떻게 이승을 넘나들 수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허웅애기는 어린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이고 아이가 있다. 이러한 허웅애기는 얼굴이 예뻐 뿐만 아니라 살림솜씨 또한 뛰어나다. 베짜기도 잘하는 그야말로 모두가 탐낼만한 인물이다. 이러한 허웅애기는 저승에서도 욕심을 내고 데려간다. 이때 저승에서 허웅애기를 데려가는 이유가 분명히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료 9, 12에서는 허웅애기의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능력을 보고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자료의 구체적인 문면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10]

“옛날 허웅애기가 얼굴 좋다 허웅애기, 소리좋다 허웅애기, 춤 잘 춘다 허웅애기, 저승에서 드려 가젠 해신디”⁶⁶⁾

[자료 14]

“열 세 살 된 남편과 세 살 된 아들과 한 살 된 딸아기를 거느리고 살던 허웅아기는 무척 나이 어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살림 솜씨가 좋았던지 저승의 왕에게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지만, 그때에 저승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왕은 허웅아기를 데려다 저승의 살림을 보살피도록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저승차사들이 허웅아기를 다리려웁니다.”⁶⁷⁾

다음으로 자료 5, 6, 13, 14에서는 저승에서 허웅애기를 왜 데려갔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허웅애기가 저승에서도 이승에서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이승에서의 허웅애기 능력이 저승에서도 소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승에서의 생활은 이승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짜기의 모습은 의복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아울러 저승의 존재들도 옷을 입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각 자료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

[자료 13]

“열다섯 살에 시집가서 딸을 여럿을 낳고 키우는데 저성왕이서 저성 오라고 해서 저

66) 『백록어문』, 제10집.

67) 진성기(1959) 같은 책, 78면

싱으로 갖추다. 즉 죽었단 말입니다. 허웅애기는 미명짜는 걸(무명짜기를) 잘 해서 저승에 가서도 미명을 짜는디”⁶⁸⁾

[자료 12]

그 열 다섯 난 허웅애기가 이제 미녕차는 걸(무명짜는 일) 잘 했어. 이제 미녕차는 걸. 우리 지금은 이렇게 옷이 좋은 옷덜(옷을) 나지마는, 옛날에는 그 미녕옷을 이제 즈기냥으로(자기대로) 이제 지어서 입고 했는디, 미녕을 항상 짜면서 흐다가 이젠 죽었어, 죽언. 저승왕에 가니깐 이젠 저승왕 이젠 눈물을, 눈물을 이젠 하도 미녕을 짜면서 울어⁶⁹⁾

[자료 8]

옛날에 명주를 짜면서 살던 어떤 아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갔는데, 거기서도 명주 짜는 일을 하였다.⁷⁰⁾

인용된 문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승에서 소리를 잘 하고 춤을 잘 추는 여인은 저승에 가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이승에서 직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저승에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승에서 가진 허웅애기의 뛰어난 능력은 저승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저승의 삶이 이승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이계관(異界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의 생활과 저승의 생활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승과 저승의 소통도 또한 가능했다.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왕래하며, 소통이 가능한지 자료를 통해서 보자.

[자료 4]

허웅애기 서른 두살 나던 해월에
딸 삼형제 놔두고 인간 아기되어 저승에 들어사난
저승에서 비새굴이 울다 본다 해여가니
염래대왕님이
“어떤 일로 우느냐?”
“우리집이 부모조상 없는 애기덜 딸 삼형제 버려두고
치마작에 덮는 애기덜 두어돈 저승오난 저승에서 살수가 어습네다”
“그러며는 칠판에 꿈⁷¹⁾을 바까놓고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간에 가고 애기덜 머리귀밥 출려두어 두고 그 꿈 모르기 전에 저승으로 들어

68) 임석재, 같은책, 283면.

69) 구비대계 9-3, 같은 책, 639면.

70) 현용준 (1996), 같은 책, 162면.

71) 침

올 수 있겠느냐”

“있습네다”

그러거든 가랜 해연에 이승덜에 보내시미

2, 3일 동안 애기덜 머리 기밥 출려두고 저승으로 들어산다.⁷²⁾

이 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허웅애기가 비록 저승에 가게 되었지만 자신의 치마폭에서 자라야 할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인 자신의 손길로 돌볼 수가 없기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허웅애기의 슬픔에 젖은 눈물을 보고 저승왕은 어떤 일로 우느냐고 질문한다. 1차적으로 저승왕은 자신의 백성인 허웅애기의 사정을 헤아리고 있다. 허웅애기의 간절한 모성애는 결국 저승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승과 저승의 왕래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때 허웅애기가 지상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승왕은 허웅애기에게 칠판에 침을 뱉어놓고 그 침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뱉어진 침이 마르기 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허웅애기는 저승에서 이승으로의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모성애라는 힘으로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자료 13]

‘허웅애기는 미명잠서 이승에 두고 온 딸이랑 서방이랑 생각이 나서 차꼬 울기만 히수다. 저성 열시왕(열十王)이 허웅애기 우는 것을 보고

“너는 어찌서 그리 우느냐”고 물엇수다. “아이고 혼 슬 난 애기여 두 슬 난 애기여 시 슬 난 애기여 뗏 슬 난 애기여 낭군님 이승에 내버리고 오난(왔으니) 생각나서 울엄수다.”

“그러느냐. 그럼 이제부터 너 밤이랑 이승 가고 낮이랑 저성 오라.”

그런 명령을 내리워서 허웅애기는 밤이랑 이승 와서 애기덜 머리를 곱게 비기고 곱게 따두고 낮이랑 저성으로 가고 히수다.⁷³⁾

이 자료 역시 저승의 열시왕은 허웅애기의 눈물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허웅애기가 이승에 두고 온 남편과 줄줄이 달려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고 하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승살림을 보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저승의 열시왕 역시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인정을 베풀고 있다. 저승왕의 인정과 어린자식을 둔 <허웅애기본풀이>의 모성애는 이승과 저승을 소통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며, 원동력이 된다.⁷⁴⁾

72) 강권용 논문, 80면.

73)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4면

74) 이러한 내용은 자료 8, 12, 13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자료 14]

“차사님아! 차사님아!

이 밥 잡수고 돌아가소

내가 갈 순 없습니다.

네가 웬 일로 못가겠느냐

열 세 살된 낭군님에

세 살된 아드님에

한 살된 딸아기

내가 가면 이승일

어느 누가 거렴(居念)하료?

보름달같은 얼굴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비새 울 듯 울어가네

그럼 네가 내말대로 하여라

어떻게요?

저승담 울면 이승오고

이승담 울면 저승가며

낭군과 아이들 거렴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옵시오

이렇게 하여 허웅아기는 이승과 저승을 번갈아 다니며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닭이 울면 저승으로 갑니다⁷⁵⁾.”

이 자료는 다른 자료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승에 있는 허웅애기를 저승차사가 데리러 오는 대목부터 시작되고 있다. 허웅애기는 저승차사에게 밥을 지어 대접하며, 자신은 저승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그 누구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보살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사는 열 두 폭 치마와 밥으로 인정을 받은 터라 마음도 다소 누그러졌을 것이며, 허웅애기가 눈물로 호소하며 딱한 사정을 말하자, 인정을 베풀어 허웅애기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생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 역시 이승과 저승의 왕래에 있어서는 닭이 우는 시각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이승은 죽음의 공간인 저승과 그 저승을 다스리는 저승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죽음의 공간에 있는 저승의 존재들은 이승에 있는 인간들처럼 따뜻한 인정이 있음을 알 수 있

75) <허웅아기>, 진정기(1959), 같은 책.

다.

따라서 이승과 저승은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이승과 저승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삶의 공간인 이승을 그대로 본 따서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공간을 이승과 같은 곳으로 형상화 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이승과 저승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승도 이승과 같은 삶의 공간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 허웅애기라는 인물을 내세웠다. 이 여성은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성애라는 강력한 힘으로 죽음조차도 저항한다. 결국 허웅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원동력이 된다.

허웅애기의 모성애가 죽음을 이기고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었던 힘이었다면 또한 그 모성애로 인하여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고 경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그에 따른 핵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이승과 저승의 단절과 경계

허웅애기의 강한 모성애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 넘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저승적 존재인 허웅애기의 이승 방문은 결국 불행한 사건에 의해 종결되고 만다.

허웅애기는 저승왕이 베푸는 인정에 힘 입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생활한다. 모두가 잠든 밤시간 또는 침이 마르기 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하지만, 허웅애기가 이승에 와서 어린자식들을 보살피고 집안 살림을 돌보게 된다. 그러나 이승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엄마가 죽고 없는 집의 아이들이 깨끗한 용모에 의구심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동네 할망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그 원인을 확인한다. 다음 문면에서 그 점을 보기로 하자.

[자료 13]

동넛할망이 보니까 애기덜 머리가 곱게 비기고 곱게 떠서 잇어서 이걸 보고 “아기야 머릴 누가 경(그렇게) 해주던?” 하고 물으니 애기는 “우리 어망이 해줍디다”고 대답헛수다.

“무사 느네 어망이? 죽은 어망이?”

“우리 어망이 밤이면 와서 우리 머리를 비기고 따줍디다.”⁷⁶⁾

아이들은 죽은 엄마가 밤마다 와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이웃에 사는 할망은 죽은 아이들의 엄마가 밤마다 온다는 사실에 그것도 아이들 곁으로 와서 머리를 빗겨주고 곱게 단장해 준다는 아이들의 말에 깜짝 놀란다. 이미 죽은 엄마가 아이들 곁을 맴돌며, 떠나지 못하고 있음은 이승에 있는 할망과 아이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임을 직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할망에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엄마가 저승에서 이승에 온다는 비밀을 발설하게 된다. 이렇게 할망은 어린이를 통하여 저승에 간 허용애기가 이승에 와서 집안 살림을 살피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할망이 허용애기가 저승에서 이승에 오는 시각을 알려 달라는 말에 아이들은 엄마와의 약속을 생각하여 머뭇거리지만, 할망은 엄마와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허용애기가 이승에 머물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이용한다. 할망은 엄마가 이승에 오면 더 이상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단단히 숨겨 두겠다는 말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한다. 다음 문면을 살펴보자.

[자료 4]

“오늘밤에 오거든 날고라 고라주면은
너네 어머니 돈돈히게 잘 곱져주마”⁷⁷⁾

아이들은 엄마를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숨겨 주겠다는 할망의 말에 동의를 한다. 자료 1~4, 7, 10~15에서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저승의 존재가 되어 있는 허용애기는 자신이 이승에 머무르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는다. 그랬기에 이승을 드나들면서 아이들을 보살핌에도 주변 사람들이 허용애기가 이승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게 할 수 있었다. 허용애기는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가 오는 밤이면 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할뿐만 아니라 오줌을 구들에다 싸라고까지 한다.

이는 아이들의 생리적인 현상마저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할 수가 없는 문제로 대두된다. 오줌도 누워서 구들에다 싸게 된다면 아이들의 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죽은 엄마의 힘이 살아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할망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죽은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할망

76)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4면

77) 강권용 논문, 81면

의 행동이 뒤따른다.

[자료 13]

허웅애기는 밤이면 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툼 탁탁 잠그고 오즘도 밖으 나가서 쓰지 못하게 하고 구들에서 쓰라고 했수다. 그래서 아이덜은 동넛할망가라 가서 우리 어망 왔다고 가르지 못헛수다.⁷⁸⁾

오즘을 구들에 싸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병이 들어서 자신의 의지로는 일어나지도 못하여 누워서 오즘을 썼다고 볼 수 있겠다. 어린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강한 모성애 밤이면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소변이 마려워도 꼼짝할 수가 없이 누워서 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7, 12, 13)

깊이 잠든 밤 시간 이승의 아이들은 저승에서 온 엄마의 강한 모성애에 간혀서 꼼짝할 수가 없음을 이승적 존재인 할망에게 말하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가 저승에서 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엄마의 금기를 깨고 이웃집 할망과 긴밀한 결속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밤이면 저승에서 오는 엄마의 존재보다 이웃집 할망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웅애기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강한 모성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승, 즉 삶의 세계에 속해 있는 동네 할망에게 엄마가 저승에서 온 사실을 알린다. 변소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서 할망에게로 달려가 알리는가 하면⁷⁹⁾, 할망이 미리 준 실을 이용하여 서로의 몸 일부분에 묶어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 문면을 통하여 아이들이 할망에게 저승에서 엄마가 왔다고 알리는 부분과 할망의 대처를 보자.

[자료 13]

할망은 은실인가 금실인가 주면서 한끝은 내 발에 즐라매고 다른 한끝은 느네 다리에 매고 있다가 느네 어망이 오거던 이 실을 잡아댕기라고 일럿수다. 밤이 돼서 어망이 오니께 애기들은 어망이 왔다고 알릴라고 발에 줍아맨 실을 잡아 뎅겘수다.⁸⁰⁾

[자료 12]

우리 어망이 느시(전혀) 못오게 이제 문중가부런(문잠가 버려서는) 못 오라쑤다.”

이제 그 뭐 은실인가 금실인가 이제 주면서,

“밤에라그내(밤이 되면) 지발에(자기 발에도) 즐라매곡(잡아매고는) 지발에 이제 지발에

78)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4면.

79) 진성기,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22면.

80) 임석재 전집9, 같은 책, 285면.

줄라매곡 아기 발에 줄라매 뉘 자당(누워서 자다가) 이제 어멍으란(어머니가) 오거드네(오며는) 이 실을 이렇게 종글종글(종긋종긋) 이제 잡아댕기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애기를 이제 발에 이제 줄라매 뉘다 말이어. 뉘다그네(누었다가) 이제 어멍이 밤엔 이제 오라시니까, 이젠 그 애기가 이제 실을 이렇게 막 흔드니까 할머니가 오란. 할머니가 이제 오면서 이제 올레엔 뭐 그 뭐 한탈나무(들딸기나무) 탕낭가시가 요렇게 오그라지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들어오지 못히고 나가지 못히게, 올레에다가 막히게 한탈나무 이제 베다가 막 싸두고(쌓아두고), 마당까지 다 싸두고, 아젠 막 이제 증근 문(잠근 문)을 뛰멍(뛰어서) 들어오란, 들어오란 이제 못간다고. 딱 시간을 지켜서 시간을 탁 마련행 들어가는데 못 간다곤 행. 그 할머니가 이제 그 허웅애기를 가지 못히게 했어.⁸¹⁾

할망은 아이들을 지키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할망은 자신의 몸과 아이들의 몸을 ‘실’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마치 아이들의 생명은 할망과 연결판실에 달려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실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도 밝혀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승에 온 허웅애기를 더 이상 저승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망은 먼 올래에서부터 마당까지 가시나무를 쌓고 있다. 그리고 허웅애기의 방문을 잠그는가 하면 허웅애기를 항아리 속에 숨기기조차 한다. 이제 더 이상 저승차사가 오지 못하도록 할망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 있다. 이승의 존재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저승의 존재가 이승의 존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할망은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허웅애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승으로 가지 말고 이승에 계속 머물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승에서 이러한 할망의 행위는 허웅애기를 지키려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할망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허웅애기는 차사에 의해 저승으로 끌려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저승 존재가 이승으로 올 수 없게 되는 법이 마련된다.

저승 존재들의 인정으로 이승에 방문이 제한적이거나 용납되었으나, 허웅애기의 모성애와 미련, 욕심 그리고 지상 존재(할망)의 도움과 방해에 의해 결국은 저승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이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고야 만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사건보다는 그 이면에 할망의 존재가 문제적임을 살펴보았다. 할망은 모자간의 이별을 안타까워해서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참혹해서 저승차사가 내려와 약속을 어긴 허웅애기를 데려가 버린다. 이후 허웅애기는 물론 그 어떤 이승의 존재도 한 번 저승에 가면 이승에 올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허웅애기를 돕기 위한 할망의 역할은 오히려 이승과 저승을 경

81) 『구비대계』 9-3, 641면.



계짓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망이 올래에 가시를 쌓고 문을 잠그는 행위는 할망이 먼저 저승 존재들에게 경계를 쌓고 왕래를 막는 행위이다. 할망이 먼저 저승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망이 저승의 존재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승의 존재가 저승으로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올래부터 마당까지 가시를 쌓고 방문을 잠그는 행위는 단절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할망이 한 행위의 결과는 곧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다.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단절이고 엄마와 아이의 단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할망은 저승의 존재가 이승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것을 막는, 이승을 자신의 온전한 영역에 두려하는 지상신격적(地上神格的) 존재로도 보인다.

결국, 이승과 저승의 소통이 한 개인으로서의 허웅애기라는 인물의 욕심과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이승과 저승의 갈등, 이승 신격과 저승적 존재의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허웅애기가 약속을 파기하게 된 것은 이웃할망 때문이었다. 할망은 허웅애기가 약속을 파기하도록 유도 하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승으로의 귀환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허웅애기는 명백하게 저승왕과의 약속을 파기하도록 돕는 원조자의 역할이 할망인 것이다.

따라서 허웅애기와 할망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협력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갈등하고 있는 대립적 관계로 추정된다. 허웅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저승적 존재이고 할망은 이승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이승 신격적(神格的)⁸²⁾ 존재이다. 이 둘은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갈등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저승적 존재와 이승 신격적 존재의 갈등을 서사로 풀고 무가로 노래한 것이 <허웅애기본풀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은 허웅애기라는 인물을 내세워 그녀의 모성애를 통해 성취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허웅애기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써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고가 <허웅애기본풀이>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2) 자료 1~4의 오인숙 심방은 허웅애기 본풀이를 심방 말명으로 할 때에나 강권용논문에서 인용한 2002년 김현선의 채록에서 분명하게 청태산 마구할마님이라고 했다. 청태산 마구할마님은 본풀이에서 어떠한 신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에서의 할망은 이승의 신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IV. <허웅애기본풀이>의 신화적 특징과 의의

이번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풀이는 무속신의 내력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 성격을 제주도 무속신화적 관점과 함께 일반 신화로서의 의의를 점검하기로 한다. 이때, <허웅애기본풀이>의 주인공이 여성이며, 이 자료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에서 여성신화적 특징에 대한 해명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1. <허웅애기본풀이>의 여성신화적 특징

<허웅애기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제의에서 <차사본풀이>와 연계되어 구송되는 무가(신화)이다.⁸³⁾ 그런데 현재 조사된 <허웅애기본풀이>는 무가의 형식 이외에도 일반 민담의 형태로 전승되기도 하며, 김매기 노동현장에서 구송되는 서사민요의 형태로 전승되기도 한다.⁸⁴⁾ 그러나 그 원천은 무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가의 경우 임의적으로 창작되는 경우가 드물고, 전승계모가 확실하며, 현재까지 말명으로 뚜렷이 전승된다는 점에서 무가로서의 전승이 가장 오랜 전통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허웅애기본풀이>는 현재 구연자를 알 수 없는 2편의 자료⁸⁵⁾를 제외하고 나머지 15편의 자료 모두가 여성 화자에 의해 구연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심방에 의해 구연되고 있으며, 일반인 여성에 의해 민담으로 구연되면서 대중화의 길을 걷고, 또한 일반인 여성 화자에 의해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요로 구송되고 있다. 삶과 더 밀착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가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구비 문학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허웅애기본풀이>는 허웅애기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바리데기>,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 <당금애기>와 같은 일련의 여성주인공 서사무가와 공통성을 갖는다. 특히 죽어서 저승에 간 허웅애기가 모성애를 바탕으로 죽음 세계를 넘어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한다는 점에서 <바리데기>와 대비해서 살펴

83) 오인숙 심방 증언, 김현선 교수와의 대담, 2002년 3월 26일.

84) 현재 17편의 자료 중 자료 1~7편은 서사무가로 전승되는 자료이고, 자료 8~15편은 민담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자료 16, 17편은 서사민요로 전승되고 있다.

85) 자료 8, 14편은 윤색되어진 2차 자료여서 구연자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불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먼저<바리데기>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씨주상금마마가 왕비를 맞아들인 후 계속해서 6공주를 낳았다. 일곱 번째는 왕자를 보려고 치성을 드렸지만 일곱째 역시 공주였다. 대왕은 일곱 번째 공주에게 옥병에 젖을 짜 넣어 주고 옥함에 담아 강물에 띄워 버렸다. 아기는 석가세존의 인도로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미에게 자라났다.

바리공주가 15세가 되던 해에 국왕전마마가 병환이 위중했다. 청의동자가 양전마마의 꿈속에 나타나 하늘이 정한 아기를 버린 죄로 한 날 한 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버린 아기가 구해다 준 무장신선의 불사약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에 왕은 버린 아기를 찾으라고 하자 충성스러운 한 대신의 노력으로 바리공주를 찾았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불사약을 구하러 저승세계를 지나 신선세계로 갔다. 그곳에서 무장신선을 만나 불사약을 받는 값으로 나무하기 3년, 물고기 3년, 불때기 3년 등 9년 동안 일을 해주고 무장신선과 혼인해 아들 일곱을 낳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 이미 대왕마마는 죽어 있었다. 바리공주는 약려수와 삿살이, 살살이를 가지고 무장신선인 남편과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부모님을 살리려고 돌아왔다. <바리데기>가 숨살이꽃은 숨에 넣고, 삿살이꽃은 뼈에 넣고, 살살이 꽃은 살에 넣고 일영주(日映珠)를 눈에 넣고, 약려수를 입에 흘려 넣으니 한날 한 시에 다시 살아났다.

<바리데기>의 여주인공인 바리공주는 비범한 영웅적 성격이 있다. 바리공주는 신이 한 탄생을 하고 버려지고, 양육되고 위업을 달성하고 귀환한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영웅의 일생 구조를 따르고 있다. 바리공주가 죽어서 저승을 갔다가 저승의 존재 무장신선과 혼인을 했다는 면에서 이승신격과 저승신격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승과 저승의 결합이기도 하다.

<바리데기>와 <허웅애기본풀이>는 무속 제의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라는 갈래적 공통점 이외에도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 자료 모두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저승의 신격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 주는 존재들이 확인된다.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에게 나무를 해주고 물을 길어다 주고 불을 때준다. 허웅애기는 저승의 살림을 맡아서 해 주는가 대부분 베짜기를 했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두 자료는 여성 주인공들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자 공통점일 것이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 병이 걸려 죽음에 이르자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저승세계를 통해 생명수를 구해와 부모님을 구해낸다. 죽어서 저승에 간 허웅애기는 자신이 남겨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밤마다 이승을 방문한다. 이처럼 두 자료 모두에서 강인한 남성이 아니라



연약하다고 인식되어오던 여성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해 보이며, 이러한 특별함을 두 자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 소중하다.

그런데, 두 자료는 여성 주인공이 저승 여행을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저승 여행은 죽음에 임박한 부모를 살리기 위해 감행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행위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행(孝行)으로 이해된다. 반면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의 이승행은 모성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승에 남기고 온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즉 모성애로 인해 그녀는 이승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된다. 부모에 대한 효행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모두 인간의 고귀한 미덕이나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랑인 효보다는 위부터 아래로의 사랑인 모성애가 보다 더 인간 본성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허웅애기본풀이>와 <바리데기>는 여성이 저승 세계를 여행한다는 무속 신화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전자가 보다 원초적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효라는 상대적으로 후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바리데기> 무가가 딸의 부모에 대한 효(孝) 실천이 주제라면, <허웅애기본풀이> 무가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慈愛)가 주제라는 점에서 <허웅애기본풀이>가 더 원시적이고 본원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허웅애기본풀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서 그것도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는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본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이 주인공이고, 그 여성이 저승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무속신화라는 점에서 <바리데기> 무가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원동력은 모성애라는 점에서 <바리데기>가 보여주는 효 사상보다는 보다 더 원초적인 신화 관념을 보여준다. 허웅애기라는 인물은 모성애라는 강한 본성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유일한 신화적 인물인 것이다. 그녀는 바리데기처럼 비범한 탄생과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허웅애기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 민중과 아주 가까운 현실적인 인물이다.

<허웅애기본풀이>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허웅애기와 같은 여성이 모성애를 바탕으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허웅애기본풀이>의 여성신화로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다. 무속 문화의 지속과 전승은 여성들의 신앙심과 지원에 의해 가능했다. 그 여성들과 밀착되어 있던 무속 신화 속에서 여성은 지극히 평범한 존재이면서 또한 모성애라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죽음과 맞서는 비범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2. <허웅애기본풀이>의 일반신화적 의의

<허웅애기본풀이>에 대한 신화학적 접근과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허웅애기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고 규정한 선행연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허웅애기본풀이>를 제의를 잃어버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려지는 특수본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⁸⁶⁾ 그러나 <허웅애기본풀이>는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일반신본풀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허웅애기본풀이>가 굿의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굿의 순서 중에서 시왕맞이를 하고 <차사본풀이>가 불려질 때 그 마지막 부분에 <허웅애기본풀이>가 구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⁷⁾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본 연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누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심방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인숙을 방문하여 그의 말명을 채록한데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본풀이는 저승굿에서 불려졌다는 기록과 연구를 통해 <차사본풀이>와의 연계성이 확인된다.

제주도에서 무너로 50년 이상 활동해온 오인숙심방이 구연한 채록본에서 그 증거를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다. 오인숙 심방은 <허웅애기본풀이>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귀양풀이>할 때 들어간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으면 차사영맞이를 하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이렇듯 <허웅애기본풀이>는 사람의 죽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불려지는 제차임이 확인된다.⁸⁸⁾

<허웅애기본풀이>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일반신본풀이로 볼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 인문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12신의 <열두본풀이>를 말하고 있다.

<허웅애기본풀이>의 일부 자료는 해와 달이 두 개인 혼돈의 시대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⁸⁹⁾ 또한 당시에는 돌과 나무도 다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 자료도 확인된다.⁹⁰⁾ 이처럼 해와 달이 두 개이고, 돌과 나무와 같은 사물과 생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던 시대는 흔히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때라 할 수 있

86) 강권용, 같은 논문, 같은 면.

87) 오인숙 심방 증언, 김현선 교수와의 대담, 2002년 3월 26일 ; 오인숙 심방 증언, 김현선 교수·윤정귀 조사, 2013년 11월 30일.

88) 그러나 <허웅애기본풀이>는 독립된 제차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사본풀이>에 삽화적으로 끼어 들어가 있기에 삽화적 구성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 자료 10, 11번이 이에 해당한다.

90) 자료 9번이 이에 해당한다.

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의 시대 배경과 공통된다.

<천지왕본풀이>는 태초에 천지혼합의 시절이었다가 개벽이 되고 나서도 하늘에는 여전히 해도 돌이고 달도 돌이 있었다. ‘초목과 새, 짐승이 말을 하고, 귀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었다.’⁹¹⁾라는 내용에서 <허웅애기본풀이>의 시대적 배경이 <천지왕본풀이>의 배경, 즉 천지창조의 시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꽃가꾸기 경쟁을 하고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가꾼 꽃은 ‘번성꽃(繁盛花)’이다. 이승에 욕심이 있었던 소별왕은 대별왕을 속이고 꽃가꾸기 경쟁에서 이겨 마침내 이승을 차지했다. 이러한 대별왕 소별왕 형제의 갈등은 마치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할망과 허웅애기가 아이들을 차지하려 벌인 갈등과도 유사하다. 소별왕이 번성꽃, 즉 세상에 생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원천을 속임수로 차지한 것처럼, 할망은 세상의 원천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어린 아이들을 속임수로 지켜낸다. 즉,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아이들은 곧 이승의 생명이며 생명의 꽃인 것이다⁹²⁾. 결국 허웅애기와 할망의 갈등은 생명의 꽃인 아이들을 서로 차지하려는 저승적 존재와 이승의 존재의 다툼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 소별왕의 갈등과 닮아 있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는 모성애의 상징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이다. 허웅애기는 밤마다 이승에 내려와 아이들을 들본다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게 아이들을 막고 대소변조차 방안에서 처리하도록 강요한다. 허웅애기는 저승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생명을 돌보기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이에 할망은 허웅애기를 숨겨 준다고 유인하여 결국은 항아리 속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다. 이로써 허웅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저승에 속하는 존재로 더 이상은 이승을 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때의 허웅애기와 할망은 아이들, 곧 생명의 꽃을 가지고 다투는 점에서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궁 딱님애기와 멩진국 아기씨가 생명꽃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것과는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삼신(產育神) 신화로, 삼신 직능을 가지

91)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6~18면.

92) 생명이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이공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있는 아버지를 찾아 간 아들이 사람 살리는 꽃, 피오를 꽃, 살오를 꽃을 가지고 장자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엄마를 찾아갔다가 이미 죽어있는 엄마를 꽃으로 살려낸다고 했다. 이를 보아도 꽃은 곧 생명인 것이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 역시 멩진국따님 애기는 환생꽃과 번성꽃을 가지고 인간 불도할망으로 내려왔다. 포태를 하고도 출산이 어려운 산모들을 도와 무사히 출산을 시키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꽃이다. 이로 보아 꽃은 생명이고, 생명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멩진국 아기씨가 갈등하는 것을 주요 서사로 하는 제주도 무속서사시이다.⁹³⁾ 동해용궁의 따님은 인간불도의 생불(生佛)을 주는 생불 할망이 된다.⁹⁴⁾

그러나 동해용왕 따님 애기가 인간에게 포태(胞胎)를 시켜 놓고 출산도 못 시킬뿐만 아니라, 양육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허웅애기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을 못하고 죽어버린 것과 같다. 반면 이러한 동해용궁따님애기와 경쟁되는 인물로 멩진국따님애기가 등장하고 있다. 동해용궁따님이 포태는 시키되 산육에 어려움을 겪자, 하늘의 옥황은 인간불도에 들어와서 인간을 번성시킬 수 있는 자로 멩진국따님애기를 천거한다.⁹⁵⁾

인간불도할망으로 가서 인간을 번성 시키라는 명을 받은 멩진국아가씨는 자신을 인간불도할망으로 들여 세우려거든 자신의 요구대로 행착을 차려 달라고 한다. <삼성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멩진국따님애기에 관한 내용을 문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할망이 이젠 아지민 그자 하루 백명이라도 포태는 주고,
열달(十個月)은 채우지 안허난 댕 들 돼가른 내와불고,
일고 으듭들똥아긴, 으듭들 넘영 나민 살고,
으듭들ㄱ지 채우지 못해연 걸매만 세왕
느리와불곡 허난,
어멍 살민 아기 죽고, 아기 살민 어멍 죽고 허멍
하나도 성공이 돼질 안 하니깐,
경해도 동해용궁 할망이 임박스엔 현 이한티 유태를 주고,
포태를 주언 느리웁지 안해부난 사름은 번성(繁盛)이 안웨난
이거 춤 사름을 살리젠 허다그네 죽여질로구나 해서
임박스가 옥황(玉皇)더레 등장(等狀)을 드립데다.
등장을 드난, 옥황상저의선 인간불도 자격 이신 자가 시난
우리가 내리우쿠다.⁹⁶⁾

멩진국 아기씨가 얼굴을 이만큼 들러고 흐는 말이
“절ㄱ찌 뱍지 못흐 아이를 어멍해서 오랜 허십디까” 허난
그때부턴 이 만조대신들이 아자가지고
“말흐는 것만 봐도 인간불도(人間佛道)로 내려시른 즈순(子孫)은 물론

93) <삼성할망본풀이>, 문무병, 같은 책, 173~187면.

94) 문무병, 같은 책, 176-177면.

95) 문무병, 같은 책, 179면.

96) 문무병, 같은 책, 179면.



이제 인간을 번성을 시킬 꺼라고 가까이 들어오라” 허난 가까이 딱 들어가난,
 “너 인간불도로 들어상 즈순을 번성시기라” 허난
 “나를 인간불도 할망으로 들어세우젠 허면,
 나 요구(要求)대로 행작을 즐겨주어사웁니다.”
 “너 요구를 마하라” 허난,
 처음은 은실(銀絲), 은붓(銀筆), 은ㄱ세(銀交刀), 은장도리(銀剪刀) 내여줍서.
 왼손엔 환생꽃을 내여줍서, 오른손에 번성꽃을 내여줍서.
 내여주난,⁹⁷⁾

인용된 문면에서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아이의 생명을 포태시키지만 온전한 출산과 양육을 시키지 못하는 존재이다. 하루에 백 명씩이나 포태를 시키는 왕성한 생식력의 주체이지만, 이러한 왕성한 포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번성에는 문제가 생긴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포태는 시킬지언정 그 생명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잉태된 아기가 불행히도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유산 되는가 하면, 여덟 달만의 조산아(早産兒)로 태어나게 하더라도 살 수 있었지만, 대체로 여덟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아기가 나오는 불행한 일의 연속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명이 살면 아기가 죽고 아기가 살면 어명이 죽는다고 했다. 이는 마치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가 자식들을 많이 낳기는 하지만 어린 자식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의 모성애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벌였던 희생적 양육 활동은 이승에 존재하는 할망에 의해 방해받는다. 결국 허웅애기는 의지와는 달리 아이들의 양육(養育)을 온전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할망과 허웅애기는 출산과 양육의 능력을 대상으로 서로 갈등 대립하던 원초적인 여성신격의 존재들이 아니었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해보는 데에는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이승의 할망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부분에서 근거한다. 할망은 아이들에게 허웅애기가 저승에서 오면 자신에게 알려 줄 것을 말 하면서 은실인가 금실인가 실을 건네준다. 이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멧진국따님애기가 인간을 번성시킬 요량으로 인간불도 할망으로 내려올 적에 출산을 돕기 위한 필요한 도구와 행작을 요구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필요한 도구 중에는 은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추를 해 보는 데에는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이승의 할망이 아이를 지키

97) 문무병, 같은 책, 180면.



기 위하여 아이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부분에서 근거한다. 이러한 면에서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이승의 할망은 실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서로 묶어서 저승적 존재인 허웅애기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의 맹진국따님애기는 인간의 생(生)을 관정하는 생불할망으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인간불도에 먼저 왔지만, 아기들에게 질병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 사(死)를 관장하므로 구삼승할망이 된다. 이 둘은 <창세가>나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처럼 인세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다.⁹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웅애기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나 <차사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과 내용적으로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이들 무속신화들에서처럼 해와 달이 두 개이던 혼돈과 무질서의 시간을 배경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출산과 양육의 문제,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일반신본풀이적 요소를 충만히 갖추고 있다. 아울러 <허웅애기본풀이>는 시왕맞이에서 <차사본풀이>의 후반부에 삽입되어 연행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제차를 갖춘 일반신본풀이로 규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가 특수본풀이라고 한 기존의 연구는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98)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집, 2006, 43~71면.

V. 결론

이 논문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서사무가이자 무속신화인 <허웅애기본풀이>의 전승 양상과 서사적 특징, 신화적 의의를 밝힌 연구이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자료적 가치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제주도 본풀이로써 신화적 위상이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미흡하거나 방기(放棄)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에 관해 주목하고, 이 신화가 이승과 저승이 분리하게 된 기원을 밝힌 유일한 신화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II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 자료의 전승 양상과 자료별 특징, 공통적인 서사단락을 추출하였다. 우선 자료의 전승 양상을 확인하고 자료의 확충을 위해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채록한 경위를 밝히고 총 17편의 자료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이후 각 자료마다 지니고 있는 특징을 밝히고 이를 비교 검토한 결과 17편의 자료는 각 자료마다 서두와 후일담, 세부적인 화소의 차이가 존재하나 중심인물과 핵심적인 사건을 모두 공유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17편이 공유하는 공통서사단락을 추출하였다.

III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 분석과 중심이 되는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내용과 주제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등장인물로는 허웅애기, 저승왕, 저승차사, 아이들, 할망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허웅애기와 할망이 서로 협조하고 있는 관계이나 이면적으로는 각각 저승과 이승을 대표하는 인물로 심각한 갈등을 벌이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갈등은 곧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다가 분리하게 되는 중심사건을 이루게 된다. 결국 허웅애기와 할망의 갈등은 곧 저승과 이승의 갈등이며, 결과적으로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각 저승과 이승을 대표하는 신격적 존재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IV 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가 지니는 여성신화적 전통과 일반신화적 특징을 해명하였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주로 여성화자들에 의해 전승되며, 특히 여성주인공의 이계여행이라는 점에서 <바리데기>와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바리데기>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주제 의식으로 한다면, <허웅애기본풀이>는 엄마의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서사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때 효와 모성애 모두 인류가 지닌 도덕적, 본능적으로 소중한 미덕이

나 효보다는 모성애가 보다 여성의 본능에 가깝다는 점이 이 신화의 원초적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허웅애기본풀이>는 그간 특수본풀이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가 내용적, 형식적으로 <천지왕본풀이>, <차사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일반신본풀이임을 새롭게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허웅애기본풀이>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이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연구자의 명명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온당하지 않다. <차사본풀이>에 삽화적으로 운용되는 부수적 본풀이이기는 하지만, 본디 독립적 의의가 있는 본풀이임이 확인된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그것이 분리되는 심각한 의미를 가진 본풀이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본풀이는 설화와 민요의 관점에서조차 널리 전승되며, 이 점이 이 본풀이의 존재가치를 보장한다.

둘째, 이승과 저승의 세계관에 기초한 소박한 의미의 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본풀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자료인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승과 저승이 원래는 소통할 수 있는 세계였으나, 이후 이 두 세계가 영원히 분리되어 지금까지 죽어서 저승에 간 사람은 더 이상 이승에 올 수 없는 한계가 지어진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라고 하겠다.

셋째, 이 본풀이는 신화적 의미와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 주인공이 여성이며, 주로 여성 심방과 구연자들에 의해 무가, 설화, 민요로 구연된다는 점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여성신화적 특징이 있다. 또 그 내용상 전반적으로 창세신화, 생사기원신화, 생육신화 등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신본풀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간 조사와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제주도의 <허웅애기본풀이>라는 소중한 자료를 하나 복원하고 그 지위를 온전하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생사관이나 이승과 저승에 관한 신화가 부족한 실정인데, <허웅애기본풀이>로 인해 자료적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에 <바리데기>, <차사본풀이>로 집중되었던 저승세계와 이계관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연구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허웅애기본풀이>는 평범한 여성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민중들의 소박한 저승관념이 무속적 세계관과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차후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연구의 시야를 확대해 <차사본풀이>, <바리공주>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무속적 생사관과 이계관 등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임석재, 『(임석재전집9)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제주도편), 평민사, 1992.
- 제주대 국어교육과, 허운애기,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87.
- 제주대 국어교육과, 허운애기, 『백록어문』 제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94.
- 제주대 국어교육과, 애기엄마의 혼, 『백록어문』 제16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2000.
- 진성기, 『남국의 전설』, 박문출판사, 195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9-3(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3.
- 현용준,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 김현선, 『한국 무조신화 연구』, 미간행본(2013년).
- _____, 『허운애기본풀이』의 정체와 기여, 경기대학교 토요스터디 발표 원고, 2012, 10, 27.
- _____, 『허운애기본풀이』 몇 가지 의문과 해소, 경기대학교 토요스터디 발표, 2013, 12, 07.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진성기, 『신화와 전설』, 태화인쇄, 200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2. 연구논저

- 강봉수, 「제주도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일반신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韓國民俗學』 24집, 제주도연구, 2003.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韓國民俗學』 43집, 2006.
- 김현선, 「<베포도엮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3.
- 강권용, 「특수본풀이연구」,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_____,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비교」, 『고시가연구』 3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 1999.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36집, 2011.

[부록] 허웅애기본풀이 전체 자료

자료1. <허웅애기본풀이>

제보자 : 오인숙/채록일 : 2013/ 11/ 30 채록장소 : 오인숙심방택(심방말명으로 구연)
녹음·정리 : 윤정귀

※ 허웅애기는 차사본에 있으며, 큰굿할 때, 구연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귀양풀이를 하는데, 먼저 <차사본풀이>를 풀고, 이어서 바로 <허웅애기본풀이>가 들어간다. 이러한 말은 채록 시 오인숙 심방한테 직접 들은 것이다.

엔알이라 옛적에 허웅애기가 사옵네다~~
어양~~애기들 열 다섯 밑에 어린 즈손들 삼형제 떨어두고/ 저승웅기난/
운다분다 저승에 살생각이 없었구나/
염라대왕님이 어떠헌/ 일이/ 데연느냐/
우리집이 부모조상 없는 애기들/ 삼형제 떨어두언 저승~오난
저승에서 살/수가 엇습네다/
그러면 이/밤 저/밤 / 밤중 야삼경에
칠판에 끔을/ 발아놓아/ 그꿈 몰르기 전에
그 애기들 가진/ 모든걸 치다꺼리
허여두영 올/수가 있겠느냐//
어서걸랑 기영 허옵소서
인간에 이/밤저/밤 밤중 야삼경에
너려온다.
이애기들 삼형제/ 빨래영 입정/두/곡 머리빗겨두곡
밥혜영 맥여 두고~~/ 그 꿈 몰름제에/ 메칠을 들~어 갔구나
동넛집이 청태산에 마고 할망이 오랑
애기들에 너네들은 부모조상 없어도/ 어땡허난 / 옷도 깨졌이 빨앙입고
머리도 깨졌이 빗곡 꿰염느냐/
어머님이 이/밤 저밤/ 밤중 야삼경에 오랑
모두헤여두영 가옵네다/
넬 저녁도 오겠느냐/ 읍네다
어머님 오거든 날고라/ ㄱ라도라
어서걸랑기영합서

이밤저밤 밤중 야삼경에/ 어명이 오랏구나
 할마님 한티안/일러시난
 그 할마님 들어오곡/
 오늘랑/ 가지/말라/
 안고팡에들어가고지새독 속에 놓안
 두께를 덮겼고나
 뒷날 하루는/ 칠판에 꿈이 몰라도
 허궁애기/ 아니 들어간다/
 어찌여 꿈이 몰라도 허궁애기 아니 들어온다/
 강림스재 그라 가건 돌아 오랜되었구나
 허구보난 아무것도엿어 좃을 수가 없었구나
 지붕 상상조치미루 입구 상냥/ 올라거고 상마루를 웨이더더
 안고팡을 들러다 보난 지새독/속에 노안 두께를 더졌구나/
 몸천을 돌양갈 수 없었더라/
 혼만뵈져숨이 갔구나/
 그때부터는 인저 그전에는 이저 젊은 사람들/죽으민 이밤저밤 밤중 야삼경엔/ 인간에
 돌아오랑 밤은살고/ 낮인 저승가고 웨였는데 / 그때 부터는 한번가민 칠년이나 말련
 이나 인간에 돌아오지 못하는법 / 법지법을 마련헤여있습네다.

자료2.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말로그우연> 채록·정리 : 윤정귀 2013/11/30 채록장소 : 오인숙심방택

허궁애기가 이제 열 다섯 전에
 딸 애기들 삼 형제를 버려돈
 저승을 갔어 저승을 가난 막
 운다분다 하명 자꾸해 가난 염라대왕이 왜 강 이제 운다분다 헤영 힘드나난
 저승을 오난 부모조상 없는애기 치마가에 둘러넌 애기 이제 삼형제를 떨어뵈
 이 애기 생각하능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칠판에 꿈을 빠까봐도
 그 꿈 물롬째에 이밤과 저밤 밤 중에 가거냉에
 그 애기들 다 차닥꺼리 해 동 올 수가 있겠느냐
 경 험서네 이제 맨날 저녁 이제 칠판에 꿈 바까봐도 그 꿈 물롬전에 인간에 이밤 저

밤 밤중에 느려오랑 애기들 다 옷 빨아줘 두곡 밥해조 두곡 머리 빗겨줘 두곡
 그냥 이제 자꾸 밤마다 가서 저승을 가난
 동네 할망은 야 애기들아 너네들은 어떠하난 어멍아방 없어도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밥은 어떻먹곡 머리도 깨끗이 누기가 빗겨 주느냐?
 옷도 깨끗이 입고 머리도 그냥
 이밤저밤 밤 중에는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왕
 다~해동 갑네다.
 영 허난 할망은 그 사람을 이제 저승드레 다시 못 가게 허젠
 넬 도 오느냐? 예
 오건 어멍 오면 그르라 너네 어멍 오면 돈돈이 내가 곱겨주마 그난 이제
 지네 어멍 오난 할망오난 그라부씨 고난에 이제 딱시랑 저승 가지말라
 안고팡 가넨 지새독 소곱에 항 두께를 덮어분게라 두께를 덮어부난
 저승에서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아떠허난 허궁애기가 칠판에 꿈이 말라도 아니완젠
 강 돌아오랜 오랜부란에 이젠 어씨서 없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으나난
 지붕 상마루 가내 이제 그내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지붕위에 혼 불가 닳제 이제는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했지마
 는
 지붕우에서 불리났어개난
 지붕우에 올라가이 안고평을 곱어다 보난 항소곱에 놓아
 두께 덮어분거라 두께 덮어부난 몸은 돌아갈 수가 없으나 혼만 빵 가빋어
 혼만 빵 가부난 뒷날은 할망은 이제 시간 넘어난 안가실테쥬 해여 오란
 항두께를요랑 내노안 아이들이 죽어분거 아녀 혼 빵 가부난
 강 이제 그때 부터는 그전에는 젊을 때 죽은 사람은 밤에 오락닥 낮에 갔당 어둑헌
 밤에들은 다 오랑 애기들 보고 다 집안 돌아보고 했지마는 그때 부터는 혼 빠가고
 난 후제는 다시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오는 법을 설유해 분거라.
 한 가며는 생전 철년이고 말년이고 다시 못 오는거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죽으면 밤에오고 낮엔가고 개나신디 그거
 차사본풀면 허궁애기본 풀면 다 된거.

자료3. <허웅애기본풀이>

구연 : 오인숙

채록 : 김현선, 채록일자 : 2013/8/26 채록장소 : 오인숙심방택

허궁애기가 스른 둘에 죽언
 딸 성제 내비돈
 저승 죽언 들어 가난
 운다운다. 이제 막 염라대왕님한테 막 등장을 들어서
 그냥 무사경으로 비나난
 부모조상 없언 할망 할아방도 아무도 친척간도 없언
 딸 성쩨 이젠 치마가에 둘러건 내비도 노난
 저승을 살수는 없어덴
 계민계민 칠판에 꿈을 빠까놔도
 그 꿈 톨로기 전에 밤에
 그 꿈 몰러기 전에 불금제레
 그 애기들이랑 다 치다꺼리 해 주도 모하 주겠나
 그래갖고 이제 메칠저녁 나돌아
 메칠저녁 나도난
 동네 할망이 애기들이
 아무도 없는 애기들이 깨끗하게
 옷도 깨끗이 입고 머리도 그냥
 야~ 애기들아~
 너이넨 어명도 아방도 아무도 없응뒤
 누개가 옷을 빨아주멍 누개가 머리 빗겨 줘시 하난
 이밤저밤 방통 야삼경에 우리 어머니가 오랑
 다~해동 갑네다.
 그래 그할망은 이제 곱저 주므로 이제 돈등에 곱잔 다시 못가게 하므로, 다시랑 오랑
 날더러 고려라.
 ‘어명 다시 저승 못가게 곱저볼게’
 구래 난 아제 그 애기들은
 어명 오시난 고르가넨
 그래 설운 애기가 다시 가지말랜
 고평에 내가랜 향소곶에 들여난
 두께 덮어 분게라.
 두께 덮어부난
 저승선 이제 그 꿈 몰라도 안가거든
 톨가도 안가난
 이제 강림 차사를

강림이를 보낸거라
 어떠한 허궁애기가 안와분저
 오란 훗아봐도 없은간
 이젠 지붕 상뜨루에 올라가
 그 고향간을 굽어보난
 가세독 소굽에 안잔
 두께를 덮어분거라
 그냥 돌아 갈순 업으난 혼만 뽑아 가분거라 혼만,
 혼만 빵 가부난 글로 부터는 오지 못해낸
 그전에 죽은 사람들은 밤에 자꾸 오락닥 갔닥했지
 그때부터는 혼빵 한번 가부난
 다시 오지 못하난 이제
 이제 그냥 한번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법 생긴 것이지~~.

자료4.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심방(여1927) 구연,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002. 3. 26. 김현선 조사.

옛날 옛적에
 허궁애기 서른 두살 나던 해월에
 딸 삼형제 놔두고 인간 아기되어 저승에 들어사난
 저승에서 비새글이 올라 본다 해여가니
 열래대왕님이
 “어떤 일로 우느냐?”
 “우리집이 부모조상 없는 애기덜 딸 삼형제 버려두고
 치마작에 덮는 애기덜 두어돈 저승오난 저승에서 살수가 어습네다”
 “그러며는 칠판에 꿈을 바까놓고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간에 가고 애기덜 머리귀밥 출려두어 두고 그 꿈 모르기 전에 저승으로 들어
 올 수 있겠느냐”
 “있습네다”
 그러거든 가랜 해연에 이승덜에 보내시미
 2,3일 동안 애기덜 머리 기밥 출려두고 저승으로 들어산다.

동네에 청태산이 마구할마님이 호를 날은 이 애기덜 보고
 “너테덜은 어떠영허난 부모조상 없어도 옷도 깨끗허고 머리도 깨끗허고 밥은 누
 게가 출려주난 먹겠느냐”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 되민 어머니가 저승에서 오랑 우리덜 깨끗허게 다 출
 려주고 다시 저승덜에 가옵네다”
 “오늘밤도 오겠느냐?”
 “옵네다.”
 “오늘밤에 오거든 날고라 고라주면은
 너네 어머니 돈돈허게 잘 곱져주마”
 “어서 걸랑 기영협서”
 그날밤인 어머니가 오랏구나 이 애기덜은 할마님안티 가고 어머니 오라수텐 고
 라부니
 할마님은 오란
 “설은 얘기야 매날 밤이 가지말라 나가 돈돈히 잘 곱져주마”
 안고팡에 들어가고 지새독 소곶에 디려노안 뚜깨 더꺼간다.
 저승에선 시간 넘어근 칠판에 꿈이 몰라도 아니 들어산다
 “강림이야 이승 가고 저 허궁애기 돌양오라 시간이 넘는다 아니오는구나”
 이제는 이승덜에 강림이가 오랏구나
 허궁애기 돌양가져 오랏구나 허궁애기 본매본단
 지봉상상 조치머루 이꾸성냥 올라가고 안고팡을 곱어보난 지새독 속에 디려놓고
 향두께를 더꺼꾸나 몸체는 돌양갈 수 어섯더라 본진만 빠아전 저승덜에 들어간
 다.
 그때부터는 허궁애기가 다시야 인간에 돌아오지 못해였구나 그때거치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간덜에 혼 번 죽은사람 돌아오는 법이 이시민 지금도 그럴
 수가 이실건디
 지금은 혼 번 가민 다시 혼 번 저승에서 이승 못 내오는 법이 법치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료5. <허웅애기>

<허웅애기>, 고순안심방 구연,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2013. 8. 26, 김현선조사.

옛날에 이제 강림이가 인간에 내려서서 칠십은 무례요 팔십은 전명으로 적베지를

부찌서 오래연 강림이를 보내며는 가메기가 까옥까옥해가난 너도 강게 나도 강게난 가메기 전 널개에 부찌꺼멘 가그넨 칠십은 무례요 팔십은 천명으로 부찌등을 해연 가 단 보난 물 잡는 사람이 있어 물 백정 산담 위에 가메기 앉아서 까옥까옥 피라도 얻 어 먹어지까 물발톱에 있는 양 옆에 있는게 푹딱 놀아나부난 이제 이녀 마침 시까만 푹딱 놀아나 부난 적베지는 알래로 떨어지난 구렁이는 물에 들어가 부난 구렁이는 나 와 뿌난 열 번 도환생을 한구다. 그 ㄱ 큰 말도 잊어불고 들은 말도 잊어불고 어른 아 이 남녀노소 다 잡아간거라 다 잡아갈 때에 허궁애기가 어린 아기들랑 머리국밥을 냇 질 못해서 다 우리들은 안 가질 못해서 가난에 이제 난 허궁아긴데 이제 이세상 저세 상도 오래내난 왔싱게 아기들 돌인 애기 이제 물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기들을 이제 머리국밥 내와구당 그래 내서 난 천장판⁹⁹⁾에 꿈바까도 이 꿈 돌르기 전에 오라 그래 이 시상에 와난 아기들 머리국밥 내따부난 저싱갈 시간 잊어분거든 잊어부나네 이싱제 저싱제에 이제 범지 범을 마련

이싱사람이랑 이싱법을 마련하고 죽으면 저싱법을 마련해서 이제 옛날은 이제 담닥 자 아넘니까 이제 산당은 이싱과 저싱을 곱을 갈라그네 범지 범을 마련 그래 허궁아 기가 그 때문에 허궁아기 때문에 저싱 이싱법을 이제 이싱도 왔다가 저싱도 가고 저 싱갔다가 이싱을건데 허궁아기 때문에 이제 못 갔다 해서 그 법으로 이제 마련한거 라.

자료6. <허웅아기>

구연 : 고순안심방 구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11. 01. 28, 채록 : 강소전 전사: 윤순희

<허웅아기>

저싱은 가난

염라왕이 강림이ㄱ라

“너 인간에 강 칠십은 고레에 팔십은 천명으로강 적베질 부찌똥 오랜” 허난 “결랑기 영협센.” 강림이가 허울허울 나오당 가메기가 까옥까옥 해 가난, 너도강게 나도강게 가메기 젓늘게레 부찌똥다. 가메기는 오단보난, 물 백정놈은 물을 잡암시난 물피 혼점 얻어먹어보져, 산담 우이 올라상 공글락 까옥까옥 해가난, 물발톱은 ㄹ 더레 놓은게 마침시카부텐 푹딱허게 놀아나부난, 구렁이물어들어갑네다

99) 구연자는 천장판이 바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가도라 까옥까옥까옥 헤여도, 이거듣지도아녀고 데답도아녀다. 경허난 구랭인 아읍
번죽어, 열 번 도환싱허러는 법이우다

그말허단보난

글은 말도 잇어불고, 들은말도 잇어부난, 므을므을 촌촌탱기멍,
아이올디 젊은이읍서 젊은이 올디늑신네읍서, 늑신네올디, 아이읍서 저싱더레,
타 잡아가부난 저싱은 공스 절체를 못헤여가는구나 허궁아가기 저싱더레 오랜허난 오
단완 보난 “아이고 어린아기덜 머리국반 못네 네와뵤 오랏수다. 이시상에 강 애기덜
머히국반 네와뵤 오쿠다”“걸랑 기영허라. 천정판에 강 꿈을바깥 입꿈 물르기전에오
렌”

“걸랑기영허저”

이시상에 오란 어린아기들 이거

남녀 구별법을헤여간다.

저싱갈 생각은, 시간을 잇어부렀구나~

허궁아가기가경 거짓말 헤여부난, 이싱광 저싱, 네웨법을 마련헤영
저싱 이싱법을, 굽을 갈릅네다.

자료7. <허용아기本>

<허용아기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21-623면.

(앞 부분 생략)

콩대기가¹⁰⁰ 딸¹⁰¹ 성쩨¹⁰² 낳고

그럭저럭 지나가난¹⁰³,

훈술¹⁰⁴ 난¹⁰⁵ 애기에¹⁰⁶

두술¹⁰⁷ 난 애기에

시술¹⁰⁸ 난 애기가

100) 콩아가기

101) 딸

102) 형제를

103) 지나가니까

104) 한살

105) 된

106) 야기에

107) 두살

되여가난¹⁰⁹),
 저싱선¹¹⁰) 콩대길 돌아오랜¹¹¹) 하니¹¹²)
 흘수¹¹³) 웃이¹¹⁴)
 저싱¹¹⁵) 염여왕이서¹¹⁶)
 오랜¹¹⁷) 혼¹¹⁸) 일이라
 아니갈 수가 웃언¹¹⁹).
 저싱을¹²⁰) 가난¹²¹),
 밥 떡쟁¹²²) 하여도¹²³) 울어지곡¹²⁴),
 하간¹²⁵), 얘기¹²⁶) 생각흐는¹²⁷) 계¹²⁸)
 수심 근심으로 울어가난¹²⁹),
 저싱¹³⁰) 염여왕이선¹³¹)
 “어떠난¹³²), 너, 밥도 아니먹어지곡¹³³)
 성을¹³⁴) 못올람시닌¹³⁵)?

108) 세살
 109) 되어가니가
 110) 저승에서는
 111) 데려오라고
 112) 하니
 113) 할
 114) 없이
 115) 저승
 116) 염라대왕에서
 117) 오라고
 118) 한
 119) 없어서
 120) 저승을
 121) 가니까
 122) 떡자고
 123) 하여도
 124) 울어지고
 125) 모든
 126) 얘기
 127) 생각하는
 128) 것이
 129) 울어가니까
 130) 저승
 131) 염라대왕에서는
 132) 어떻게 하니까
 133) 아니먹어지고
 134) 性이

무신¹³⁶) 수심기가 시년¹³⁷)?
 흐난¹³⁸).
 “긏도¹³⁹) 딸곡¹⁴⁰) 이르도 맏셔¹⁴¹).
 어린 애기도¹⁴²)
 혼술¹⁴³) 난 애기,
 두술¹⁴⁴) 난 애기,
 세술¹⁴⁵) 난 애기에,
 부모 초상¹⁴⁶) 백발노장도 모사¹⁴⁷) 있고,
 아기덜¹⁴⁸), 하간¹⁴⁹) 생각을 흐는¹⁵⁰) 계¹⁵¹)
 수심이 되곡¹⁵²), 근심이 됩네다¹⁵³).”
 “기영¹⁵⁴) 흐거든에¹⁵⁵)
 낮¹⁵⁶)이랑 저상에 들어오곡¹⁵⁷)
 밤¹⁵⁸)이랑 인간에¹⁵⁹) 나강그네¹⁶⁰)
 경¹⁶¹), 부모덜¹⁶²) 공경 흐고¹⁶³)

-
- 135) 못오르고 있느냐고?
 - 136) 무슨
 - 137) 있느냐고
 - 138) 하니까
 - 139) 말하지도
 - 140) 말고
 - 141) 마십시오
 - 142) 아기도
 - 143) 한살도
 - 144) 두살
 - 145) 세살
 - 146) 조상
 - 147) 모셔
 - 148) 아기들
 - 149) 모든
 - 150) 하는
 - 151) 것이
 - 152) 되고
 - 153) 됩니다.
 - 154) 그렇게
 - 155) 하거든에
 - 156) 낮에랑
 - 157) 들어오고
 - 158) 밤에랑
 - 159) 인간세계에
 - 160) 나가서는

애기덜¹⁶⁴) 그늘루라¹⁶⁵).”
 “케민¹⁶⁶) 감스 후우다¹⁶⁷).”
 글지후제부터¹⁶⁸) 콩대긴¹⁶⁹)
 밤인¹⁷⁰) 인간일¹⁷¹) 나오란¹⁷²)
 혼술¹⁷³) 난 애긴¹⁷⁴) 좇¹⁷⁵) 주곡¹⁷⁶).
 두술¹⁷⁷) 난 애긴¹⁷⁸) 밥 주곡¹⁷⁹).
 시술¹⁸⁰) 난 애긴¹⁸¹) 옷 하여¹⁸²) 주곡¹⁸³)
 머리 빗엉¹⁸⁴) 땅주곡¹⁸⁵).
 기영¹⁸⁶) 하여가난¹⁸⁷)
 어멍¹⁸⁸) 웃인¹⁸⁹) 애기¹⁹⁰) 닭지 아녀연¹⁹¹),

-
- 161) 그렇게
 - 162) 부모들
 - 163) 공경하고
 - 164) 아기들
 - 165) 보살피라(키우라)
 - 166) 그러면
 - 167) 감사합니다
 - 168) 그로후에부터
 - 169) 콩아기는
 - 170) 밤에는
 - 171) 인간계에를
 - 172) 나오라서
 - 173) 한살
 - 174) 아기는
 - 175) 좇
 - 176) 주고
 - 177) 두살
 - 178) 아기는
 - 179) 주고
 - 180) 세살
 - 181) 아기는
 - 182) 옷하여
 - 183) 주고
 - 184) 빗어서
 - 185) 땅아주고
 - 186) 그렇게
 - 187) 하여가니까
 - 188) 어머니
 - 189) 없는
 - 190) 아기
 - 191) 아니하여서

애기들이192) 잘 낀193).
 흐를날은194) 동넛195) 사름들이196)
 놀레197) 들어오란198)
 애기199) 드는200) 할망그라201).
 “어뎡 흐난202) 야네들은203)
 어뎡204) 웃인205) 애기라도206)
 유리207) 닻지 아녀게208)
 웁209) 머리영210) 웃이영211)
 곱게 흐여점쭈광212)?
 할망네라213) 웁214) 흐여집네깡215)?“
 흐난216).
 흑 곱217) 옥은218) 애긴219) 율이220) 샷단221).

192) 아이들이
 193) 커서
 194) 하룻날은
 195) 동넛
 196) 사름들이
 197) 놀러
 198) 들어오라서
 199) 아기
 200) 보는
 201) 할머니보고
 202) 어떻게 하니까
 203) 이아이네들은
 204) 어머니
 205) 없는
 206) 아기라도
 207) 고아
 208) 아니하게
 209) 이렇게
 210) 머리며
 211) 웃이며
 212) 하여지고 있습니까?
 213) 할머니네가
 214) 이렇게
 215) 하여집니까?
 216) 하니까
 217) 조금
 218) 약은(큰)
 219) 아기는
 220) 옆에

“무사²²²) 우리 어멍²²³) 웃손²²⁴)?
 우리 어멍 잇수다²²⁵).”
 “어디²²⁶) 시니²²⁷)?”
 “밤인²²⁸) 오랑²²⁹)
 우리 옷혀²³⁰) 주곡²³¹)
 밥혀²³²) 주곡²³³).
 머리 빗져²³⁴) 주어두엥²³⁵)
 낮인²³⁶) 갑네다²³⁷).”
 경혀연²³⁸).
 동넛²³⁹) 사름은²⁴⁰) 가불고²⁴¹).
 애기²⁴²) 드는²⁴³) 할망은²⁴⁴)
 손지²⁴⁵)라²⁴⁵).
 “케난²⁴⁶), 느네²⁴⁷) 어멍²⁴⁸) 밤인²⁴⁹) 오느냐?”

-
- 221) 있다가
 - 222) 왜
 - 223) 어머니
 - 224) 없어요?
 - 225) 있습니다
 - 226) 어디
 - 227) 있니?
 - 228) 밤에는
 - 229) 오라서
 - 230) 옷하여
 - 231) 주고
 - 232) 밥하여
 - 233) 주고
 - 234) 빗져
 - 235) 주어두고서
 - 236) 낮에는
 - 237) 갑니다
 - 238) 그렇게 하여서
 - 239) 동넛
 - 240) 사름은
 - 241) 가버리고
 - 242) 아기
 - 243) 보는
 - 244) 할머니는
 - 245) 손주보고
 - 246) 그러니까
 - 247) 너희

“예, 읍네다²⁵⁰.”
 느네²⁵¹ 어멍²⁵² 오거들랑²⁵³“이제낙이랑²⁵⁴
 날²⁵⁵라²⁵⁵ 굴으라²⁵⁶
 느네²⁵⁷ 어멍²⁵⁸ 못가게 헉²⁵⁹.”
 “어떻²⁶⁰ 헉²⁶⁰
 할망²⁶¹라²⁶¹ 굴읍네까²⁶²?”
 “느²⁶³ 흘목에²⁶⁴ 춤썰²⁶⁵ 즐라매²⁶⁶
 나 흘목에 춤썰 즐라매²⁶⁷.
 어멍²⁶⁸ 오건²⁶⁹
 종긱종긱 춤썰을²⁷⁰ 잡아당기²⁷¹
 어멍²⁷² 온 줄 알²⁷³앙²⁷³ 오마.”
 “할마님아, 할마님아,
 흘목에²⁷⁴ 춤썰을²⁷⁵ 즐라매²⁷⁶민²⁷⁶”

-
- 248) 어머니
 - 249) 밤에는
 - 250) 읍니다
 - 251) 너희
 - 252) 어머니
 - 253) 오거들랑
 - 254) 이 저녁에랑
 - 255) 나보고
 - 256) 말해라
 - 257) 너희
 - 258) 어머니
 - 259) 하자
 - 260) 어떻게 하여서
 - 261) 할머니고보고
 - 262) 말합니까?
 - 263) 너
 - 264) 손목에
 - 265) 참실
 - 266) 동여매고
 - 267) 동여매어서
 - 268) 어머니
 - 269) 오거든
 - 270) 참실을
 - 271) 잡아당기면
 - 272) 어머니
 - 273) 알아서
 - 274) 손목에

문에 걸어지영²⁷⁷⁾
 등길²⁷⁸⁾ 수라²⁷⁹⁾ 웃입네다^{280).}”
 “계건²⁸¹⁾, 오즘 ㅁ릅다²⁸²⁾ 흐영²⁸³⁾,
 오즘 누는 핑계 흐영²⁸⁴⁾
 등기라^{285).}”
 그날 처낙은²⁸⁶⁾ 어멍이²⁸⁷⁾ 들어오니
 “어머님아, 난 오즘 ㅁ릅수다^{288).}”
 “저 요강이²⁸⁹⁾ 강²⁹⁰⁾ 누어불라^{291).}”
 “내가²⁹²⁾ 나곡²⁹³⁾
 안내서는²⁹⁴⁾ 놀 수가 읍습네다^{295).}”
 “어머님아, 똥이 ㅁ릅수다^{296).}”
 “흐건²⁹⁷⁾ 통시에²⁹⁸⁾ 강²⁹⁹⁾ 누어불라^{300).}”
 이젠³⁰¹⁾ 똥누레³⁰²⁾ 나가는 핑계

-
- 275) 참실을
 - 276) 동여매면
 - 277) 걸러지어서
 - 278) 당길
 - 279) 수가
 - 280) 없습니다
 - 281) 그러면
 - 282) 마립다
 - 283) 하여서
 - 284) 하여서
 - 285) 당기라
 - 286) 저녁에는
 - 287) 어머니가
 - 288) 마립습니다
 - 289) 요강단지애
 - 290) 가서
 - 291) 누어버려라
 - 292) 똥새가
 - 293) 나고
 - 294) 집안에서는
 - 295) 읍습니다
 - 296) 마립습니다
 - 297) 그러면
 - 298) 변소에
 - 299) 가서
 - 300) 누어버려라
 - 301) 이제는

흥연³⁰³)
 지³⁰⁴) 할망신 데레³⁰⁵)
 춤썰을³⁰⁶) 종긱종긱 등기난³⁰⁷)
 할망이³⁰⁸) 나완³⁰⁹).
 “아이구! 설룬³¹⁰) 애기³¹¹)
 느³¹²) 오랏구나³¹³)!
 다시 가지 말라
 다시 가지 말라.”
 “아이강³¹⁴) 뽀네까³¹⁵)?
 아맹해도³¹⁶) 가사³¹⁷) 홉네다³¹⁸).”
 “가지 말라 가지말라.”
 “어땡 흥영³¹⁹) 아이가집네까³²⁰)?”
 “늘랑³²¹) 문안에 웃앙³²²) 문을 중그곡³²³).
 우리랑 먼 올래에³²⁴)
 가시 쌍민³²⁵)

302) 똥누러
 303) 하여서
 304) 제
 305) 할머니한테로
 306) 참썰을
 307) 당기니까
 308) 할머니가
 309) 나와서
 310) 애달은
 311) 아기
 312) 너
 313) 오랏구나!
 314) 아니가서
 315) 뽀니까?
 316) 아무리해도
 317) 가야
 318) 합니다
 319) 어떻게 하여서
 320) 아니가집니까?
 321) 너랑
 322) 앉아서
 323) 잠그고
 324) 올래에(門?에), 집골목에
 325) 쌍면

체스들이³²⁶ 못온다.
 우리가 못오게 한마³²⁷).”
 경헌연³²⁸),
 뒷넉날은³²⁹ 문을 잡아으진디³³⁰).
 큰딸애긴³³¹ 구들³³² 썰언³³³ 불 살르고³³⁴)
 마리³³⁵ 썰언³³⁶ 불 살르고³³⁷)
 정지³³⁸ 썰언³³⁹ 불 살르고³⁴⁰)
 씨어명은³⁴¹ 뱃겼들로³⁴²)
 통쇠³⁴³ 채완³⁴⁴ 걸어두고,
 먼 정애³⁴⁵ 가시 비여단³⁴⁶ 쌓고
 헌연³⁴⁷)
 그 날, 저 날, 으라³⁴⁸ 날을 아니간³⁴⁹)
 건디엄시난³⁵⁰)
 저싱³⁵¹ 염여왕은³⁵² 지드리단³⁵³ 아니오난³⁵⁴)

-
- 326) 차사들이
 - 327) 하마
 - 328) 그렇게 하여서
 - 329) 이튿날은
 - 330) 잡아앉은데
 - 331) 큰딸아기는
 - 332) 방
 - 333) 쓸어서
 - 334) 살르고
 - 335) 마루
 - 336) 쓸어서
 - 337) 살르고
 - 338) 부엌
 - 339) 쓸어서
 - 340) 살르고
 - 341) 시어머니는
 - 342) 바깥으로
 - 343) 자물쇠
 - 344) 채워서
 - 345) 올래에(門?에), 짐골목에
 - 346) 빼어다가
 - 347) 하여서
 - 348) 여러
 - 349) 아니가서
 - 350) 건디고 있으니까
 - 351) 저승

심어오랜³⁵⁵ 혼난³⁵⁶.
 체스님은³⁵⁷ 나오란³⁵⁸
 “이디 허궁애기가 어디 싯수가³⁵⁹?”
 씨어멍이³⁶⁰ 나오란³⁶¹.
 “그년 아니가젠³⁶²
 올래에³⁶³ 가서 싯고
 문 중간³⁶⁴ 들어앗앗수다³⁶⁵.”
 “게엔³⁶⁶, 어떻 혼민³⁶⁷
 그년 잡아가질 수가 십네까³⁶⁸?”
 “지봉 상마루로³⁶⁹ 강³⁷⁰
 혼이나 빵³⁷¹ 갑서³⁷².”
 그젠³⁷³ 제스가³⁷⁴ 지봉 상마루로³⁷⁵ 간
 혼을 뺐³⁷⁶ 가부난³⁷⁷
 그만 죽어지연³⁷⁸

-
- 352) 여라대왕은
 - 353) 기다리다가
 - 354) 아니오니까
 - 355) 잡아오라고
 - 356) 하니까
 - 357) 차사님은
 - 358) 나오라서
 - 359) 있습니까?
 - 360) 시어머니가
 - 361) 나오라서
 - 362) 아니가려고
 - 363) 올래에(門?에), 집골목에
 - 364) 잠가서
 - 365) 들어앗앗습니다
 - 366) 그러면
 - 367) 어떻게하면
 - 368) 있습니까?
 - 369) 상마루로
 - 370) 가서
 - 371) 뽑아서
 - 372) 가십시오
 - 373) 그제는
 - 374) 차사가
 - 375) 상마루로
 - 376) 뽑아서
 - 377) 가버리니까

다신³⁷⁹) 허궁애기가 이성을³⁸⁰) 돌아오지
 못³⁸¹)
 그 법으로 금시상이³⁸²)
 인간이 죽으면³⁸³)
 다시 아니오곡³⁸⁴)
 씨어멍³⁸⁵) 매누리³⁸⁶) 스이가³⁸⁷)
 굶어집네다³⁸⁸).

자료8. <죽으면 못 돌아오게 된 유래>

오익찬 채록, 1969년 8월, <죽으면 못 돌아오게 된 유래>, 현용준,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지금으로부터 몇 천만 년 전 아주 오랜 옛날에 명주를 짜면서 살던 어떤 아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갔는데, 거기서도 명주 짜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승에서는 명주를 곱게 짰는데 저승에서 짜는 명주에는 검은 점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 곱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염라대왕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부하에게 명주 짜는 것을 숨어서 살펴 보라고 했다. 여자는 명주를 짜면서 눈을 흘려 명주에 눈물이 묻어 더러워졌다. 부하가 염라대왕에게 보고했더니 여인을 불러 우는 이유를 물었다.

여자는 젊은 나이에 저승에 와서 이승에 있는 남편과 다섯 살과 두 살 된 어린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염라대왕은 여자가 측은하게 생각되어 이승을 왕래 시키기로 하였다.

"네 말을 들으니 가엾구나. 그러면 내일부터 밤 자시가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잠든

378) 죽어지어서
 379) 다시는
 380) 이승에를
 381) 못하여서
 382) ?世上에
 383) 죽으면
 384) 아니오고
 385) 시어머니
 386) 매누리
 387) 사이가
 388) 굶어집니다

이 밤과 저 밤사이에 이승에 가서 어린 자식에게 젖도 먹이고 집안일을 돌보고 새날이 새기 전에 저승으로 와야 한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느니라."

허락이 떨어지자, 여인은 기뻐서 고마움을 표하고 다음날부터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갔다. 그 후부터 여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 명주가 고와졌다.

이런 생활이 얼마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승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살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할머니가 다섯 살 난 손녀에게 누가 머리를 빗겨 주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이 밤과 저 밤사이에 어머니가 와서 빗겨준다고 순진하게 말해 버렸다.

비밀을 안 시어머니는 숨어서 며느리가 오는 것을 보고는 다시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며느리 신발을 숨겼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나와 보니 신발이 없었다. 당황해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저승에 가지 말고 아기를 키우라고 길을 막고 며느리는 가야한다고 하고 옥신각신 하다보니 시간이 넘어 버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골방에 있는 향아리 속에 숨겨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날이 밝아도 여인이 돌아오지 않자 염라대왕은 화가 나서 차사를 시켜 여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 차사는 이승으로 가서 여인의 혼을 빼가지고 가버렸다. 여인은 향아리 속에서 죽었고 다시는 이승으로 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인을 다시 이승으로 가지 못하게 한 염라대왕은 이런 불상사가 젊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늙은이부터 차례차례 저승으로 잡아오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늙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저승으로 오라"는 전달을 하라고 했다. 까마귀는 늙은이부터 차례로 저승으로 오라는 편지를 날개에 접히고 이승으로 날아오다가 죽은 말의 발이 보여 말고기나 뜯어먹고 가자고 들렀다가 그만 편지를 잊어버렸다.

까마귀는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아무렇게나 전달하려고 이승으로 날아와서는 '젊은이도 죽어라, 까옥. 늙은이도 죽어라, 까옥. 어린아이도 죽어라, 까옥' 하고 되는 대로 말해 버렸다. 이 때문에 오늘날 사람은 나이 차례대로 죽지 않고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먼저 지붕에 올라가 혼부터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자료9. <허운애기>

* 1986년 7월 29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양백송 구연, <허운애기>, 『백

록어문』 2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425면*

죽은 사람은 밤인 가그네 애기를 오랑 보고 낮인 강 저싱에 사는다, 춤 그런 법이 옛날엔 이서서. 거난 젊은 사름이 애기를 두어 개 낳아 된 저승처서가 완 드라가비여서. 드라가부나네 밤인 강, 애기를 뿡오랜 보내주고 낮인 안보내주고, 밤인 구신으로 강 보랜 허는거라. 아 경허난 이젠 흐룬 오란 보난 서방 사는 것도 막 험악하게 살고 이, 이젠 그 아들들도 사는 걸 보난 애이들도 아주 쉽게 살고.

‘나가 이젠 저승에 가불른 영 허는 걸 오늘랑 나가 곱아그네 가지 말젠’ 가지 말젠 이제 곱아비여서. 이젠 삼 처서가 들어완 이름은 허운애기라, “허운애기 어디 가시니?” 아방광 애기들은 갓수덴, 어명을 곱져비어 된 갓수덴 허난, “응 가시냐, 이놈의 새끼덜 거짓말을 해시메 너희들 어명은 놔 뿡가는다 혼은 우리가 뺑 간다.” 경허난 이젠 혼만 뺑 가불른 사람은 고만 구들에 셔도 죽은 거 아니? 경헨 혼을 죽이는 법을 내왔다는 거라. 경허난 그것도 곱앗다가 혼을 뺑 거부난 죽으민 아주 죽는 거라.

자료10. <허운애기>

* 1992년 7월 25일,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선홀리 부의함구연, <허운애기>, 『백록어문』 (1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94.*

옛날 허운애기가 얼굴 좋다 허운애기, 소리좋다 허운애기, 춤 잘 춘다 허운애기, 저승에서 드려 가젠 해신디 저승에서도 어영 춤사 추렌 해신지, 소리라도 허렌 해신지. 이제 드라가부난 애기들도 먼 어린 거 싣고, 각시도 어린 각시 싣고 부모들도 싣고 헌디 얼른 강 올 건강 싣영 강 오랜 허당 보난 가난 춤도 추라 뭐 소리도 허라 저승서도 허난 그것도 저것도 다 해보난 이젠 난 어린 애기도 떼어뿡 왔수다. 부모들도 떼어뿡 왔수다. 가진 부모도 보고 애기도 보고 인간에 나가사 허쿠다 허난 경허민 손바닥에 춤을 딱 뺏어뿡 이 춤이 다 모르기 전의 이승에 강 애기도 보고 부피 뿡 오랜 헌난 이승을 나오난 다시 강 안 오카부텐 어명네도 가지말라, 애기들도 가지 맵써, 신랑도 가지말라 허난 계민 아니가켤. 계민 곧 올 시간이 되난 돌려 온데, 허난 계민 요독 소굽의 곱아 불렌 이시난, 차사는 오난 찾당보난 독 속에 허운애기가 들어 앓양 이시난 아방네영 즈식이영 이번에는 못 갑네다, 못 갑네다 허난, 이제 차사는,

“혼을 가질테냐 몸체를 가질테냐?”

물으난 이승사람이사 느시 알아져? 혼이 무신 계명 몸체가 무신 계명 몸만 아삼시든 이제 살아 질 걸로 알았주. 몸체 아스쿠텐 허난, 돌려든 차사는 혼을 뺑 가부난 허운애기는 오꽃 죽어븐 거라. 독 이제 열영,



“혼져 나오라. 차사 가부러져.”

해도 대답이 이서? 종종 독을 열영보난, 파리만 ‘왕-.’

“죽어 부러구나.”

허연.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급갈랐덴 허주게. 이제 사름이 귀신과 생인을 온다간다허당 허웅애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이 백지 한 장으로 차이가 나난 생사름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생사름을 놀아 땡기명 본덴 허주게. 옛날엔 돌도 말을 한다, 낭도 말을 한다행 다 해나신디, 허웅애기 때문에 다 말모르기³⁸⁹⁾가 되어 부러주.

자료11. <애기엄마의 혼>

* 1999년 8월 1일,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김순자구연, <애기엄마의 혼>, 『백록어문』 (1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2000.2.*

요약: 옛날에 애기엄마가 빨리 죽어 버렸을 때는, 죽은 어미가 찾아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갔다고 한다.

응. 옛날엔, 아주 옛날엔. 애기 들(돌봐줄) 사름이 죽으면은,

<조사자: 예.>

애길 나뉘가민, 그 밤중에 오랑, 애길 느랑(계속) 젖을 베킶 뉘 갓덴. 경헌디 이제 동네사름이,

“야, 느네 어멍. 어땡허연 야네덜 어땡허연. 영 젖 안 먹여도 영 잘 살암시?”

허난,

“우리 엄마 밤이면 온덴.” 허난,

아! 그 사름이 막 역사네(?) 보다네. 오나네 그 신발을 오꼳 곱쨌 부러서(숨겨 버렸다.) 그 신발을 곱쨌 부난, 애기 젖 베킶 뉘 가젠 허난. 막 신춌지 못허연 막 애 타단 보난. 득이(닭이) 울어비연. 쟁 늦영 가부난 따신 안 보냈다 허여. 게난 따신 안 보내 저승서 안 보낸 쥐 부난, 애기덜도 못보고 그자 가민 거메기(끝이다). 아주 옛날은 떨어뉘 가민 왔다 갔다 헛덴. 밤이 혼으로.

자료12. <허웅아기>

*<허웅아기>,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한국정신문화연

389) 병어리

구원, 1983. 639~642면*

허웅아기라고 혼 이제 옛날에 아주 이제 우리 제주도 이제 이 우리 이 제주도가 아니고 우리 전국에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뭐 거 저 어디 춤 뗏(뗏) 사람 나오지 아년 때. 저 고·량·부 삼성 뭐 뗏 사람 나오란 뭐 현 때주게. 뗏 사람 정도 나온 때이다. 그땐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아주 그저 뭐 이제 하늘에는 해도 두 개 이제 들도 두 개 그러면 낮이는 막 이제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하는 이제 시절이 었던ㄴ라. 이제 허웅아기라 혼 이제 그 허웅애기가 뭐 열 다섯 술엔가, 무슨 옛날엔 아주 어린 때, 아홉 술 일곱 술에도 다 결혼했다하여. 시집을 보낸. 아 열 다섯난 뭐 낭군님에 뭐 뭐 혼 술난 얘기여, 두 술난 얘기여 이제 그렇게 이제 딸렸는디, 시집가서 낭군이 열 다섯이 되어 여러 아기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뜻. 그 허웅애기가 이젠 저승왕에서 오라해서, 이제 그 불러서(불러가서) 춤 죽었다 말이여. 이젠 죽어 부니까(죽어 버리니까) 이젠 그 저 애기를 이제 그 어린 것들을 놔두고 이젠 가서 저승을 가니, 그 열 다섯 난 허웅애기가 이제 미녕차는 걸(무명차는 일) 잘 했어. 이제 미녕차는 걸. 우리 지금은 이렇게 옷이 좋은 옷덜(옷을) 나지마는, 옛날에는 그 미녕옷을 이제 즈기냥으로(자기대로) 이제 지어서 입고 했는디, 미녕을 항상 짜면서 흐다가 이젠 죽었어, 죽언. 저승왕에 가니깐 이젠 저승왕 이젠 눈물을, 눈물을 이젠 하도 미녕을 짜면서 울어. 우니까 이제 저승 그 열세왕 열이나 되는 시왕이 묻는 말이,

“너는 왜 그리 우느냐?”

“아이고 혼 술난 얘기에, 두 술난 얘기에, 뗏 술난 얘기에, 뭐 뗏 술난 낭군님에 내 베돈(내버려두고) 오난 영 울엄쑈다.”

“그러면 이제 너 밤이랑 이제 이승을 가고 낮이랑 저승을 오라.”

아, 그런 법령을 느껴와서 이젠. 아 게니(그러니) 요 아무 집이는 이제 어명을 죽어 부렀다 헨 아기덜이 머리를 이제 곱게 영 다서(따아서) 이제 이렇게 머릴 앞갈라서 머릴 따졌다 말이여. 밤마다 이승에 내려와 아기들을 돌봐 주었다는 이야기. 머릴 이제 꼭꼭 집어서 이제 머리를 따졌어. 곱게 옛날에 아기덜은(들은) 머리 ㄴ사 ㄴ곳질 머리를 찢아서 이발을 하고. 이발을 아녀고(아니하고). 아이고, 요 허웅애기네 집은 허웅 애긴 죽어 분디(죽어 버렸는데) 아기덜이 머리를 곱게 빗기고 이제 머리를 곱게 다주 거든. 경 헨 땡기난 동넛 할머니가,

“아기야 머린 누게(누구가) 경(그렇게) 해쥬니?”

“우리 어명 해쥬디다.”

“무사 느네 어명이, 죽은 어명이 오느니?”

“우리 어명 읍니다.”

“하이고야, 느네 어명 오건 날ㄴ라 ㄴ르라(말하라).”

“예.”

그 허웅아기가 오라가민 밤이니까 누게 사람보카부덴(볼까 봐) 문을 탁타 다 즘그 거든. 아 이젠 밤인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백이떠레 나가젠 흐민, 할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가 오면 밖으로 나가려 하면.

“오줌도 구들에서(방에서) 싸라.”

영 나가질 못하게 헐. 나가질 못하게. 이젠 그 동넛집이, 이제 할망이 가난(가니까) 날 쟈 후에 동네 할머니를 만나니까.,

“아기야 느 어멍 오라서냐?”

“예, 오라십디다.”

“날그라(나에게) 그르랜 흐난(말하라고 하니까) 무사 아이 그란디.”

“나오란(나와서) 곤젠 흐난양, 우리 어멍이 느시(전혀) 못오게 이제 문증가부런(문잠가 버려서는) 못 오라쑤다.”

이제 그 뭐 은실인가 금실인가 이제 주면서,

“밤에라그내(밤이 되면) 지발에(자기 발에도) 즐라매곡(잡아매고는) 지발에 이제 지발에 즐라매곡 아기 발에 즐라맹 뉘 자당(누워서 자다가) 이제 어멍으란(어머니가) 오 거드네(오며는) 이 실을 이렇게 종글종글(종긋종긋) 이제 잡아뎡기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얘기를 이제 발에 이제 즐라맨 뵘다 말이여. 뵘다그네(누었다가) 이제 어멍이 밤엔 이제 오라시니까, 이젠 그 얘기가 이제 실을 이렇게 막 흐드니까 할머니가 오란. 할머니가 이제 오면서 이제 올레엔 뭐 그 뭐 한탈나무(들딸기나무) 탕 낭가시가 요렇게 오그라지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올레에다가 막하게 한탈나무 이제 베다가 막 싸두고(쌓아두고), 마당까지 다 싸두고, 아젠 막 이제 증근 문(잠근 문)을 뛰멍(뛰어서) 들어오란, 들어오란 이제 못간다고. 딱 시간을 지켜서 시간을 탁 마련행 들어가는다 못 간다곤 행. 그 할머니가 이제 그 허웅아기를 가지 못하게 했어. 가지 못하게 하니 이젠 아 시간을 비켜노니, 할머니가 허웅아기에게. 이젠 저승왕에선 어떠한 허웅아기가 꼭꼭 시간을 지켜서 잘오는다 오늘 은(오늘은) 이제 오지 아념다(아니한다) 지키지 아니하니.. 이제 그 저승 이제 처서(차사)를 놔 가지고, 이놈 이제 허웅아기가 이제 쾌썸한다고 가보라고. 오란보니까(와서 보니까) 문을 다 증가노코, 이제 거 가시랑 안에 다 싸놓고, 가지 못하게 팍 심언 앉 아시어, 이젠 지봉 상조추모루로(지봉꼭대기로) 지봉우로다가 이제 머리를 허웅아기 머리카락을. 이제 그 뻗 그울을(오라기를) 뿍안, 이젠 그 저승터레(저승으로) 이제 뿍 아갔다. 그래부니(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제 거기서(거기서) 허웅아기가 영원히 이제 집에서 죽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저승을 일절 이제 끊 어져서 이 저승광(과) 이승 이제 곱을 갈라(구분을 갈라). 그때는 귀신 불르민 생인(生人) 대답, 생인 불르민 귀신 대답흐면서, 이 인간에 이제 귀신덜이 이제 사람인 줄 귀

신인 줄 몰라났는디, 이제 그 어느 이제 천왕폐와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을 뜻함. 어느 나라가 이제 해도 하나 쏘아 불고(버리고), 들도 하나 쏘아 불고, 이제 귀신들이 말을 못 근게(말을 못하게) 다 하여 불고(하여버리고),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위선 이제 사람 죽으며는 그 뭐 초훈(招魂) 헝쟁 허민(하자고 하면), 머리로 저 끊어다 노매. 이디머리 상가맨[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머리, 머리 끊어다 농곡 손톱 그사(짚라) 농곡. 그래서 이제 가. 계난 그 그식으로 이제 지금은 죽어서 이제 소렴을 헝자면, 이제 그 주머니세계 요만훈[시늬] 이제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털 해 농곡 이제 손톱 발톱 그사 놓고. 또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근살(흰쌀) 일곱 방울, 쌀 일곱 방울을 이제 물 컷다가(물에 담갔다가) 이제 그 사람 죽은 입을 이렇게 들러가지고[시늬] 입더레(입 속으로) 영(이렇게) 놔. 계난(그러니까) 요것은 어떠한 영 낚싱고 헝며는(놓으냐 하면), 저승 가서 이승에서 이러했다 소문이 이 스파이질을 간첩질 이 스파이질을 헝지 못헝게 헝는, 그런 식으로 야강지(양 턱) 물리는 식이라 말이여. 야강지 물리는 식으로, 이승에 가면 이승에서 이승에서 가며는 이제 어떻했다. 저승이 어떻했다(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다 그것이 이제 끊어져 부니까, 이제 뭐 거 귀신없다. 뭐 귀신이 된 귀신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라. 그런 식으로.

자료13. <허웅아기>

* 제주도 이방아구연 1964년 8월, <허웅아기>, 『(임석재전집9)한국구전설화』, (전라남도·제주도편), 평민사, 1964, 283~285면.*

옛날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는 해도 두 개 들도 두 개 있어서 낮이는 막 뜨거워서 사람이 타죽고 밤에는 막 추워서 얼어죽고 하는 그러한 시절에 허웅애기가 잇었는디 열다섯 살에 시집가서 딸을 여럿을 낳고 키우는디 저승왕이서 저승 오라고 해서 저승으로 갖수다. 즉 죽엇단 말입니다.

허웅애기는 미명짜는 걸(무명짜기틀) 잘 해서 저승에 가서도 미명을 짜는디 허웅애기는 미명짜서 이승에 두고 온 딸이랑 서방이랑 생각이 나서 차꼬 울기만 힘수다. 저승 열시왕(열十王)이 허웅애기 우는 것을 보고 “너는 어찌서 그리 우느냐”고 물엇수다.

“아이고 혼 슬 난 애기여 두 슬 난 애기여 시 슬 난 애기여 뭇 슬 난 애기여 낭군님 이승에 내버리고 오난(왔으니) 생각나서 울엄수다.”

“그러느냐. 그럼 이제부터 너 밤이랑 이승 가고 낮이랑 저승 오라.”

그런 명령을 내리워서 허웅애기는 밤이랑 이승 와서 애기털 머리를 곱게 비기고 곱

게 따두고 낮이랑 저심으로 가고 핏수다.

동넛할망이 보니까 애기덜 머리가 곱게 비기고 곱게 떠서 잇어서 이걸 보고 “아기야 머털 누가 경(그렇게) 해주던?” 하고 물으니 애기는 “우리 어망이 해줍디다”고 대답핏수다.

“무사 느네 어망이? 죽은 어망이?”

“우리 어망이 밤이뉼 와서 우리 머리를 비기고 따줍디다.”

“하이고야. 느네 어망 오진 날ㄴ라(나한테) ㄴ르라(말하라).”

허웅애기는 밤이뉼 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댜 탁탁 줌그고 오즘도 밖으 나가서 쓰지 못하게 하고 구들에서 쓰라고 핏수다. 그래서 아이덜은 동넛할망라 가서 우리 어망 왔다고 ㄴ르지 못핏수다.

다음날 날이 붉아서 동넛할망이 와서 “어젯밤에 느네 어망 왔네?” 물어서 “왔다” 하니까 “으찌서 나ㄴ라 와서 ㄴ르지 안핏냐”해서 “어망이 와서 방문을 탁탁 줌그고 오즘도 밖에 나가서 싸지 못하게 해서 할망이ㄴ라 ㄴ르지 못했다”고 핏더니 할망은 은실인가 금실인가 주뉼서 한끝은 내 발에 졸라매고 다른 한끝은 느네 다리에 매고 잇다가 느네 어망이 오거던 이 실을 잡아댕기라고 일렷수다. 밤이 돼서 어망이 오니까 애기들은 어망이 왔다고 알릴라고 발에 잡아뉼 실을 잡아 뉼것수다. 동넛할망은 와서 허웅애기하고 여려 가지 말을 핏수다. 그리서 허웅애기는 저심으로 갈 시간을 잇어버리고 늦게사 저승으로 갓수다. 어찌서 늦게 왓능가 하고 열시왕이 훗아와여 여려 가지 말하느라고 시간 간 것을 잇어서 돌아오는 것이 늦엇다고 핏수다. 이 말을 듣고 저심의 열시왕은 허웅애기가 이승에 나가서 이승 사름하고 말하다가 저심 비밀도 말할가 봐서 귀신 말을 이승 사름이 못 알아듣게 핏다고 합니다.

자료14. <허웅아기>

<허웅아기>, 진성기,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9, 78-85면.

열 세 살된 남편과 세 살된 아들과 한 살된 딸아기를 거느리고 살던 허웅아기는 무척 나이 어린 어머니였읍니다. 그러나 어찌나 살림 솜씨가 좋앗던지 저승의 왕에게까지도 퍼져나갔읍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디지만, 그때에 저승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저승왕은 허웅아기를 데려다 저승의 살림을 보살피도록 하리라 마음먹었읍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저승의 차사들이 허웅아기를 다리려웁니다. 허웅아기는 그것을 알았읍니다.

앞동산에 치를 달아
 쓴 고사리 단 고사리
 골라잡아 꺾어내어
 삼년 묵은 참기름과
 오년 묵은 간장에다
 오목조목 볶아놓고
 한뿔쌀을 정성드려
 앞통에서 한번 씻고
 윗통에서 두 번 씻고
 셋통에서 세 번 씻어
 밥을 지어 상을 차렸네
 어머니방에 달려가서
 엄마! 엄마!
 이 밥 잡수고 저 차사 인정(뇌물)이나 걸어주어요
 무엇으로 걸겠느냐?
 첫째에 엮은 술으로요
 계집자식 하나 없는건 살아도
 술 없어선 못살겠다
 네나 먹고 네가 가라
 아버지방에 달려가서
 아빠! 아빠!
 이 밥 잡수고 저 차사
 인정이나 걸어주어요
 무엇으로 걸겠느냐?
 타는 말로 걸어주세요
 계집자식 하나 없는건 살아도
 타는 말 없어선 못살겠다
 네나 먹고 네가 가라
 할아버지방에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밥 잡수고 저 차사
 인정이나 걸어주어요.
 무엇으로 거느냐?
 황소로 걸어주세요

계집자식 하나 없는건 살아도
 황소 없어선 못살겠다
 네나 먹고 네가 가라
 이리 되면 어찌할까
 저리되면 어찌할까
 언니방에 달려들어
 언니! 언니!
 이 밥 잡수고 저 차사
 인정을 걸어주세요
 에고 불쌍한 내 동생아
 열두폭 치마 한 벌뿐이로구나
 이것으로 걸어보아라
 열두폭 치마 가져다가
 열두폭에 찢어놓고
 한폭 두폭 인정거네
 날 잡으러 오는 차사는
 병것 벗어 등에 지고
 입저 벗어 목에 걸고
 슬금슬금 오는구나
 이리되면 어찌할까
 저리되면 어찌할까
 차사님께 밥을 올려
 차사님아! 차사님아!
 이 밥 잡수고 돌아가소
 내가 갈 순 없습니다.
 네가 웬 일로 못가겠느냐
 열 세 살된 낭군님에
 세 살된 아드님에
 한 살된 딸아기
 내가 가면 이승일
 어느 누가 거렴(居念)하료?
 보름달같은 얼굴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비새 울 듯 울어가네

그럼 내가 내말대로 하여라

어떻게요?

저승닭 울면 이승오고

이승닭 울면 저승가며

낭군과 아이들 거렴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옵지요

이렇게 하여 허용아기는 이승과 저승을 번갈아 다니며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닭이 울면 저승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허용아기가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뿐만 아니라, 살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사내애가 어린애를 업고 이웃 할머니한테 놀러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가 없어도 누가 그렇게 몸단장을 이쁘게 하여주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철이 덜든 사내애가 불쑥 대꾸하였습니다.

“왜 엄마가 없다구 그러세요? 엄만 이승닭이 울면 저승엘 가고, 저승닭이 울면 이승에 온답니다.” 할머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오늘밤에도 엄마가 오겠구나.”

“그럼요.”

“너희 엄마가 오면 나에게 알려줘라고.”

“안되어요. 엄만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말라고 하였어요.”

할머니는 사내애를 달랠니다. 내가 엄마를 만나서 다시는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언제나 엄마하고 살게되어서 좋지 않겠느냐, 고. 사내애는 이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엄마가 이승에서만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저승닭이 울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사내애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변소가고 싶어.”

“갔다오너라.”

“무서워요.”

“그럼, 솔밭에 가서 소변을 보려든.”

“조왕할머니 나올걸요.”

“찬장 앞은 괜찮겠지.”

“달락 귀신이 나와요.”

“그럼, 뒷뜰에는?”

“밭칠성(밭을 지키는 귀신) 이 나올거야.”

“안방이면 괜찮니?”

“거긴 안칠성이 있는걸, 뭐.”

“그럼 어찌면 좋을 것 같으니?”

“엄마, 실 한꾸러미만 주세요. 한쪽은 엄마가 잡구, 한쪽은 내가 잡아서,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허웅아기 엄마는 실 한 꾸러미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내에는 한끝을 잡고 밖에 나가 소변을 본다음, 먼 문밖으로 퐁퐁 걸음마쳐 달아납니다.

“아가야, 어딜 가니? 아가야!”

엄마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후에 사내에는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허웅아기를 붙들고 호소합니다.

“허웅아가. 다신 저승에 가지 말아. 어린것들이 불쌍하고나.”

허웅아기는 울가망한 얼굴입니다.

“안갈려야 안갈수가 없어요. 누곳 명이라 어길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할 말을 모릅니다. 잠시후에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속삭입니다.

“어디엔가 숨어있으면 되겠구나.”

“숨기는 어떻게 숨어요. 이승답이 울면, 난 어차피 가야합니다.”

“오늘 하루만 숨어 있으면 안되겠니?”

이번엔 허웅아기가 생각에 잠깁니다.

하루밤만 잘 숨어있으면 될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끔찍스러운 지옥에 넘나드는 일도 괴로운 노릇이었기에 허웅아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때 벌써 먼 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허웅아기를 책갑속에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잠갔습니다.

저승에서는 허웅아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야단이 났습니다. 저승왕은 차사에게 허웅아기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웅아기 잡으러오는 차사는

홍애 홍개 둘러매고
삼각소를 거스리고
붕어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하는 말이
허웅아기 어데갔오?
저승으로 갔읍네다.

차사는 훌쩍 지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용마루를 도끼로 좌우 세 번씩 두드리니 뚝뚝 구멍이 열렸습니다. 차사는 입안으로 들어와 허웅아기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개를 뽑아가며

허웅아기 혼은 내가 갖고가니
육신은 당신네가 차지하소

할머니는 허웅아기가 설마 죽지는 않았으려니 하였는데, 새하얗게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허웅아기를 숨기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어서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며 반반씩 살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죽으면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15. <허웅애기>1

* (설화) 김태일(여73), 고산리 경로당, 2012. 8. 15. 김현선채록 *

(자료설명) 김태일은 제주시 제주읍 안덕면 덕수리 태생인데 한경면 고산리로 이주하였다. 어머니가 옛날이야기를 잘하고 <검질매는소리>를 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제보자였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배워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이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김태일의 자료를 고산리 경로당에서 2012년 8월 21일에 두 가지 자료로 구연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다른 하나는 민요 형식으로 구연하였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채록하여 보고한다. *

옛날에 허웅아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애기가 세 갠데 예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젠 집에 참 열두 마당 썰어두구 열두 부엌 썰어두구 열두 구들 썰어두구 또 열두 솔에 깨 볶아두구, 앞동산 뒷동산에 가다보니까, 자기 거 잡으러 오는 거 체스 예 체스가 이젠 오니까 이젠, 검불리를 아주 더우니까 예 가불리니까 이젠 한 착 눈은 쟁기리멍 한 축 발을 철지기멍 이젠 갓 벗은 등에 지고 망근 벗은 팔에 걸고 이제 이렇게 절축이기면 오람시난,
이젠 그 젊은 사람이 그 허웅애기헌 사람이 이젠 어머니 앞이 가서 예 이젠 자기가 죽게 되난,

“어머님 어머니 쇠나 있건 대령협서 몰이나 있건 대령협서.”



허난,

“물도 엷다 쇠도 엷다. 쇠뿔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여, 지집 아기 하나 엷인 폭허켄.”

예,

겨난 이만하면 어땡허코 허여 또 아버지한테 가서,

“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쇠나 있건 대령협서 몰이나 있건 대령협서.”

허난,

“쇠도 엷다 물도 엷다. 쇠뿔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여.”

허멍, 아무 것도 안주거라 예,

게나 이젠 저 울멍 이젠 언니 앞이들 가서,

“언니 언니 이제 난 곧 죽게 되니깐 날 잡으러 오는 체시가 그렇게 이제 오니까 니나 하나 잡아두고 가갔다.”

고, 양, 머리에. 게난

“아시야, 동생아 동생아 니랑 못 잡것이고, 이제 공장에 (설명-예, 공장에 치마가 있으면 예, 옛날에 열두복을 해서 치마를 입는는 문양이라 예,) 게난 저 공장에서 열두복 치마가 잇이니까 그걸로 이제 인정 걸언 가젠.“

예, 게난 그걸 가지고 이제 참 가다보면은 문지기가 딱 싸면은 ‘이 문 엷서’ 하면 ‘이 문은 인정 걸어야 가는 거’허민 그 치마폭을 착 벌이고, 치마폭을 착 벌이고는 열두문에 이제 인정을 걸언 들어 갔어 예,

드렁가니까 이제 그 어멍은 그 애기엄마는 가서 막 울었어요. 집에 애기들 참 젓먹는 애기 밥 먹는 애기 다 이제 정말 어린, 어린 아기들을 다 떼 놓고 가니까 막 울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체시가 이제 같으면 왕이나 마찬가지로, 저싱에 가며는 아주 저 우두머리 왕이 이제

“너는 왜 그렇게 우느냐.”

허난,

“젓 기른 아기 젓 떼고, 밥 기른 아기 밥 떼 두곡 오니까, 나는 이렇게 울언젠.”

경 허난 이젠,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이만 헌 돌, 옛날엔 돌 무신 돌 산디, 이젠 돌 딱 앞이 봐가지구 그 저 강림이가 그 왕님이 딱 노면서, 춤을 탁 박그면서,

“너는 이 춤 마르기 전이 이승에 갔다 오겠느냐.”

허난,

“갔다 오겠습니다.”

경허니까 이젠 또, 그 춤 마르기 전이 이승엔 이젠 가서 예, (윤복녀: 이 밤 잠 저 승새에 가서) 이 밤 잠 거상새에 가서 예, 아기들 다 이제 옷 참 빨아 입히고 젓 다 맥이고 저 어린애기 난 먹이곡 이쁘게 이쁘게 아이들 단장허고 막 머리대령 허니까, 동

네 할머니가,

“이 아기들아 엄마 엇인디 왜 그렇게 곱게 헨 땡임시니?”

허난,

“할머니님 말도 막센. 우리 엄마가 밤에 오라서 우리를 다 그렇게 머리 비치고 젓 뵈이고 다 밥 뵈이고 갑네덴.”

허난, 그 할머니가 따시랑 오거든 절대 저 못 가게 허랜 예, 엄마를 못 가게 허랜.

경허난 이젠, 또 이젠 저승에 들어갔수게. 저 그 가니까 그 춤을 몰리가 전에 저승에 들어 갔어 예. 경허나 또 보냈거든예. 또 보내니까 또 오라서 문막 해가난 이젠 동넛 할머니가 인제 아기신디 허는 말이,

“어머니 오거들랑, 엄마 오거들랑, 나 한티 말을 해주랜.”

게난,

“무신 말을 허래주난?”

허난,

“어머님 오면은 따신 이제 그 할머니까 따신 이제 못 가게 허켤.”

예, 경허난 이젠 전부 혼탁 차리고 이젠 이녁 갈 시간이 되가난

“어머니 어머니, 이 문 엽서허면”

이 문도 즉각 저 문도 즉각 허멍 문막 잠그고, 또 거 올래에 가로 그 나무를 각 걸치고 못 가게 현거라 야. 경허난 이젠 아주 참 이 밤 저 밤새에 (손가락으로 천정 쪽을 가리키며) 이런 상무리 그 지붕 꼭대기로 저 상마루 이런 꼭대기로 예, 강림체사가 완 확 머리꼬배깅 물어 잡아가니까, 그런 후제는 그 애기엄마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 뵈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부니까 따신 못 왔습니다.

자료16. <허웅애기>2

*(서사민요) 김태일(여73), 고산리 경로당, 2012. 8. 15. 김현선채록

허웅애기 깨매 그거,

(노래조로) 열두 마당 썰어두구 열두 부엌 썰어두구 열두 솔디 깨 볶아두구 열두 마리 썰어두구 열두 구들 썰어두구,

날 잡으레 오는 체시

뒷동산에 앞동산에 검불리게 가단 보난

한 착 눈은 쟁기리멍 한 찬 눈은 벌어 뜨며 한 축 발은 절축이멍

갓 벗언 등에 지고 망근 벗언 팔에 걸고 오람시난
 (어머님에) 집이 달려들언
 어머님아 어머님아 쇠나 있건 대령헝서 물이나 있건 대령헝서
 날 잡으레 오는 체시 뒷동산 앞동산에 검불리게 가단보난
 흥베흥베 둘러메고 갓 번언 등에 지고 망근 벗언 팔에 걸고
 혼 착 눈은 쟁기리멍 혼 착 발은 절축이멍 오람십대댄 허난
 어머님이 허는 말은
 쇠도 엇다 물도 엇다 쇠빨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여
 지집 아기 하나 엇인 폭 치켄 허난
 이만하민 어뎡허리 아버님한테 가 가서
 아바님아 아바님아 쇠나 있건 대령헝서 물이나 있건 대령헝서
 열두 마당 썰어두고 열두 부엌 썰어두고 열두 술이 깨 북아두고
 열두 마리 썰어두고 열두 구들 썰어두고
 앞동산에 뒷동산에 검불리게 가단 보난
 흥베흥베 둘러메고 갓 번언 등에 지고 망근 벗언 팔에 걸고
 혼 착 눈은 쟁기리멍 혼 착 발은 절축이멍 오람십대댄 허난
 아바님아 아바님이 쇠나 있건 대령헝서 물이나 있건 대령헝서
 물두 웃다 쇠두 웃다 쇠빨도 각각이여 가친도 목목이여
 지집 아기 하나 엇인 폭 치켄 허난
 이만하민 어뎡허리
 이젠 언니신디 간 언니 언니 나 앞동산에 뒷동산에 검불리게 가단 보난
 날 잡으레 오는 체시
 흥베흥베 둘러메고 갓 번언 등에 지고 망근 벗언 팔에 걸고
 혼착 눈은 쟁기리멍 혼 착 눈은 버르트멍
 혼 착 발은 절축이멍 오람십대댄 허난
 언니가 이젠 계난
 언니 언니 나 언니 머리에 이나 하나 잡아두영 가쿠덴 허난
 헌니 허는 말은
 나 아시야 나 아시야 늘랑 옷작구대라 저 공장에 보라
 열두 폭 치마가 잇이나 그걸로 인정걸언 가랜 허난
 (잠시 쉬며, 계난 딱시 ㄱ르란 말이짜, 골난 말)
 (다시 노래조로)
 가랜 허난 이젠 그것을 가져가멍
 (말로)



이제 그 이제걸으면 그 왕들 그 집에 들어가쟁허면 문지기들 막 살지 예,
게나 이젠

(다시 노래조로)

이문 엮서 이문은 칙각하민 이문은 인정걸어사 가는 문이젠 허민
치마도 한 폭 짝 부렁

이문 엮서 이문 엮서 이문은 인정걸어사 가는 문이젠 허멍
열두 반디 문짝 입출을 사 가지고

이젠 마주막 열두 문을 올안 저싱에 들어간
그 아기 허웅아기가 허는 말이 눈물을 달달 떨멍

(말로)

애기 생각하면서 막 울어서 예, 막 눈물을 흘려가난 이젠 그 상관 처사님이
(다시 노래조로)

어떻게 그렇게 울고 있수넨 허난,
말도 말고 이르고 맙서

젓 먹는 아기 떼어두곡 밥 먹는 아기 떼어두고 오랏수넨 허난
(말로)

기가 백힌거라 예, 막 젊은 때난에,

그러면은 이만 헌 돌을 탁 노면서 이 돌에 춤을 탁 박그며서 그 체스님이 탁 박그면
서

(다시 노래조로)

그러면은 니가 집에 가서 오실려나느난

예 갔다 이승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젠 또 집에 오라서 우는 아기 소리 달래 두고

젓 그린 아기 젓 맥여 두고 밥 그린 아기 밥 맥이고 허연에 허난

이젓 동네 할망 허는 말은

이 아기야 이 아기야 어떻허난 경 곱게 허영 탕겸시니

(말로)

세 성제 산지 삼남매 산지 몰라 아기는 세겐디 양
게난

(다시 노래조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밤에 읍네다

밤이 오랑 우리 형제들 모두 다 이렇게 옷허영 입지곡 다 헤영 감수넨 허난

할머니가 허는 말은

아기야 아기야 오거들랑 따시랑 나 앞이 그르면은

어머닌 따신 못가게 허켄허난
그 아기들 분식모르곡 이젠 겨난 이젠
또시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싱에 왔다가 저싱에 가니까
쳐서님이 따시 갔다오렌 예

(말로)

간 문딱 거거 애기들 다 해두곡 헤영가난 그 사람이 막 참 기분 좋게 허난 이젠 그 쳐
서님말을 들어가지고, 그 춤을 몰리기 전에 들어가서 예, 저싱에, 겨니까 또 갔다오렌
허난 오난 이젠 문딱 이제 해난,

이젠

(다시 노래조로)

오란 문딱 젓백인 젓,
어린아인 젓 백여두고 밥 먹는 아긴 밥 백여두고 머리단장 다 허여두고 옷도 깨끗이
입져두고 허연에

아이고 이젠 가게 되어가난 문을 열쟁허민 칙각 이문도 엽서 이문 엽서 이문 엽서

어머님아 어머님아 혼 코만 옥여줍서 두 코만 옥여줍서

이문 엽서 이문 엽서 문을 안 올라주고

허단보난 따시 올레에두 문딱 그런 나무 옥에 탁허게 걸쳐두고

쳐서가 아주 들어가지 못허게 예

경허니까 들어가지 못허니까

시간이되난 아이구 상우트로 울음하나 햄시난

그 쳐서님이 지봉 상머리로 오라 가지곡

머리 꼬방일 물어서 심어가지고 또 저싱에 가니까

따시는 못 왔다고 험데다

이 문도 즉각 저 문도 즉각 허멍 문딱 잠그고, 또 거 올레에 가로 그 나무를 칼 걸
치고 못 가게 현거라 야. 경허난 이젠 아주 참 이 밤 저 밤새에 (손가락으로 천정 쪽
을 가리키며) 이런 상머리 그 지봉 꼭대기로 저 상마루 이런 꼭대기로 예, 강림체사가
완 확 머리꼬배깅 물어 잡아가니까, 그런 후제는 그 애기엄마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로)

그거 마씨, 하하하(웃음).

자료17. <허웅애기>

<허웅애기>3, 김태일(여73), 고산리 경로당, 2012. 8. 15. 서영숙채록.

열두마당 썰어두고 열두정지[옛날정지에 부엌이] 썰어두고
 열두소띠 깨볶아두고
 앞동산에 뒷동산에 간보난
 날잡으래 오는채시 흥배흥배 둘러매고
 갓벗은 등에지고 망근벗은 풀에걸고
 오람시때는 이말은 어디 아니
 한착문은 쟁기리며 한착밭은 절축이며 오람시난
 허웅애기 하는말이 어머님신디간
 어머님아 어머님아 쇠나잇건 대령협소 멀이나 잇건 대령협소
 날잡으래 오는채시 뒷동산에 앞동산에 가난보난
 한착문은 쟁기리멍 한착밭은 절축이멍
 갓벗은 등에지고 망근벗은 풀에걸고 오람시대다라난
 어머님이 허는말이
 이야기야 이야기야 쇠도없다 멀도없다
 쇠빨도 각각이여 가친도 떡떡이여
 기집년은 혈필요업다하난
 아이그 이제 울멍이젠
 이제 아바님신디 내려가사야
 아바님아 아바님아
 열두마당 썰어두고 열두소띠 깨볶아두고
 열두정지 썰어두고 열두마리 썰어두고
 앞동산에 뒷동산에 간보난
 날잡으래 오는채시 흥배흥배 둘러매고
 갓벗은 등에지고 망근벗은 풀에걸고
 한착문은 장기리멍 한착밭은 절축이멍 오람시때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쇠나잇건 대령협소 멀이나잇건 대령협소
 이야기야 이야기야 쇠도없다 멀도 없다
 쇠빨도 각각이여 가친도 떡떡이여
 지집야기 어신폭지케나난
 아이그이만 어미 어뎡허리 잘자불멍
 성님신디 내려들언 성님성님 성님머리에
 이나하나 잘아주그뎡은
 이야기야 이야기야 어떤말도 허난

뒷동산에 앞동산에 큰불이래 가다보난
 날잡으레 오는채시 오람시대대
 [간단하게 허구다. 이제 성님이 허는말이]
 이야기야 나시야 이내말을 들어보라
 저희에 열두폭치마 시내 그걸로 인정걸어 가래나난
 허웅아긴 그걸거전 저승에 들어가재한난
 이문엽소 이문엽소 이문은 인정걸어서 가는 문이
 [경하난. 아이구 인저 한가단 열두문을 열어 들어가난 이젠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라에 그 허웅아기가. 이젠 채사님이 그 관장이 채사님이 어떻해선 그렇게 눈물 나
 남시난.
 어린애기 젖주는 아기 떼고 밥주는 애기 다 떼고 다 애기들이 다 떼고 왔수니까 이렇
 게 눈물 납니다. 이젠 이만커난 돌맹이 옛날에 덩두렁 없수까 그걸 탁 내노면서
 그러며는 이 돌에 춤을 탁 밟앙 그 춤을 떨기 전에 이승에 갔다 오겠느냐.
 예 갔다 오겠습니다. 경하난 이젠]
 동네 사난 할망 하는 말은 그 아기덜 보난
 이야기야 이야기야 어멍 업서두 어떻하난 지체로 고은옷 입고
 머리단장 허여놓고 이영무신이난
 아이구 우리 어머니 밤에 읍네다 밤이오면 왔다 만다
 애기들 젖기른애기 젖먹여두고 밥기른 애기 밥먹여두고 [이거 심방 헛거라]
 갈수다 나난 아가 아가 따시랑 오건 따신디 고라주민
 따신어멍 못가게 허게나난 경업수니다
 [이제 도시 오라]
 그 동네 할망 하는 말은
 아이고 우리 정아 죽으면 둘이들이 다 종가주고
 [나가지 못하게 경하난 이젠 아기들 나가지 못하게]
 저승에 들어가게 되난
 어머니야 어머니야
 한코만 우겨줍소 두코만 우겨줍소
 문을 열어두 열지못하구
 올레에 딱허냥 채시가 못들어오두냥
 [경허니시냥 상머루루 저 지봉으루 지봉으로 이젠 채시가 와 확 잡아가니냥
 그다음은 저 저승에 들어가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마고할망이야]
 [청중: 아조 왕이야 완전 좋구라.]

[조사자: 그 누구 심방한테 배웠어요.]

[제보자: 아니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옛날에 검질때면서 김때면서 했어요.]

[조사자: 근데 왜 허웅애기가 불러갔어요.]

[제보자: 허웅애기는 옛날에 경한 사람이 있어봤다. 젊을 때 죽어지니 어명신지가 이영 살아나제]~~~

[청중: 어릴 때 검질 땀 때 들은 말이네.]

[제보자: 검질 때며 할 때가 몇 살 안돼. 한 열두살 될 거라]

[조사자: 강림도령 노래는 모르세요?]

[제보자: 그것은 몰라.]

Abstract

MA.(MS.) Thesis

A Study on "Heowoongaegibonpuri"

Yun, Jung Kw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Heowoongaegibonpuri," a folk myth of Jeju Island, and figure out its mythical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Heowoongaegibonpuri is a folk epic of Jeju Island about the story behind the division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due to Heowoongaegi, who died young and left young children behind. Heowoongaegi touches the underworld king with her strong maternal love and gets a chance to visit this world only to pass the promised deadline, enrage the underworld king, and cause a complete severance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The narrative makes the readers

recognize the great value of her maternal love beyond death and represents her human limitations.

The research findings on "Heowoongaegibonpur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confirmed the actual transmission practice of "Heowoongaegibonpuri" and demonstrated its values as a common myth. Previous studies defined it as a special Bonpuri sung under particular situations, being excluded from ritual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it was still combined with "Chasabonpuri" and kept its transmission power of being performed within the Gut Jecha. It also obtained universality as a common myth in that it dealt with the life and death of man, handling the communication and boundaries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The study thus newly defined it as a general Shinbonpuri based on those performance patterns and content characteristics.

Secondly, "Heowoongaegibonpuri" is very valuable as a material containing a humble mythical idea about the two different worlds of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based on the traditional faith. There are, of course, other materials to confirm the conviction in the other world such as narrative adventure stories including "Baridegi" and "Chasabonpuri," but those materials focus on a journey to the underworld after the division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Heowoongaegibonpuri," on the other hand, presents primitive thinking by covering the events on the way to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worlds when they still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Thirdly, "Heowoongaegibonpuri" is worth recognition in terms of tradition and significance in women's narrative literature. It is highly valuable in that a woman is the main character of struggle to return back to life after death from the other world to this world and that she has maternal love as the most powerful element to overcome death. Compared with "Baridegi," it shares with it a common feature that a female protagonist faces death to protect life. While the daughter takes a journey to the underworld to practice her filial piety in "Baridegi," the mother faces death as the practice of maternal love for children in "Heowoongaegibonpuri," which seems to present more primitive thinking in that maternal love is closer to instinct than filial piety even though both of them are precious value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ts main character is a woman, it has been usually transmitted around women, being performed as a dance song, tale, and folk song by female Shimbangs and speakers, which makes one of its characteristics as a work of women's narrative literature.

Finally, it is also noteworthy that "Heowoongaegibonpuri" has

been performed and transmitted in close relations with various narrative dance songs in the folk tradition of Jeju Island. Its content includes the content about the creation of a world, the concepts about the other world, and Samshin faith, which concerns the birth and prosperity of human life. It is thus safe to say that "Heowoongaegibonpuri"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myths about world creation, prayer for survival, and breeding, which suggests that it is a valuable material with the values of a general Shinbonpuri.

Keywords : Heowoongaegibonpuri, maternal love,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underworld messenger, underworld king, female myth, Samshin(Sanyukshin), general Shinbonpuri, narrative dance song, folk myth, Baridegi, filial piety